



대천마을은 반세기 이상 경험한 우리의 ‘근대화’에 견줘 볼 때 사뭇 특별한 곳이다. ‘전통’과 ‘근대’,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 단절된 측면이 컸고 근대성의 특징 요소만이 과잉 대표된 채 근대의 세례를 받은 한국적 특수성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의미이다. (...) 하지만 이와 같은 굴곡진 역사적 경로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천마을은 과거와 현재가 분절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유지·발전해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동계, 품앗이와 두레, 당산, 임천제로 표징 될 수 있는 주민자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속공동체, 교육공동체 등의 공동체적 유제가 저 근대주의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해체·소멸하지 않고 생태주거공동체와 교육문화공동체로 재편되어 발전한 것이다. 대천마을이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이점이야말로 우리가 대천마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자치와 협동의 마을공동체, 대천마을」 중에서



넋가에 마을을 이룬 곳, 대천마을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금정산(金井山)에
우뚝 솟은 고당(姑堂) 영봉(靈峰-800m)에 수원(水源)을 이루어
흐르는 넋물이 대천(大川) 천(川)이요
이 넋가에 마을을 이룬 곳이 대천(大川) 마을이다”

- 「대천마을 연혁비」 중에서



넷가에 마을을 이룬 곳,
대천마을

넷가에 마을을 이룬 곳, 대천마을

일러두기

이 책의 편집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1. 구술의 내용

- (1) 이 구술자료집은 부산시의 2021년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결과물인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 북구 대천마을 구술자료」에서 조사·수집된 여섯 분의 구술 녹취문 중 핵심 내용만을 발췌·윤문 및 편집한 것이다.
- (2) 이 구술자료집은 각 구술자로부터 사전에 자료 이용 및 도서 발간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발간하였다.
- (3) 구술내용 중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일부 내용은 구술조사자와 편집자가 논의 후 삭제하였다.
- (4) 이 구술자료집은 내용 편집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했으며 동일한 주제의 내용이 중복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진술로 하나로 묶어 정리하였다.

2. 본문의 형식

- (1) 이 구술자료집은 구술자가 말한 그대로를 옮긴 구술 녹취문이 아니라, 읽기 쉽게 재정리한 편집본이다.
- (2) 구술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구술자의 구술내용 초두에 본문에 관한 요약문을 수록하였다.
- (3) 독자의 편의를 위해 수정을 하였으나 가급적 구술 녹취문을 살리는 바탕 위에 윤문 및 편집함으로써 구술의 현장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4) 사투리나 속어 등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살려두고 [] 안에 표준어나 의미를 간단히 밝혀 두었다.
- (5) 구술내용 가운데 독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각주를 달아 보충하였다.
- (6) 이 구술자료집 앞부분에 해제를 수록하여 구술내용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발간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는 2010년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 남북분단과 6·25전쟁, 지난했던 민주화의 여정 및 압축적 산업화의 경험 등 지난 1세기 동안 격동의 시절을 살았지만, 문자화된 기록을 남기지 못해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보통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복원하려는 취지로 구술자료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궤를 같이하면서 본격화된 현지 조사와 구술자료 수집은 지역사 연구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그로 인해 중앙과 대비되는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정체성 규명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사실이지 한국 근현대사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문헌자료의 결핍은 지역의 역사, 즉 부산의 역사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지역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연구자들은 정부 문서 및 중앙지 등을 활용한 ‘지역의 역사 쓰기’에 진력했지만, 대다수 자료가 중앙의 시각과 관심 아래 작성된 것이었기에 중앙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이고 균질화된 역사상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컨대 종래의 문헌자료를 기반한 지역사 연구는 지역의 역사성을 부차화하고 왜곡시켰으며 더 나아가 중앙이 인식하는 지역의 역사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지역의 역사를 복원·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남긴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지역민, 그러니까 부산의 보통사람들의 경험세계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거의 실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부산의 지역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민의 경험에 내재한 기억을 추출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통한 미시적 관찰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자료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구조사 연구를 통해 ‘실재하는 지역’의 모습을 파악하기란 여러모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여러 연구자 사이에 형성되면서 그 대안으로 구술자료 조사에 입각한 구술사 연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기반한 연구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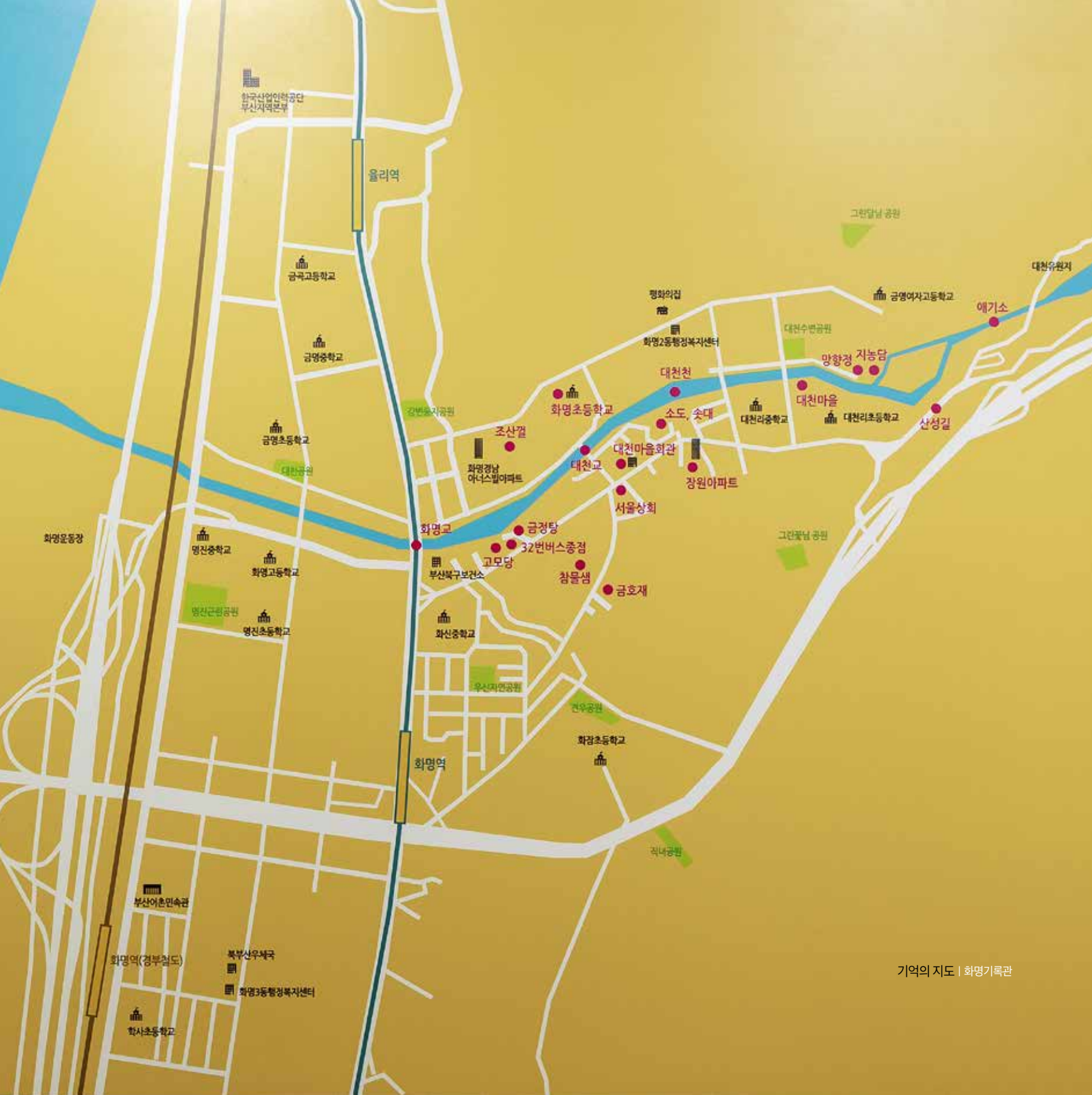
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역, 곧 부산이 내재한 지역성·정체성·특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술자료 조사와 구술사는 사회적 약자, 하층민 등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내었던 만큼 이들이 곧 역사 서술의 주체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가 가능해지자 아카데미즘과 대중적 역사 인식의 간격이 메워졌고 이로써 ‘역사 대중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술자료 조사와 구술사가 지닌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술자료와 구술사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사료적 가치 등을 염두에 두면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북구 대천마을 공동체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주민 생애사 등에 관한 구술자료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예비접촉과 예비면담을 통한 사전질문지 작성, 그에 기반한 구술자와의 심층면담 진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대천마을 공동체에 관한 유의미한 구술자료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물 중에서 다시 역사성·대중성·시의성 있는 내용을 가려 뽑아 읽기 쉽게 운문 및 편집 과정을 거친 것이 이번에 출간하게 되는 『넋가에 마을을 이룬 곳, 대천마을』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대천마을 역사, 마을의 주요 지명과 조직 그리고 마을의 근대화 모습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1차 자료를 수집 및 생산해 주신 정영현, 박경연 두 분의 선생님과 대천마을의 역사와 마을공동체의 기억과 경험을 소상하게 구술해 주신 여섯 분의 구술자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발간을 진행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기억의 지도 | 화명기록관

목차 Contents

04	발간사
08	자치와 협동의 마을공동체, 대천마을
26	해제
76	손열 장원아파트는 마을에 처음 생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라 애들이 타러가고 그랬죠
104	김옥자 저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고, 내가 뼈를 여기에 묻을 생각으로 대천마을에서 살려고 합니다
122	정홍길 대천마을로 해가 딱 안으로 들어가고 하천이 흐르면서 살기는 그래 좋지요. 모든 게 다 조건이 좋아요
142	이귀원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가장 큰 강점이 아이를 기르는 역할과 더불어서 부모를 기른다는 거예요
170	양정현 여기가 그냥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 동네’라는 의식, 정주의식(定住意識)을 심어주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죠
194	윤인자 어디까지나 기초의원들은 생활 정치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니까요

자치와 협동의 마을공동체, 대천마을

대천마을은 반세기 이상 경험한 우리의 ‘근대화’에 견줘 볼 때 사뭇 특별한 곳이다. ‘전통’과 ‘근대’,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 단절된 측면이 컸고 근대성의 특정 요소만이 과잉 대표된 채 근대의 세례를 받은 한국적 특수성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인식 속 근대화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산업화’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던 때가 있었다. 따라서 자치·협동·연대 등 근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요 개념들은 근대와 무관한 것으로, 더 나아가 대립적인 것으로 단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근대=산업화’ 즉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관계에서도 뒤틀린 인식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과거가 근대 이전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시대의 운영 원리는 공동체성을 담지한 협동과 연대가 될 터이지만, 현재란 근대 사회의 다른 표현일 것인바 자연스레 효율성, 경제성, 신속성 등이 사회 운영의大本(大本)일 것이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무릇 근대란 산업화의 동의어로만 받아들인 탓이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성장제일주의나 경제결정론의 담론으로 우리 시대를 규정하고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비유가 어울릴 만큼,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압축성장을 그야말로 단 시간에 일구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나 공동체의 내력을 기억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은 그에 견줘 턱없이 부족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굴곡진 역사적 경로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천마을은 과거와 현재가 분절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유지·발전해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동계, 품앗이와 두레, 당산, 임천제로 표징 될 수 있는 주민자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속공동체, 교육공동체 등의 공동체적 유제가 저 근대주의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해체·소멸하지 않고 생태주거공동체와 교육문화공동체로 재편되어 발전한 것이다. 대천마을이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이점이야말로 우리가 대천마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대천마을이 만들어가고 있는 자치와 협동의 마을공동체 운동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부차화되고 등한시된 집단 기억의 원형을 깨우치고 보듬는 동력이자 계기이며, 무릇 21세기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범 사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천마을의 변화



1980년대 대천마을 풍경 | 복구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라본 대천마을(2012년) | 복구



대천천을 중심으로 형성·발전된 대천마을 전경(2009년) | 복구



대천마을 전경(2013년). 자연마을이었던 대천마을은 도시화로 인해 아파트 및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 부산역사문화대전

대천마을, 생태주거공동체를 꿈꾸다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택단지 모습(2018년)①과 그 자리에 아파트②가 들어서는 모습(2021년).
대천마을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천 환경문화센터 준공식 모습①과 준공식 당시 건물② 전경(2010년) | 북구



찾아가는 곤충 체험 학습(2013년) | (사)대천천네트워크



대천천 생태 도보 탐방(2013년) | (사)대천천네트워크



대전천 문화환경 축제 모습(2003년) | 복구



대전천 생태 체험 및 물놀이 모습(2021년) | 복구



대천마을 장터(2021년) | 복구



화명2호교에서 바라 본 대천마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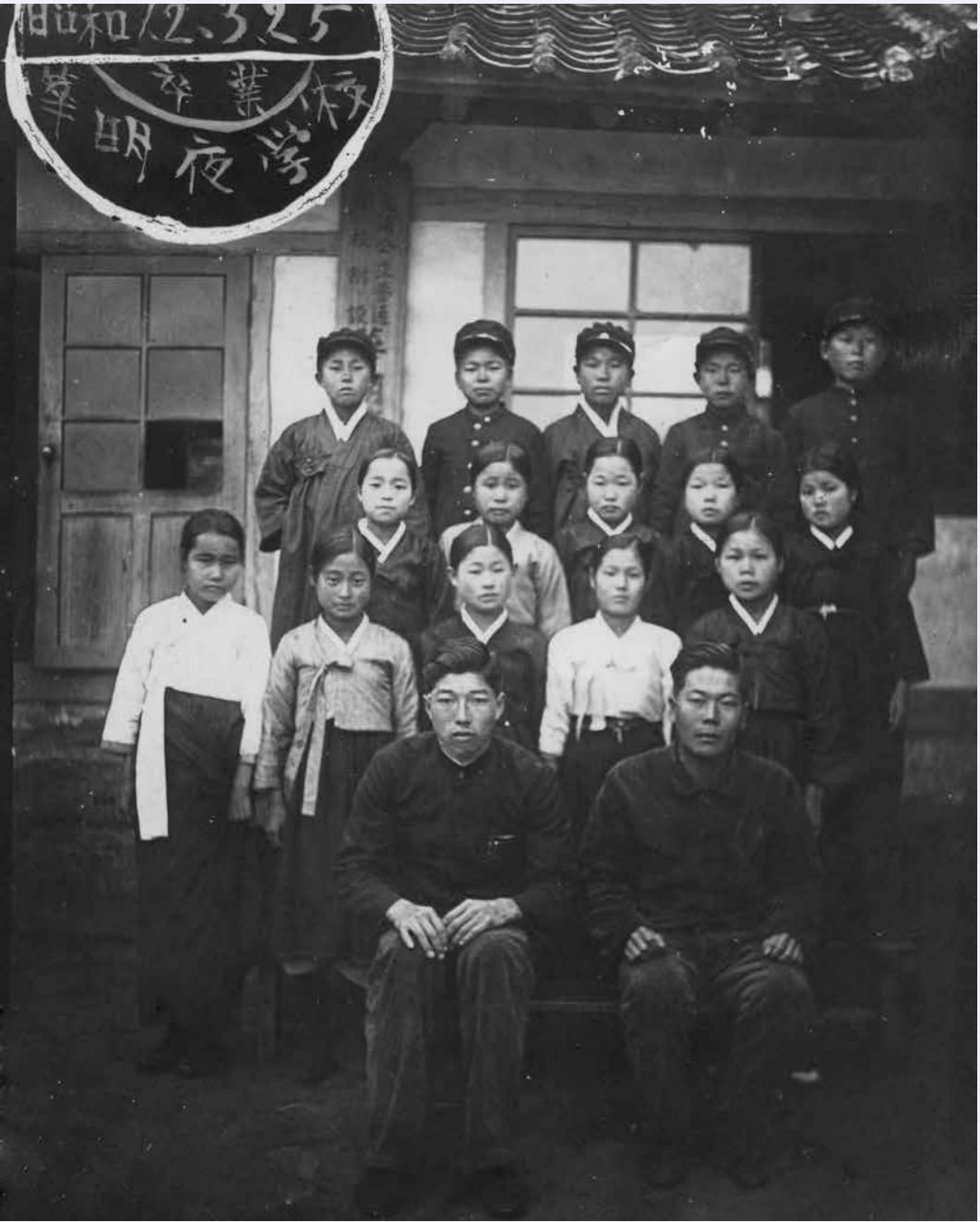


화명2호교에서 내려본 징검다리(2022년)



화명교에서 바라 본 대천천①과 대천교에서 본 마을 전경② (2022년)

대천마을, 교육공동체를 계승하다



화명야학교 졸업식 모습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2013.



화명간이학교 5회 졸업식(1941년)① 모습과 화명초등학교 불국사 여행(1959년)② 모습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2013.



2005년에 개관한 맨발동무도서관의 문학기행①과 칠방찰방 행사② 모습 | (사)대천천네트워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행복을 가꾸자는 목표로 설립된 참빛학교의 활동 모습 | (사)대천천네트워크

해제

대천마을의 근대화와 마을기록

정영현(부산대 강사)

01

들어가며

필자가 대천마을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이 지역 토박이인 윤희수의 『대천일기』 디지털화 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수십 년에 걸친 기록인 만큼 입력 작업은 여러 인원이 분담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필자가 담당한 분량은 빙산의 일각과도 같았고, 그것만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았다. 필자는 순전히 호기심에 마을을 방문하여 여기저기를 답사하였는데, 앞으로 내가 이 마을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그게 2015년 늦은 여름의 일이고, 현재의 마을 모습은 그때의 마을 모습과 또한 다르다.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이라는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마을이 바로 대천마을이고, 그러한 근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대천마을 옛 풍경 | 윤은호, 『華明大川마을의 情談』, 2007.

① 용동골에서 본 대천마을과 산성로(1962) ② 용동골에서 본 대천마을과 산성로(1962) ③ 용동골에 있던 용동교
④ 금곡로와 경부선철도(1962) ⑤ 대천마을에서 산성 가는 옛길(1970년대) ⑥ 북구보건소 앞 용동마을



1980년대 말 택지개발이 한창 중인 대천마을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대천마을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다. 서쪽으로 금정산을 두고 있으며 금정산에서 계곡을 따라 흐르는 대천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퇴적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의 명칭은 이 하천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대천천을 기준으로 북쪽은 양달, 남쪽은 음달마을로 불리며 지류인 용동천 유역에는 용동마을이 있는데, 이 세 마을을 합쳐서 대천마을이라고 한다.

마을은 병자호란 이후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에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 도시 외곽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던 화명동 일대는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 아파트 개발이 시작하여 현재는 화명2동 전체가 전형적인 아파트촌의 경관을 이루고 있다. 2022년 3월 음달에 있는 마을회관 주변과 용동마을 일대에 있는 주택지역에서만 옛 마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아파트촌으로 개발 혹은 재개발되었다. 2015년 첫 방문 당시만 해도 존재했던 양달마을은 현재 동원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고 말았고, 음달 지역 역시 가까운 미래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마을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것이다. 사람이 사라지면 마을에 대한 무엇이 남을까? 다행히도 대천마을에서는 옛 마을과 현재 마을의 기억이 휘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이 다른 어느 곳보다 활발하다. 바로 마을 기록이다. 2021년에는 화명기록관이 들어서기도 했다. 마을의 토박이와 마을에 애정을 가진 새내기(이주민)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대천마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또 마을을 기억하는 한,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도 대천마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02 조사의 진행

1) 조사 방법

이번 구술조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2021년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구술조사를 행함으로써 근현대사 관련 구술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연구 및 행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술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앞서 마을 관련 문헌에 대한 사전조사가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출간한 『부산북구향토지』와 윤은호의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 마을 토박이로 평생을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쓴 윤희수의 일기인 『대천일기』를 통해 마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일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공윤경, 차철욱, 양홍숙, 차윤정 등에 의해 많은 연구성과가 나왔는데, 이

들 역시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한편으로 대천마을의 공공도서관인 맨발동무도서관에서 다방면의 마을기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 성과물 역시 마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장에서 구술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주로 2021년 5~8월이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무더위로 인해 방문조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던 시기였으나 구술조사는 대면하여 녹취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방역에 유의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녹취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구술조사는 항상 연구원 2명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 대천마을을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구술팀은 사전에 각종 서식과 녹음기, 캠코더를 소지하여 마을을 방문하였고, 개인 스마트폰 역시 보조 녹취 기기로 활용하였다.

구술자는 가급적 50세 이상, 20년 이상 거주자를 중심으로 섭외하였다. 그리고 토박이 및 이주자, 성별, 지역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구술자의 생활에 밀착된 조사가 힘들었던 점, 70대 이상 노년층 여성에 대한 섭외가 불발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구술 대상자 섭외 과정을 보면, 우선 지자체를 통하여 마을 사정에 밝고 지역활동을 많이 한 손열을 우선적으로 섭외하였고, 마을자치회와 맨발동무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김옥자, 정홍길, 윤인자 등을 섭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에서 20년간 활동 중인 역사학자 이귀원을 자체적으로 섭외하고, 이귀원의 소개로 양정현을 섭외하였다.

구술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질문지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구술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질문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참고하는 선에서 구술을 진행하였다. 구술 대상자에게는 사업의 취지와 활용 형태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술자 외에도 마을 공동체의 주요 기관인 대천마을학교, 맨발동무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섭외와 자료 등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녹취는 음성 녹음 외에 영상 녹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다. 구술 장소는 주로 마을학교, 마을자치회사무실, 마을회관 혹은 부녀회¹ 등 공적인 공간에

서 이루어졌다. 구술자의 가택에서 녹취할 경우, 보다 친밀한 환경에서 구술을 진행할 수 있고 옛 사진 등을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가택을 방문하는 것은 지양하였기 때문이다.

예비질문지 및 구술 현장에서 이루어진 질문의 내용은 이미 기록이 남아 있는 마을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개인 생활사 속에서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채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술이 끝난 후 일지를 작성하고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연구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다음 구술녹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구술자 소개

이번 사업으로 섭외된 구술자는 총 6명이며, 상황에 따라 1명이 최대 3회까지 구술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구술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섭외 순으로 나열하였다.

① **손열** : 1951년생. 용동골에서 출생하였으며, 4대째 이 마을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는 대천마을 토박이의 대표자적인 입장으로 마을의 마당밭로 불리며 대천마을의 여러 단체의 장(長)을 역임하였다. 또한 옛날 일들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역사나 풍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다. 현재 화명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자치위원장, 대천천네트워크 이사장, 낙동강살리기 운동본부 위원장 등에 재임 중이다.

② **김옥자** : 1964년생. 1997년에 마을에 이주하였으며 이주 직후부터 아파트 부녀회와 통장 등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천천네트워크에서 사무간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도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③ **정홍길** : 1941년생. 마을의 오래된 가문인 창원 정씨 문중 출신이며, 문중회장을 맡고 있다. 젊은 시절 청년회장, 통장, 4H, 지역개발계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였고 마을의 새마을운동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도 대천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과거 약 5년간 산성슈퍼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¹ 마을학교에서는 김옥자, 이귀원, 양정현 구술자의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마을자치회사무실에서는 손열 구술자, 마을회관과 부녀회에서는 정홍길 구술자와 윤인자 구술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이 이뤄졌다.

④ **이귀원** : 1961년생. 통영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산으로 이주하였고, 부산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 강사 생활을 하던 시기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에 참여하여 덕천동에서 쿵쿵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어린이집이 대천마을로 이전하면서 조합원 다수가 함께 화명동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방과후학교인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대천마을학교 등을 설립하였고 대천천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⑤ **양정현** : 1963년생. 와석마을 출생의 토박이로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마을로 돌아와 2003년 윤희일 등과 함께 화명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인 화명포럼을 결성하였다. 2003년 학교건설운동과 사갱공사반대 투쟁을 거치면서 강호열 등과 함께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⑥ **윤인자** : 1957년생. 부산 당감동 출생으로 군인이었던 부친을 따라 마을로 이주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으며, 결혼 후 학부모 대표를 비롯하여 통장, 북구연합회 회장, 목화부녀회 총무 등 역임하였다. 2014년 부산 북구 라 선거구 기초의원예 당선되어 구의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현재 대천천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재임 중이다.

03

대천마을 개관

1) 행정구역

마을은 원삼국시기의 변한, 삼국시기의 가락국(駕洛國)의 정치적·문화적 영향권 하에 있는 지역이었다. 신라로 편입된 이후에는 현재의 양산인 삼량주(叡良州)의 일부분으로 편성되었고, 삼량주는 통일신라 경덕왕 이후에는 ‘양주(良州)’로 개칭되었다가, 고려시대에는 ‘양주(梁州)’로 바뀌게 된다. 조선시대에 양주는 양산군(梁山郡)이었다. 대천리 지역은 양산군 하동방(下東坊)이었다가 이후 양산군 좌이면(左耳面)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천마을은 좌이면 대천리로 나타나고 있다.

<대천마을의 행정구역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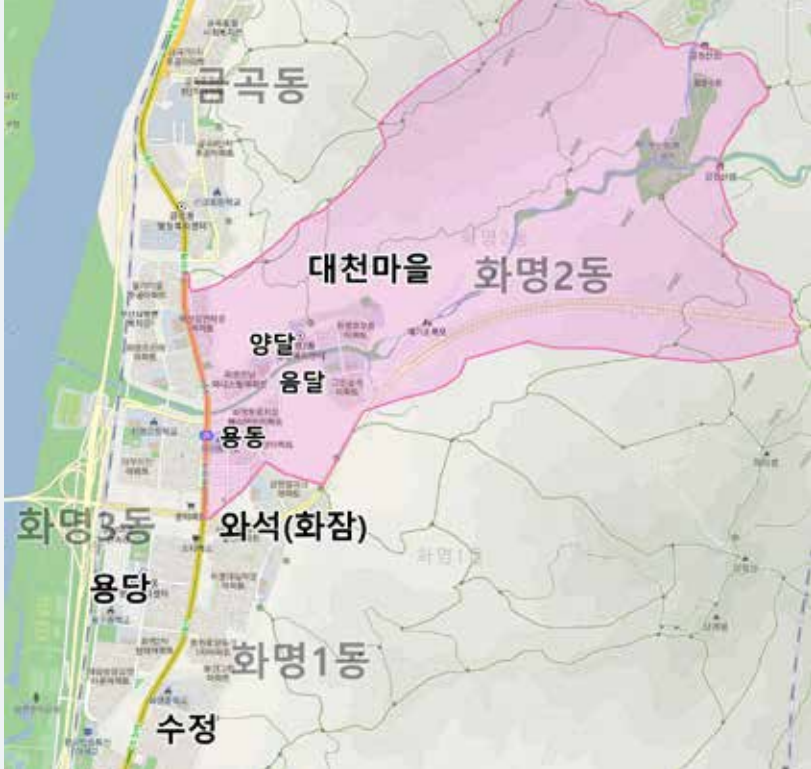
시기	도·광역시	시·군·구	읍·면·동	리	마을
신라	-	삼량주			
통일신라	양주(9주)				
고려	경상도	양주군			
조선	경상도	양산군	하동방	대천리	
			좌이면	대천리	
1906년	경상남도	동래군	좌이면		
1910년		부산부	구포면		
1914년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면	화명리	대천부락
1943년			구포읍		
1962년		부산시 부산진구	화명동		
1963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구포출장소			
1975년		부산진구 북부출장소			
1978년		북구			
1995년	부산광역시				대천리마을
2003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대천리마을

좌이면은 1906년 동래군에 속하였고 1914년 구포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43년 구포읍으로 승격되었다. 1962년 구포읍이 부산시 부산진구에 포함되었다. 1963년 구포출장소 화명동이 되었다가 1978년 북구가 분리되면서 북구 화명동이 되었다.

현재 대천마을은 행정구역상 대체로 화명2동과 그 영역이 일치한다. 북쪽으로는 금곡동, 남쪽으로는 화명1동, 대천천 상류 방면으로는 금정구 금성동(산성마을), 대천천 하류 방면으로는 화명3동이 있다. 금곡동과 화명3동 중 대천천 인근의 낙동강 퇴적층은 대천천을 경계로 하여 옛적 ‘웃들(모리원)’과 ‘아랫들(백포원)’ 불리던 너른 별판으로, 합쳐서 ‘앞들’이라고 한다. 현재는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나 과거에는 대천마을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다.



부산진구 시절의 화명동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대천, 와석, 용당, 수정마을의 위치



대천마을 주요 장소

※마을 지도는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 답사를 거쳐 제작되었다.
 윤희수, 『대천일기』 1·2,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7 수록 지도.
 화명2동 화명생활문화센터 화명기록관에 전시된 마을 지도.
 즐거운 학교 행복한 삶을 꿈꾸는 엄마들, 『금곡·화명 마을 이야기 - 우리 마을 좋은 지도』,
 부산학부모연대 화명금곡지회 제작.

2) 주요 지명

대천마을의 지명에 대해서는 『부산지명총람』 제3권(1997) 및 『부산북구향토지』(2014) 등이 자세하다. 다음은 이번 구술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지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명	해설
대천천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대천마을을 통과하여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
양달(양지)마을	대천마을 중 대천천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
음달(음지)마을	대천마을 중 대천천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
용동(용동골)마을	음달마을 남쪽, 화산 자락의 용동천 하류에 형성된 마을
장터결	용동마을 대천시장이 있는 지역
와석(화잠)마을	용동골 남쪽의 화산 자락에 있는 마을로 같은 생활권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천과는 별개의 마을임
아랫들(백포원)	대천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유역의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농지로 활용
웃들(모리원)	대천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유역의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농지로 활용
박훈장등	중지산의 끝 등으로 옛날 임천재 서당의 박훈장 묘소가 있는 곳
애기소	대천천에서 가장 깊은 소(沼)로 아기가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함
제까치소	대천천의 소 중의 하나로 텃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
지농담(지농덩이)	마을 위쪽에 있는 웅덩이로 상류에 중석이 있음
자라바위	대천마을 중간쯤 음지쪽 언덕 밑 대밭의 위쪽에 물속에 떠있는 거북처럼 생긴 바위
송당결	자라바위 둘레 지역으로 여름철 아동들이 자라바위에서 물 밑으로 송당질(자맥질) 하였다고 함
화산	상학산 북쪽 끝 봉우리를 이르는 말
용동천	화산에서 발원하여 고당걸을 지나 용동마을에서 대천천과 합류하는 대천천의 지류
고당걸	용동골 상류에 고당이 있었던 곳
조산걸	화명초등학교 서쪽에 있던 저습지로 미나리깡이 있었다고 함. 현재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위치
하천부지(개발)	백포원과 강 사이에 있는 퇴적지로 비옥하여 농지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공원과 운동장이 들어섰다. 낙동강 범람 피해를 받기도 함
시마	화명생태공원 근처에 있던 모래가 퇴적된 섬으로, 1980년대 골재 채취로 인해 현재는 사라졌다. 일본어로 섬이라는 뜻

3) 지리적 환경

화명동(華明洞)은 동쪽의 화산(華山) 아래에 있는 명당이라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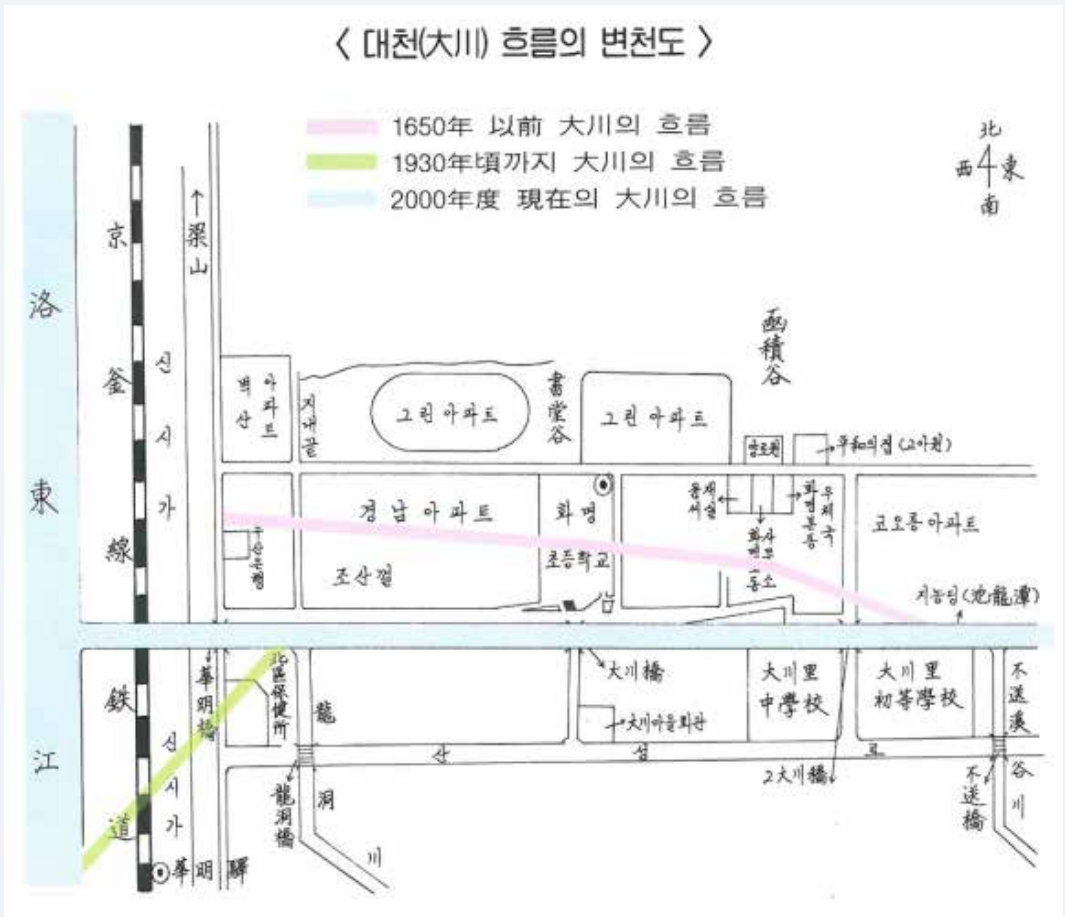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크게 대천, 와석(화잠), 용당, 수정 4개의 마을로 이루어진다. 대천마을은 대천리마을이라고도 하며, 그 명칭은 마을을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는 큰 냇물인 대천천(大川)에서 유래하였다.

대천마을은 양달, 음달, 용동의 세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양달은 대천천 북쪽으로 마을의 북쪽에 해당하고 음달은 대천천 남쪽으로 마을의 남동쪽에 해당하며 용동은 마을 남서쪽의 용동천 유역을 가리킨다. 인근의 와석, 용당 등의 마을과 밀접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각 마을은 원래 각각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촌이 들어서서 모두 한 덩이가 되어 있다.

대천마을은 동쪽으로 금정산 자락, 서쪽으로 낙동강을 두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서편을 향해 열려 있는 배산임수의 형상을 한 마을이다. 산지의 경우 금정산 산자락을 남북으로 낀 골짜기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북쪽은 고당봉에서 미륵봉을 따라 남서 방향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다. 동쪽은 원효봉과 의상봉이 펼쳐져 있다. 남쪽에는 상계봉 자락이 서쪽으로 뻗어 있다.

이 마을의 대표적인 하천은 마을 명칭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대천천이다. 대천천은 한편으로는 금정산 북문 방면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고, 한편으로는 남문 방면 공해마을 인근에서 발원하고 북으로 흐른다. 두 물줄기가 화명수목원 인근에서 합쳐져 서쪽 방면으로 흘러 낙동강에 다다른다. 대천천에는 불송곡천과 용동천 두 개의 지류가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대천천 물길을 따라 여러 개의 소(沼)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몇 차례의 큰 홍수로 토사붕괴가 일어나 거의 사라졌다. 특히 1969년 9월 14일의 폭우로 대천천이 크게 범람하여 마을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² 마을 사람들에게 9·14 폭우라고 불리며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³

애기소 폭포는 바위가 4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⁴ 현재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의 거주자들은 대천천의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을 뭉뚱그려서 애기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천천 흐름의 변천도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56쪽 수록.

애기소는 원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계곡이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외지인들이 이곳에서 여름철 피서를 즐기는 곳이 되었다.⁵

마을 위쪽 불송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지농담(지농덩이, 지동지)라고 하는 웅덩이가 있다.

² 공윤경, 「1950~1960년대 기상재해와 농촌마을의 대응-대천일기와 대천마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5권 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307쪽.

³ 윤희수의 『대천일기』나 손열, 정홍길, 윤인자 등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열은 당시 직접 부상당한 아이를 업고 구포 병원까지 갔던 경험이나 물레방앗간이 떠내려갔음을 회상하였고, 정홍길은 대천천의 철다리가 떠내려갔다고 하였다.

⁴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해피북미디어, 2013, 32쪽. 구술자 손열은 4층을 일본어로 '용까이[四階]'라고 부르기도 했다.

⁵ 공윤경, 「1960년대 농촌 여가문화의 특성과 의미 - 대천일기를 사례로」 『한국민족문화』 6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a, 3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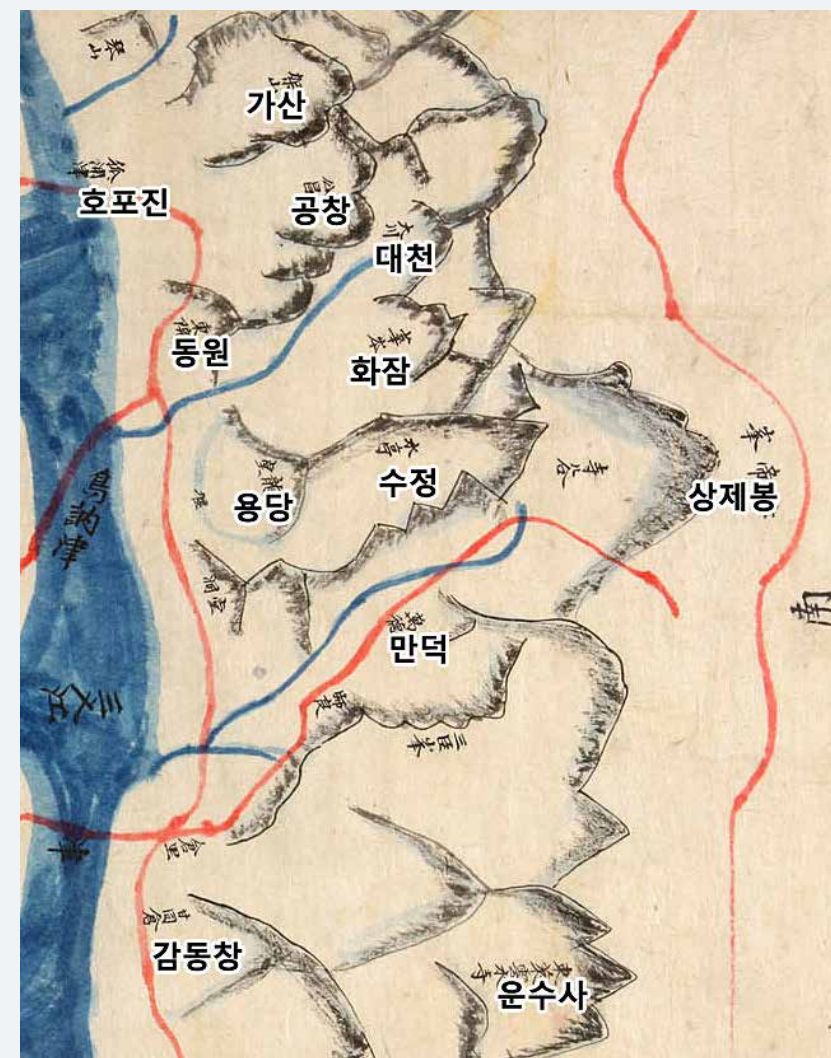
미나리밭이 있었던 조산곶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여기서부터 상류는 대천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류는 대천마을을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고 있다. 과거 마을을 통과하는 대천천의 흐름은 지금과는 달랐고, 마을 가운데 물길이 갈라져 섬을 이루고 섬에는 방앗간이 있었다고 한다. 9·14 폭우 이후 섬은 사라졌고, 이후 수해를 거듭할 때마다 조금씩 정비되어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대천천을 경계로 나뉜 마을은 대천교와 화명교 등 비롯한 여러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화명초등학교 서쪽 지역은 ‘조산곶’이라고 하여 옛날에는 미나리밭이 있었던 공간인데, 현재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한편으로 대천천이 낙동강으로 합쳐지는 너른 퇴적지 역시 대천천을 경계로 북쪽은 웃들(모리원), 남쪽은 아랫들(백포원)로 불리고 있다. 아랫들 너머 대천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은 이른바 ‘하천부지’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옛날에 주민들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개밭’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낙동강 물이 불면 상습적으로 침수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화명운동장(구민운동장)이 들어서 있다.



대천천을 경계로 자리한 웃들(모리원)①과 아랫들(백포원)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양산군읍지』(1899)에 수록된 지도 속의 대천마을과 인근 지역

4) 마을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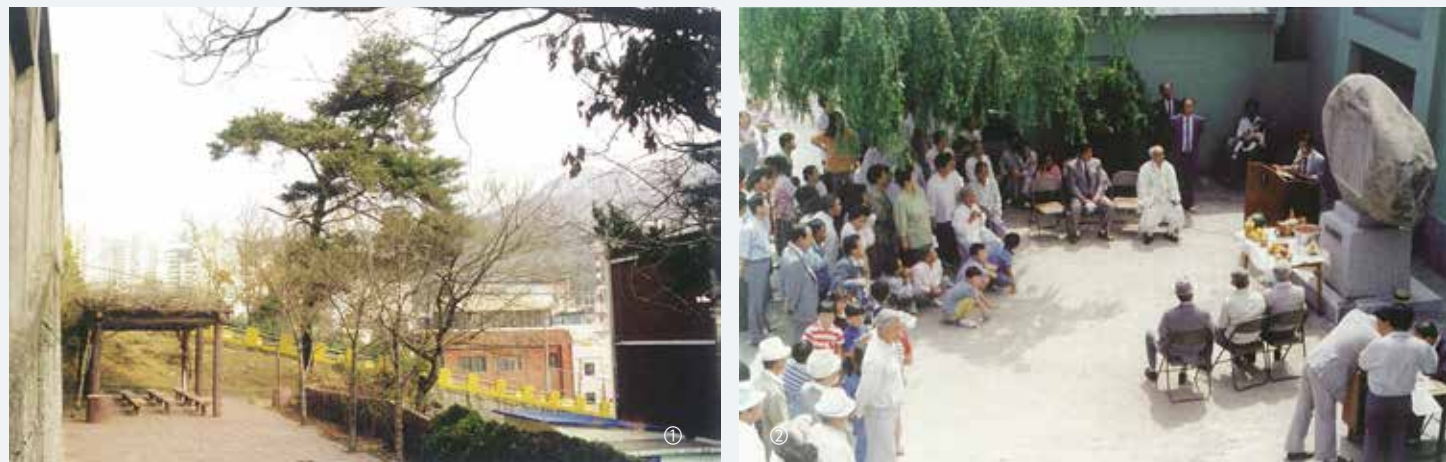
대천마을의 형성 연도는 미상이나 병자호란 직후인 1636~1637년 무렵 파평 윤씨(坡平尹氏) 집안의 진사 윤소(尹沼)가 이곳으로 귀양 와 현재 양달 화명초등학교 후원 자리에 임천정(臨川亭)을 짓고 강학하였다고 전해진다. 윤소의 처가가 와석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던 평택 임씨로 정착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소가 박훈장(朴訓長)을 초빙하였고, 박훈장은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곳에 임천재라는 마을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1729년 창원 정씨(昌原丁氏)의 정남수(丁南壽)가 자리를 잡았다. 이어 1780년 경주 최씨(慶州崔氏), 1800년대 전반 안동 권씨(安東權氏), 1800년대 후반 인동 장씨(仁同張氏) 문중이 정착하였다.

1906년 양산군 좌이면에서 동래군 좌이면으로 개편되었다. 1910년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대천마을과 와석마을을 합쳐 화명동으로, 용당마을과 수정마을을 합쳐 용수동으로 삼았다. 1914년 화명동과 용수동을 합쳐서 동래군 구포면 화명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현재 대천마을은 화명리 소속의 대천부락으로 불리었는데, 1920년대 청년회에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한 것이 인정되어 1930년대 경상남도 농촌갱생부락(農村更生部落)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1934년 대저 수문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구포 이북 지역에는 홍수가 잦았는데, 결국 주민들의 요구로 1940년 윗들과 아랫들 지역에 화명제방이 건립되었다. 화명제방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그 위치는 대체적으로 2000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경부선 철로 근처이다.

해방 후 1961년 초반 지역사회 시범부락으로 지정되었다. 1963년 부산직할시에 편입되었다. 1959년 사라호 태풍 때나 1969년 9월 14일 심한 폭우로 대천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1971~1975년 화명정수장이 조성되었으며,⁶ 이때 고모당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974년 한국전력변전소가 설치되었다. 1975년 부산직할시 북부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북부출장소가 북구로 승격되었다. 1985년 현재 화명3동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다. 1990년 마을회관 앞에 「대천마을연혁비」가 세워졌다. 1995년 부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마을 역시 북구 화명동 대천리마을로 개칭되었다. 1990년대에 화명3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었다. 2003년 7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으로 분동되었다.

⁶ 마을 연혁비에는 1971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식적으로 1975년에 지어진 것으로 나온다. 착공이 1971년, 준공이 1975년으로 보인다.



화명초등학교 후원 자리에 있던 임천정 터①와 「대천마을 연혁비」 건립 모습②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대천마을 연혁>

1636년	병자호란 때 진사 윤소(尹沼)가 귀양 와서 임천정(臨川亭)을 짓고 강학
1640년 무렵	파평 윤씨 문중 정착
1729년	창원 정씨 문중 정착
1780년	경주 최씨 문중 정착
1800년대 전반	안동 권씨 문중 정착
1800년대 후반	인동 장씨 문중 정착
1906년	양산군 좌이면에서 동래군 좌이면으로 개편
1910년	부산부에 편입
1914년	동래군 구포면 화명동으로 행정구역 개편
1914년	옛 마을회관 건립
1930년대	경상남도 농촌갱생부락으로 지정
1961년	지역사회 시범부락으로 지정
1963년	부산직할시에 편입
1965년	양수장 건립, 기와(벽돌)공장 설립
1967년	마을 비료창고 건립
1969년	9·14 폭우로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음
1971년	화명정수장 건립(착공)

1974년	현재의 마을회관 건립
1974년	한국전력 변전소 설치
1975년	부산직할시 직할 북부출장소에 편입됨
1975년	화명정수장 건립(준공)
1978년	북부출장소가 북구로 승격
1978년	흥아타이어 화명동으로 이전
1984년	만호제강(부국제강) 화명동으로 이전
1985년	백포원에 화명쓰레기매립장 설치
1980년대 후반	화명1지구 택지 개발 - 본격적인 도시 개발 시작
1995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대천리마을로 개칭
1991~1996년	화명3지구 택지 개발
1993~2002년	화명2지구 택지 개발
1994~1999년	화명4지구 택지 개발
1999년	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 개통
2003년	화명동이 3개의 동으로 분동(대천마을은 화명2동에 해당)
2003년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이주, 화명포럼 결성, 화명2동발전위원회 설립
2004년	대천천네트워크 결성, 사갱공사 반대 투쟁,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건설
2005년	맨발동무도서관 설립
2017년	『대천일기』 1·2 발간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지정
2021년	화명기록관 개관

5) 주요시설

다음은 마을의 주요 시설을 정리한 것으로, 구술에 언급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대부분 2022년 현재 마을에 현존하고 있으나 죽사재·망향정·찬물샘 등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① 마을회관 : 조선시대에는 마을 서당인 임천재가 있던 장소였으며, 1914년 옛 마을회관이 세워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사립화명학교가 폐지되었을 때 이곳에서 야학이 서기도 했다. 바로 아래에는 정미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1974년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새 마을회관을 짓게 되었다. 1990년에는 마을회관 앞에 「대천마을연혁비」가 세워졌다. 현재 2층은 마을회와 목화부녀회가 사용 중이며 1층은 창고와 식당 등이 들어서 있다.



대천마을회관의 변화상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① 옛 마을회관 모습 ② 옛 마을회관 철거 작업(1974년) ③ 새마을운동 당시 신축된 마을회관(1974년) ④ 2007년 당시 마을회관 모습

② 화명초등학교 : 1943년 화명국립학교로 건립되었다. 대천마을 한가운데 있으며, 정문 앞으로 대천천이 흐르고 대천교가 놓여 있다. 학교 건물 뒤에는 옛 교사가 남아 있으며 임천정이 있던 장소 역시 그 근처이다. 설립 초기부터 20여 년간 권상덕 교장이 재직하면서 학교와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였다. 그 공적을 기려 정문 앞에 권상덕 교장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대천천네트워크의 전신인 화명포럼은 화명초등학교 졸업생 중 화명동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③ 대천천환경문화센터 : 2004년 금정산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의 사갱공사로 인해 화명동 주민들이 토사와 소음, 교통안전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반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투쟁 결과 소방서 부지로 내정되었던 양달 지역의 땅에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건물이 들어섰다. 현재 이 건물 3층에는 대천천네트워크, 2층에는 대천마을학교와 맨발동무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며 1층은 새마을금고가 들어서 있다.



1943년에 세워진 화명초등학교(2022년)



대천천환경문화센터(2022년). 대천천네트워크, 대천마을학교와 맨발동무도서관이 입주해 있다.

④ 화명2동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는 화명2동의 행정 중심지이다. 양달에 위치하며, 대천천환경문화센터 옆에 우체국이 있고 그다음 건물이 행정복지센터이다.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있고, 자치회 옆 공간에 2021년 11월 5일에 화명기록관이 들어서서 그간의 대천마을 지역기록운동의 성과를 전시하고 있다.



화명기록관이 있는 화명2동행정복지센터(2022년)

⑤ 화명정수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 화산 자락의 용동골 지역, 산성터널 입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1971년 착공되어 1975년 준공되었고 물금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서부산 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9년 고도정수시설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화명정수장이 생기기 전 위치("정" 글씨가 있는 곳)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2005년 대천마을 경로당 개소식 모습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화명정수장 입구(2022년)



화명정수장 전경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⑥ 대천경로당 : 원래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활용되었으나, 새로이 경로당이 신축되었다. 새 경로당은 주로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마을회관 2층 마을회(노인회) 공간을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술조사 기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사실상 폐쇄 상태였다.



마을경로당 전경(2022년). 현재는 주로 대천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이 이용한다.



양달마을과 음달마을을 이어주던 나무다리①와 대천교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화명교의 옛 모습①과 2013년의 화명교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⑦ 대천교 : 대천천의 화명초등학교 앞 구간에 놓인 다리이다. 전 근대에는 징검다리를 통해 대천천을 건너 양달과 음달을 오갔다. 이후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의 나무다리가 놓여 있기도 하였는데, 큰 비가 오면 떠내려가기 일쑤였다. 이에 1948년 정월대보름 대동회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의논을 거쳐 콘크리트 다리를 세운 것이다. 이후 증축을 거쳐 현재는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어 있다.



화명교와 징검다리(2022년)

⑧ 화명교 : 대천천이 낙동강과 만나기 전, 마을 입구 지역에 놓인 다리다. 1933년 구포에서 금곡 양산 방향으로 길을 내면서 나무다리가 놓였으며, 여러 차례 확장되어 지금은 양산 방향으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⑨ 금호재(金湖齋)와 죽사재(竹史齋) : 금호재는 파평 윤씨 문중의 재실로 1936년 용당마을에 건립되었다. 용당마을의 택지개발(화명2지구)로 인해 1990년대 현 위치에 재건하였다. 죽사재는 창원 정씨 문중의 재실로 양달마을 대천초등학교 동쪽에 위치하였으나 아파트 재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현재는 문중 건물로 이전하였다.



2013년 당시 금호재①와 죽사재② 모습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⑩ 고모당(姑慕堂) : 마을 당산으로 대천리 고당(姑堂)이라고 한다. 금정산의 산신령인 고당 할매를 모시는 공간으로 신석(神石)이 보관되어 있다. 과거 용동골 쪽에 위치하였으나 1970년대에 정수장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용동골에 있던 당시에는 주변 산이 모두 헐 벗었을 때도 당산 주변만 나무가 무성했다고 한다. 당제는 마을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데, 마을회장과 총무가 참석하며 무속인을 불러서 제사를 올린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고기나 회를 피하고 문상을 가지 못하는 등의 금기가 있었다.



대천리 고당으로도 불리는 고모당은 1971년 정수장 설립으로 현 위치로 옮겨왔다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구술조사 당시 고모당 입구 모습(2021년)

⑪ 망향정 : 1971년 세워진 사각 정자로, 대천천 지농담 근처에 위치한다. 마을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고향의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으나, 대천천초등학교가 들어서고 주변이 아파트촌이 되어 현재는 그 위치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하기는 힘들다. 2013년 폭우로 인해 지붕이 유실되어 현재는 폐허 상태이다.



1972년 당시 망향정①과 2000년대 초반 개보수된 망향정②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⑫ 평화의집과 부산참빛학교 :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은 1960년대 평화원이라는 고아원으로 출발하였으며,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 부산참빛학교는 대안교육시설로 2011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 초등과정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초·중·고 12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⑬ 대천시장 : 용동마을 장터곁에 위치한 시장이다. 과거 5일장이 열렸다고 하며, 구포시장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팔았다. 현재도 상가가 있으나 인근 아파트마다 상가가 생기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 현대적 상업시설이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서 시장은 쇠락하였다.

⑭ 찬물샘(혹은 참물샘) : 용동골에서 물을 길어 쓰던 공용 우물이었다. 화신중학교 위치에 있었다.



평화의 집 전경(2022년)



2013년 당시 대전시장 입구 모습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부산참빛학교 수업 모습(2022년)



대전시장 내부 모습(2022년)

6) 마을의 조직

대천마을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다양한 자치 조직이 존재한다. 다음은 구술 과정에서 주로 언급된 마을의 조직이며, 이외에도 대천마을에는 마을회나 노인회, 아파트별 주민 단체, 독서 모임인 북적북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가 존재한다.

① 화명포럼 : 2003년 윤희일, 양정현 등 화명초등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주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대천천의 환경보전에 대한 강좌를 열거나 마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귀원과 같은 화명초 동문 외의 인물이 합류하기도 하였다.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된 이후 주요 구성원이 대천천네트워크에 합류하였고, 단체 성격이 비슷한 이유로 점차 활동이 줄어 사실상 흡수·해산되었다.

②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 쿵쿵어린이집이 2003년 덕천동에서 화명동으로 옮겨오면서 북구 전체에서 흩어져 살던 조합원들이 대천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다. 쿵쿵어린이집은 ‘공동육아’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부모·교사 모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이다. 방과후학교 징검다리놓는아이들 역시 이 단체에서 만든 것이다. 생활교육·공동체교육·생태교육·전통교육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모두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천천네트워크 : 화명2동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시민단체인 화명포럼이 지역 자연 하천인 대천천을 중심으로 대천천과 지역 환경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아파트 대표자, 각급학교, 기업 및 일반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천천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보호하고 동시에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금정산 KTX 사갱 터널 공사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처, 총무국, 홍보국, 정책 기획국, 생태 환경국, 사회 복지국, 경제 공동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대천마을학교 : 방과후 교육 및 평생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로, 마을 모든 이를 위한 배움터이다. 온 마을이 학교인 마을 교육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교육 문화 활동으로 초·중등 방과후 교육활동과 성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⑤ 맨발동무도서관 :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과 어린이도서관연구회(현 어린이책시민연대) 서부지회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2005년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되었다. ‘맨발동무’라는 이름은 시인 동천 권태웅(1918~1951)의 시 ‘맨발 동무’에서 따온 것으로, ‘누구나 맨발로 찾아와도 편한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⑥ 목화부녀회 : 마을 토박이들의 머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내 각종 행사의 음식 마련 및 행사 추진 등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와 마을 어른들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된다. 1년에 한두 번씩 마을 주민들과 친목 도모 활동을 하기도 한다.



대천마을학교(2022년)



맨발동무도서관 내부 모습(2022년)



목화부녀회 입구(2022년)

04 대천마을의 근대화 모습

1) 학교와 교육

학교는 미래 세대를 교육하여 근대화의 초석으로 키워내는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조선시대 임천재 서당에서 이어진 교육에 대한 열망은 근대를 맞으면서 더욱 타올라 1907년 사립화명학교가 설립되었다. 인근 8개 마을이 힘을 모아 건설하였으며 위치는 용동골, 2022년 현재 우신아파트가 있는 자리이다. 이 학교는 5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1918년 사립구명학교와 합병되어 구포공립보통학교가 되었다. 사립화명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임봉래, 윤경, 양봉근 등 구포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주역들과 교육자 권상덕과 같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학교 통합 이후 구포까지 통학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음달 임천재 자리에서 야학을 개설하였고, 1935년에는 간이학교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1943년 화명공립국민학교가 설립되니, 이것이 현재 화명초등학교의 전신이다. 화명동 출신이며 사립화명학교에서 수학하였던 교사 권상덕(勸相惠, 1904~1975)은 1946년 화명국민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1969년까지 22년이 넘는 기간을 학교 가꾸기에 앞장섰다. 몸소 교사를 증축하고 나무를 심고



화명야학회 9회 졸업생 사진(1935년). 첫번째 줄 맨 오른쪽에 지팡이를 든 이가 윤경이다.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해방 후 우리 말을 가르치는 모습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권상덕 교장(왼쪽에서 두 번째)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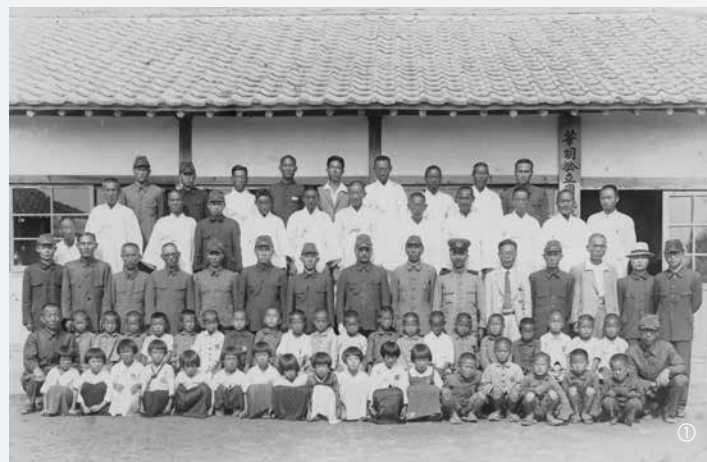


고(故) 권상덕 교장 선생 공덕비(2021년)

운동장을 보수하여 방문객들이 학교 사환으로 오인할 정도였다. 학교 이외에도 마을회관 건립이나 지역개발계·대천노인회 창립에 기여하는 등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화명초등학교를 졸업한 마을의 청년들은 마을의 근대화를 선도하는 일꾼이 되었다.

화명동은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한동안 낙후된 농촌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교사들도 발령을 꺼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화명초등학교는 신입교사들이 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는 곳이 되었다. 그 때문에 1960~1970년대 화명초등학교 교사들은 대개 젊고 의욕이 왕성한 편이었으며, 학생들과의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형이나 언니처럼 잘 따랐고, 졸업 후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학교에 부속된 사택에 거주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였다.

1960년대 무렵에는 화명동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중학교에 진학한 남학생들은 구포중학교에 다녔다. 구술자 손열은 중학교 등굣길에 마을 위 채석장에서 골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에 매달려 먼지를 뒤집어쓰고 구포까지 가곤 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나마도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은 중학교 졸업을 포기해야 했다. 고등학교는 더욱 부족하여 북구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서면이나 시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야 했다. 이 경우 버스를 타거나 구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 했다.



1943년 회명공립초등학교 설립 기념사진①과 1968년 21회 졸업식② 모습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더 낮았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힘들었던 시절, 남자형제에 밀려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구술자 윤인자는 어린 시절 가장 무서운 말이 “학교 안 보낸다”라는 말이었고, 고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실업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2) 교통시설

전근대 시기의 지도를 통해 화명동에는 남북으로 양산과 구포를 잇는 옛길이 있었고 낙동강을 따라 백포, 소랑포, 조대포, 용당포 등의 작은 포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낙동강변에 남북으로 철길과 신작로가 뚫려서 북으로는 양산, 남으로는 구포 방면으로 다니는 통로로 활용되었다.

명실상부한 농촌 마을이었던 대천마을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요소가 들어선 것은 20세기 초 경부선 철도가 마을 앞을 지나다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화명동에 철도역이 생긴 것은 1999년의 일이고 이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포까지 이동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마을 사람의 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산에서 구포 방면으로 오가는 도로가 포장되기 이전, 대천마을 사람들은 구포장(龜浦場)까지 가기 위해 비



1980년대 비포장 금곡로에서 사진 촬영한 대천마을 주민①과 32번 버스 종점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흙먼지가 날리지 않는 철로를 길처럼 이용하곤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차에 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철로 위를 걸어 다녔다. 철도가 마을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교통뿐만이 아니었다. 상·하행선 기차가 일정한 시간에 마을 앞을 지나다니면서 근대적인 시간을 마을에 가져왔다. 농촌마을이었던 대천마을의 어린이들은 집안의 농사일을 거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를 먹이는 일이었다. 대천의 목동들은 대천천 계곡 근처의 풀밭이나 기차길 넘어 하천변의 풀밭에서 소를 먹였다. 기차가 지나다니기 전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파악해야 했던 목동들은 이제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소를 데리고 나올 시간인지, 소를 풀어줄 시간인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인지를 알게 되었다. 기차가 시계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흙길에다 나무다리가 놓여 있던 마을 앞길에 1988년 구포~양산 간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서 마을의 교통 사정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제2만덕터널 개통과 함께 시내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다. 도로 개통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화명·금곡 지역 개발도 더욱 가속화되었다.⁷

⁷ 공윤경,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간구조 변화와 특성 - 북구 화명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101쪽.

자가용이 보급되고 도시철도가 뚫리기 전까지 마을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였다. 학생들은 회수권을 끊어 시내의 학교로 통학하고, 여성들은 범일동에 있는 자유시장·평화시장 등에 채소를 팔아 가족의 씹쓸이를 보태었다. 화명동에서 사상에 이르는 32번 시내버스는 마을 입구에 종점이 있어 마을을 드나드는 출입구 노릇을 하였다.⁸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면서 승객이 줄어들다가 결국 2007년에 폐선되고 버스 종점도 사라지고 말았다.

3) 새마을운동과 마을회관 건립

대천마을은 1960년대부터 이미 ‘새마을’이라는 이름하에 마을 근대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⁹ 1961년에는 초대 동장 황수원을 중심으로 청년층이 결집하여 지역개발계(地域開發契)를 조직하였다. 1965년 지역개발계는 기와 공장을 설립하여 마을의 주거 개선에 큰 몫을 하였다. 기와 공장은 기술자 권상운이 설계를 하고 윤희수가 터를 내고 마을 주요 문중에서 땀값을 내고 마을 청년들이 부역하였다.¹⁰ 또 1965년에는 수해복구차원에서 양수기 건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양수장을 건립하였고, 1967년에는 비료창고를 짓기도 했다. 또 정홍길은 마을 청년이 함께 결혼비용을 준비하는 결혼계를 결성하기도 했다.

지역개발계는 또한 새마을 사업에 솔선하여 마을의 근대화에 힘썼다. 4H 구락부 역시 새마을 청년회로 정비되어 농촌지도소의 지도하에 농촌 계몽운동에 힘썼다. 비슷한 시기 마을 부인회는 생활개선구락부(生活改善俱樂部)로 명칭을 바꾸고 부업 개량과 식생활 개선에 힘썼다. 생활개선구락부는 이후 잠시 명맥이 끊겼다가 윤희수의 도움을 받아 ‘목화부녀회’라는 명칭으로 다시 조직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조선시대에 마을 서당인 임천재가 있던 장소에 세워졌다. 1914년 옛 마을회관이 세워졌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사립화명학교가 폐지되었을 때 이곳에서 야학이 서기도 했다. 바로 아래에는 정미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의 마을회관은 1974년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이른바 ‘하사금’)을 받아 건립한 것이다. 손열과 정홍길의 구술에 따르면,

⁸ 맨발동무도서관, 앞의 책, 124~125쪽.

⁹ 차철욱, 「압축근대시기 농촌마을의 일상과 새마을운동」 『역사와 세계』 50, 효원사학회, 2016 ; 공윤경, 「농부의 일기를 통해 본 1950~1960년대 주거문화와 마을 특성 - 부산 『대천일기』를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제29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54쪽.

¹⁰ 맨발동무도서관, 위의 책, 59쪽.



낙동강과 대천천이 접하는 곳에 설치되었던 양수장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설치된 메탄가스 탱크 | 윤희수, 『대천일기』 1, 2017.



대천경로당으로도 이용된 옛 마을회관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1970년대 마을회관①과 1980년대 태권도 학원이 있었던 마을회관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이때 건립된 마을회관 건물은 인근의 토지 수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급히 지어져 재조정 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회관은 마을의 주요 의제를 의논하고 4H·청년회·경로당·생활개선구락부(부인회) 등 행사를 여는 공간 역할을 하였다. 또한 1층은 세를 주었는데, 1970년대에는 유아원, 1980년대에는 태권도 학원이 들어서기도 했다. 1990년에는 마을회관 앞에 「대천마을연혁비」가 세워졌다. 현재 2층은 마을회와 목화부녀회가 사용 중이며 1층은 창고와 식당 등이 들어서 있다.

한편으로 마을회관에는 확성기를 설치하여 마을의 여러 사안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전화기가 보급되기 이전, 마을회관에는 마을의 공용전화기가 설치되어 마을 주민들이 급히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회관 인근에서 마을 이발관을 운영 중이던 이발사 장성근에게 마을 전화 관리를 맡도록 하여 외부에서 마을로 오는 전화를 받았다.

4) 주거문화의 변화

손열 등의 구술 내용 중에는 새마을운동 전후로 이루어진 취락구조개선사업도 언급되고 있다. 이는 윤희수의 『대천일기』를 통해 대천마을의 주거문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성과¹¹⁾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50년대까지 여러 채의 초가집으로 이루어져 있던 윤희수의 가옥이 점차 근대적인 주거로 변모하고, 전통적인 가족 내의 위계성을 보여주는 ‘사랑방’이라는 명칭도 조금씩 사라져 감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우차(牛車)를 활용하고, 부엌과 우물(샘), 변소 등도 점차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기와 공장으로 인해 마을의 집들이 초가지붕에서 기와지붕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대천마을의 지역개발계는 시범농촌 노력상을 입상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교량이나 제방을 짓고, 생활개선사업을 할 때 부역에 동원되었다. 또한 1971년 화명정수장이 들어설 무렵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손열의 구술에 따르면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마을의 초가집들을 슬레이트 혹은 기와지붕으로 바꾸고 2층 슬라브 주택을 짓도록 하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 보조

¹¹⁾ 공윤경, 「농부의 일기를 통해 본 1950~1960년대 주거문화와 마을 특성 - 부산 『대천일기』를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제29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초가집①이 기왓집②으로 변모한 모습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금은 집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고, 그나마도 장기분할상환을 해주는 대출금의 형태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껏 수리하거나 신축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으로 이때 건설한 집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벽돌을 쌓아 올려 지은 집이 많아서 도로 인근의 집들은 버스가 지나가면 집이 크게 흔들리는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기와 공장은 윤희수가 운영했는데, 선배가 공장의 기와를 격파하다가 혼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전기가 귀하던 시절 개량기를 조작하거나 옆집 전기를 훔쳐 쓰는 도전(盜電)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으로 '진래'라고 하는 뱀이 집 밖으로 나오거나 집에 있는 대나무 꽃이 피면 집안이 망한다는 전래담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5)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의 설치

대천마을은 원래 계곡물을 그대로 받아 마실 정도로 대천천의 수질이 좋았으나 주민이 증가하고 여름철 행락객이 늘어나면서 상수원 확보가 절실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힘을 모아 1973년 식수원 저수지를 만들었다. 수도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이 물은 마을의 각종 용수로 활용되었다. 1975년 화명 제1정수장이 준공되어 마을에 식수가 공급되었다.



옛 홍아타이어①와 만호제강(부국제강)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1960년대 무렵 금정산 자락에는 건설용 석재를 채취하는 채석장이 여럿 들어섰다. 구술자 손열은 이곳에서 채취된 석재는 시내의 영주동과 좌천동의 산복도로의 축대를 짓는 데 활용되었다고 하였고, 정홍길은 석재가 김해 대동 운하¹² 건설에 사용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채석장에서 일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이 많았음을 이야기했다.

1974년 북부산변전소, 1975년 화명정수장, 1978년 홍아타이어와 1984년 만호제강(부국제강) 공장이 들어섰다. 마을 청년들은 그 이전부터 마을 밖에서 일자리를 찾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마을에 공공시설이나 공장 등 근대적 직장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마을 청년들은 공장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공장 직공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한편 마을에 큰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풍경은 점차 농촌마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홍아타이어와 만호제강은 현재는 이전하고 그 터는 아파트촌이 되었다. 변전소는 금정산을 가로지르는 송전탑과 함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채소밭으로 이용되던 낙동강변의 하천부지와 아랫들(백포원)에는 1985년 무렵 쓰레기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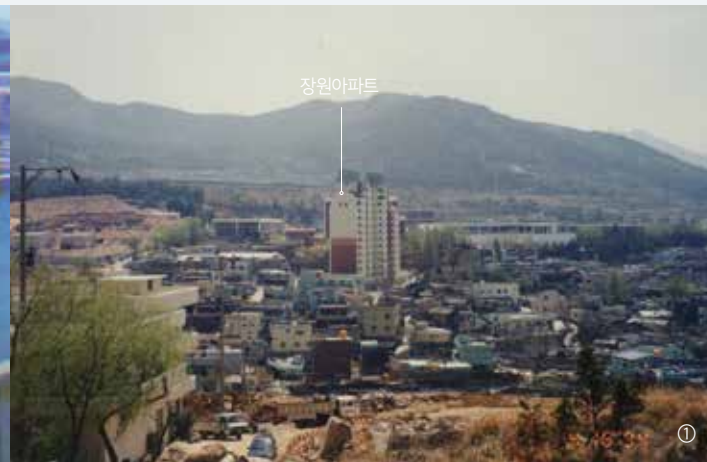
¹² 1967년 3월 31일 준공되었다.



금정산을 가로지르는 송전탑과 함께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는 북부산변전소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화명정수장 전경(1970년대) | 부산역사문화대전



대천마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아파트인 장원아파트①와 2003년 무렵 대천마을의 전경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장이 설치되었다. 사상공단에서 신발을 만들고 남은 찌지 않는 폐기물들이 이곳에 그대로 묻히게 되었다. 쓰레기 매립장 역시 1990년대 후반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고 2003년 화명3동으로 분리되었다. 1990년대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낙동강에 퇴적된 모래는 모래섬(이른바 ‘시마’)을 이루고 있었지만 개발 광풍이던 1980년대에 낙동강변에서 골재로 모래를 대량으로 채취해가면서 섬은 사라지고 말았다.

6) 아파트 개발

1980년대 말 화명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대천마을에도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화명1지구에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이 있었는데 아파트지역에는 5층, 11개 동의 우신아파트가, 단독주택지역에는 계획된 부지 내에 단독주택들이 조성되었다. 고층 건물이 없던 대천마을에는 1992년 음달 지역에 10층이 넘는 장원아파트가 들어섰다. 구술자 손열에 의하면 장원아파트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기도 해서 마을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를 신기해하며 타고 놀기도 했다고 한다. 장원아파트에 이어 마을 이곳저곳에 아파트와 상

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마을 주변의 논밭과 공터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개발 제한이 풀리고 앞뜰과 산답논이 있던 지역까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되었다. 손열은 농촌 시절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빌려 채소 농사를 짓던 마을의 부유한 사람들은 하천부지가 화명운동장과 생태공원에 포함되면서 별 이익을 보지 못한 반면, 산답논을 일구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큰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빈부 간의 이동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건설 붐을 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도 생겨났다고 한다.

현재 대천마을의 모습은 음달과 용동마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남아있는 단독주택 지역 역시 개발을 앞두고 있어 머지않아 전통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전망이다. 몇몇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역시 재개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 대부분은 이주자이며, 마을의 풍속이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토박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마을 공동체의 모색

대천마을에는 여러 문중의 씨족공동체나 임천재, 서당 등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강한 유대관계가 존재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사립화명학교나 야학 등을 통해 그 명맥이 이어져왔다. 해방 후에는 4H나 지역개발계, 생활개선구락부(목화부인회로 계승)와 같은 자발적인 근대 계몽조직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농협은 농촌마을 시절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새마을지회 등의 관변 조직도 마을에 형성되었다.

『대천일기』에서 윤희수는 대천지역사회개발계, 상록계, 금정계, 위친계, 구경계, 녹축친우회, 음달(마을) 술계, 대천문중 친목계, 사종계, 인아계(姻婭契) 등 다양한 계조직을 만들어 계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였다.¹³ 구술자 정홍길은 젊은 시절 마을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결혼계를 조직하여 결혼 자금을 모으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목화부인회는 윤희수의 도움 하에 한동안 명맥이 끊어진 부녀회를 다시 조직한 것으로, 오직 마을 토박이의 부인들만으로 조직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자연마을이 거의 사라지고 토박이 주민도 거의 남지 않게 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역시 해체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대천마을에는 21세기가 된 시점에도 전통적인 공동체를 계승 혹은 대체하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 운동이 진행 중이다. 2003년 마을의 구심점인 화명초등학교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화명포럼이 조직되어 마을의 여론을 모으고 환경에 대한 강좌를 열거나 마을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3년 마을에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서게 되자 아파트 건립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공사로 인한 마을 환경의 악화와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던 문제 등이 그 명분이었으나, 인근 주민들만의 님비 현상으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마을의 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건립 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화명2동발전협의회는 마을 전체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던 부지에는 금명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북구 이곳저곳에 거주하던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03년 덕천동에 있던



화명동 수방단원 모임 기념사진 | 윤희수, 『대천일기』1, 2017.
대천마을 사람들은 여러 계 조직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를 결속·유지시켜 왔다.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던 부지에 세워진
금명여자고등학교(2022년)

쿵쿵어린이집을 화명동으로 옮기면서 대거 대천마을로 이주했다. 이어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방과후학교인 징검다리놓는아이들을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육아협동조합을 모태로 삼아 2008년 대천마을학교가 개설되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구호 하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2005년 마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사립 공공도서관인 맨발동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맨발동무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외에도 마을기록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2021년 화명기록관 개관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2004년 화명포럼과 화명2동발전위원회, 그 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조직과 관변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다. 같은 해 금정산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사갱공사가 실시되면서 마을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힘을 모아 사갱공사 반대 투쟁을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고속철도 사갱공사에 대한 보상으로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건물이 지어지자 대천천네트워크는 이 건물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2010년 경 맨발동무도서관과 대천마을학교 등도 이곳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며,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¹³ 공윤경, 앞의 논문, 2018a, 306쪽.



쿵쿵어린이집(2022년)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과 21세기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 조직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하다. 도시 개발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마을의 모습이 변모하고, 아파트에 사는 이주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점하면서 그 이해관계도 변해가기 마련이다. 공동체 조직의 변화는 그러한 요구에 발맞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 공동체의 해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동체가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고 새로이 조직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파트 단위의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해체된 채로 껍데기만 남아 있기 십상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천천네트워크의 경우 대천마을과 대천천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토박이와 새로 이주한 활동가들을 아우르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대천천네트워크는 환경조직이자 마을의



장검다리놓는아이들 모습(2022년)

자치조직으로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과 새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 역할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쿵쿵어린이집과 방과후학교인 장검다리놓는아이들, 마을학교 등은 미래 세대의 공동체 구성원을 키워내고 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마을 공동체가 키워낸 어린 세대들이 성장하여 마을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재개발로 마을에 이주민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새로 유입된 인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약하고 마을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된다. 한편 마을 토박이들은 점차 노령화되고 인원이 줄어들면서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부분은 먼 미래까지 마을 공동체를 이어나가기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대천마을의 근대 역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록물은 「장우석 기념비」이다.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 사업가이자 교육자로 명성이 높은 장우석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장우석은 화명동 출신으로 물상객주를 경영하면서 넓은 농토를 가진 자본가였다. 한편으로 친구 윤홍석의 아들인 윤상은 등과 뜻을 함께하여 1906년 사립구명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이 되었다. 또한 구포저축주식회사, 훗날 구포은행의 설립에도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다. 대천마을에서 낙동강 쪽에 있는 들판인 아랫들(백포원)은 비만 오면 냇물이 넘쳐 독이 무너졌는데, 장우석은 독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마을의 지주들과 소작농은 이를 고맙게 여겨 1930년 비를 세워 기념하였던 것이다.¹⁴

대천마을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기록물은 마을회관 앞에 있는 「대천마을연혁비」이다. 이 비석은 1990년에 세워졌으며, 이 마을 출신의 문인 최해갑 선생이 쓴 글이다. 마을의 유래와 마을회관이 세워진 임천재 터의 유래, 도시화로 인해 옛 마을의 정취가 훼손되어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다.

대천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대천일기』가 있다. 『대천일기』는 마을 토박이인 윤희수가 평생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써온 일기이다. 윤희수는 일제강점기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근래까지 일기 쓰기를 이어 오고 있다. 1954년 7월부터의 일기가 있는데 이 중 1963년 5월 1일부터 1966년 3월 5일까지, 1972년부터 1980년 6월 30일까지의 일기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일기에는 그날 있었던 일과 소감이 간략하지만 꾸준히 기록되어 있는데 농사뿐만 아니라 문중,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도 수록되어 있다. 전형적인 농촌이던 대천마을이 1950년대부터 반세기에 걸쳐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었고, 『대천일기』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¹⁵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이 일기를 발굴하여 책으로 편찬하는 한편으



1930년에 건립된 고(故) 장우석 기념비(2021년)

대천마을의 대표적 기록물인 『대천일기』 | 윤희수, 『대천일기』 1, 2017.

로 압축적 근대화를 겪는 농촌을 보여주는 한 표본으로서 많은 연구성과를 배출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2005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과 어린이도서관연구회(현 어린이책시민연대) 서부지회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원래 용동마을 지역에 위치하였다가 2010년 현재의 위치인 대천천환경문화센터 2층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보따리로 책을 옮겼다고 한다. 맨발동무도서관은 2009년부터 역할을 확장하여 대천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을 기록하고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출판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담형식을 통한 대천마을 할머니의 생활사를 다룬 『사람 사는 기 별기 있나』(2010)를 비롯하여, 영도 남항시장 상인들의 구술집인 『나는 아무것도 몰라 장사 밖에는』(2012), 대천마을의 옛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2013), 마을 사람들의 그림에세이집인 『오늘은 웬지』(2014~2015), 아파트 개발로 사라질 양달 마을의 풍경을 담은 드로잉집 『나의 대천마을, 안녕』(2018), 마을 사람들의 그림일기 『그때 좋았지』(2019) 등 마을 기록과 출판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중 최돈자의 그림일기를 만화 형식으로 편집하여 『애뜻한 돈자』(2019)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2021년 11월 5일에 화명기록관이 개관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화명기록관은 민·관 협동으로 만들어진 의미 깊은 공간이다. 즉, 사립 공공도서관인 맨발동무도서관에

¹⁴ 부산역사문화대전 '장우석 기념비' 항목.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2175

¹⁵ 윤희수, 『대천일기』 1·2,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7.



화명기록관 내부 모습(2022년). 화명기록관은 마을공동체의 생애사를 아카이빙하고 전시하는 공간이다.

서 13년간 마을기록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구청에서 지역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화명생활문화센터(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3층)를 구성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화명기록관은 주민 주도로 마을이 변해가는 흔적을 아카이빙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개관 당시 「마을, 기억의 집」 전시를 개최하였고, 이후 마을 어린이들이 수집한 소리들과 마을 내에 이름이 있는 것들에 대한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 기억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마을 주민 주도의 기록관으로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재정보조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해갑, 「대천마을연혁비」, 1990.

맨발동무도서관, 『사람 사는 기 별기 있나』, 2010.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해피북미디어, 2013.

맨발동무도서관, 『나의 대천마을, 안녕』, 호랑이출판사, 2018.

부산광역시 북구·낙동문화원, 『釜山北區鄉土誌』, 2014.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7.

윤희수, 『대천일기』 1·2,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7.

공윤경,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간구조 변화와 특성 - 부산 북구 화명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공윤경, 「도시화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구성원의 연대 - 대천마을과 대천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공윤경, 「농부의 일기를 통해 본 1950~1960년대 주거문화와 마을 특성 - 부산 『대천일기』를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제29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공윤경, 「1960년대 농촌 여가문화의 특성과 의미 - 대천일기를 사례로 -」 『한국민족문화』 66, 2018a.

공윤경, 「농민의 일기에 나타난 기후환경 인식과 기후속신의 의미 - 대천일기(1954~1971)를 사례로 -」 『문화역사지리』 제30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8b.

공윤경, 「1950~1960년대 기상재해와 농촌마을의 대응 - 대천일기와 대천마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 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공윤경·양홍숙, 「1980~1990년대 도시공간과 개인 일상의 재구성」 『문화역사지리』 3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0.

양홍숙·공윤경, 「일기를 통해 본 농촌 여성의 일상과 역할」 『한국민족문화』 61, 2016.

양홍숙·공윤경, 「1980~1990년대 농부의 일기로 본 여행 경험과 양상 : 『대천일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이귀원,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대천마을학교」 『로컬리티 인문학』 17, 2017.

차윤정, 「일기연구방법론으로서의 로컬리티」 『지역과역사』 40, 부경역사연구소, 2017.

차철욱, 「압축근대시기 농촌마을의 일상과 새마을운동」 『역사와세계』 50, 효원사학회, 2016.

허소희·이용재,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 - 맨발동무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83,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16, 「주영택이 발로 찾은 부산의 전설 보따리 <42> 용동골마을의 천국부와 장터걸」 『국제신문』 2012년 8월 12일자 25면 기사.

※ 해제 작성에는 대천마을 거주 역사학자 이귀원 선생님과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공윤경 선생님, 맨발동무도서관의 김부련·백복주 선생님의 큰 도움이 있었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장원아파트는
마을에 처음 생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라
애들이 타러가고 그랬죠

”

01 손열



손열

- 1951년생
- 밀양 손씨, 마을에 4대째 거주
- 대천초등학교 육성회장, 지역보장협의체, 대천천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역임
- 현 마을 주민자치위원장, 대천천네트워크 이사장
- 현 화명부동산 대표



손열은 1951년 용동골에서 출생하였으며, 밀양 손씨 집안으로 4대째 이 마을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는 대천마을 토박이의 대표자적인 입장으로 마을의 마당발로 불리며 대천마을의 여러 단체의 장(長)을 역임하였다. 또한 옛날 일들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역사나 풍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애항심이 뛰어나 대천마을과 출신의 인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는 대천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과거의 대천초등학교와 대천천, 낙동강, 금정산 등 마을 여러 곳에 얽힌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구포중학교에 통학하였는데, 어머니가 누룩 장사를 하는 등 부업을 하며 뒷바라지하였다. 그는 외동아들로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었다. 고등학교 시절은 시내까지 버스와 기차로 통학을 하였다.

손열은 성장하여 버스회사 주임으로 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우연히 법원경매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자동차 중개업을 거쳐 부동산업을 시작하였고, 그 덕분에 대천마을의 개발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그를 통해 어린 시절 대천천에서 놀았던 이야기, 대천천과 산과 들의 다양한 먹거리, 소 먹이러 다닌 이야기, 금정산에 땀감을 줍거나 구포장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또한 마을의 옛길과 철도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대천천은 여름이면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는데, 1969년 9월 14일에 일어난 이른바 9·14 폭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한편으로 큰 비가 내리면 낙동강 물이 불어 과일이나 가축, 시신이 떠내려 오기도 하였다.

학창 시절에는 구포에서 영화를 보다가 버스 막차를 놓치기도 하였고, 마을에는 마을 빈 눈에 가설극장이 들어와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또 어린 시절의 이성교제과 결

혼, 장례 등의 풍습에 대해서도 회상하였다. 주민들의 기상천외한 민간요법을 추억하기도 하였다.

마을에는 당제를 모시기 위한 당집인 고모당이 있었다. 당제는 금정산 고당할매를 모시는데, 과거 금정산이 험박했던 시절에도 그 일대만 숲이 무성했다고 한다. 현재 당집은 개발로 인해 그 위치를 이전하였으나, 당제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치러지고 있으며, 무당을 불러 진행되지만 마을 회장이나 총무 등 당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무렵 대통령의 하사금으로 현재의 마을회관이 들어섰고, 주택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벽돌로 된 집이 건설되었다. 금정산 자락에는 채석장이 몇몇 들어서 마을에 골재를 나르는 트럭이 오가기도 하였다.

화명동 지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신호탄으로 하여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여러 인물들이 여기에 연루되었으며 손열 역시 그에 대한 추억이 있다. 장원아파트는 마을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첫 고층아파트였다. 개발 이후 마을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부동산 시세가 크게 뛰어오르게 되었다. 농촌마을이었던 대천마을의 풍경도 아파트촌으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일군 하천부지는 국유지로 반납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군 산답논은 아파트로 개발되어 빈부 간의 이동이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해서도 회상하였다.

현재 화명2동 주민 대부분은 이주민이며, 토박이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그 목소리도 약해지고 있다. 마을의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손열은 개발과 마을 전통 유지를 함께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으로 환경문제를 현안으로 새로 이주한 사람들도 주민의 일원으로 대천천, 금정산을 비롯한 환경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4대째 마을에서 살아오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71년을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화명초등학교를 나와 이 고장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35년 전에 모교에 육성회 회장을 맡아서 한 5년 하고, 그 뒤로 동사무소에 동정자문위원회 총무를 한 1년 하고 뒤에 동정자문위원장으로부터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까지 한 30년을 지역 장(長)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하천살리기운동본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마을 중에서 용동굴[용동굴, 용동마을]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¹는 양달이라는 곳이고, 용동굴은 지금 마을 입구에 보건소 있는 거기입니다. 지금은 장원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본관은 밀양입니다. 4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4대 할아버지가 이 동네로 오셨는데, 할아버지 처가가 파평 윤씨였습니다. 파평 윤씨가 이 마을에 제일 오래 있었고 지금도 재실²도 있고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화명동 대천마을은 옛날에 경상남도 동래군이었고, 또 그 다음에는 부산시 부산진구로 바뀌었고 지금은 북구로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금정산 아래에 마을이 있고 또 앞으로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부산 근교에서 보기 드물게 마을 가운데로 대천천이라는 아름다운 천(川)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화명동은 옛날 동래군 구포읍이었을 때부터 네 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천마을, 와석마을, 수정마을, 용당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천이 주 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유명한 인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인물이 난 동네입니다. 양찬우라는 양반이 군에 가서 마흔 몇 살에 투 스타(two star)

¹ 구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화명2동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말한다.

² 금호재를 일컫는다.



제3공화국 시절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양찬우^①와 제9대 해군참모총장 시절 장지수^② 모습
장지수와 악수하는 이는 당시(1971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이다. | 국가기록원



권상덕 교장 회갑일 모습(1963).
1946년 화명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1969년까지 부임하였다.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를 타고 박정희 대통령 때 나중에 내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또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지수 씨라고는 분이 계신데, 진해 함대 사령관을 할 때 마을 사람이 버스 2대를 대절해서 함대 구경을 했습니다. 그분 덕에 직장이 귀하던 시절 화명초등학교 출신들이 배를 많이 탔습니다. 권상덕 교장 선생이라는 분이 평교사로 시작해서 화명초등학교 교장으로 끝을 맺어 돌아가시고 공덕비가 있습니다. 여기 면일 때 면장이 열둘이었는데 그중 여덟 명이 화명 사람이고 구포 사람은 넷뿐이었어요.

02

성장기와 대천마을

화명초등학교를 나오셨다고요?

예, 16회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역사가 한 100년쯤 되었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닌 때는 초등학교가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상덕 교장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 동네서 태어나서 이 동네서 평교사로 계시다가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교장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 교장 샘[선생님]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할라마[하려면] 못 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을에는 나락 이삭을 줍고 봄에는 보리 싹을 주워 가지고 그걸 팔아서 학교 뒤편에 다가 돼지 막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수학여행 못 가는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었고, 또 거기 남은 돈을 가지고 학교 답[畵]을 마련했습니다. 그 학교 답이 제가 육성회 회장을 맡기 전년도에 전임자가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부산시 교육청에 팔려 갔습니다. 제가 육성회장을 하면서 반환 청구를 했는데 결국 못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대천천이나 낙동강에 얹힌 추억이 많으시겠네요.

그때는 화명초등학교에서 낙동강까지 대천천 주변이 전부 모래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물고기가 있었고 가을 아침에 소 먹이러 가면 은어가 수천 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철사로 두드리[두드려] 패가지고 한 백 마리 정도씩 잡았습니다. 홍수가 지면 잉어가



생태공원 내 화명운동장 모습(2022년)

많이 올라와가지고 삽으로 쳐서 잡기도 했습니다. 또 낙동강에 가면 모기장 같은 걸 네모난 틀에 썬워서 손가락만한 지렁이를 미끼로 끼워서 얹혀놓으면 징기미[징거미]라고 큰 새우가 한 덩어리씩 잡혔습니다. 철길에서 석탄을 주어서 그걸로 뿔 튀겨먹고 그랬습니다.

하천부지에 채소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생태공원하고 운동장³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천부지에 나가면 강게가 있어요. 논안에 게가 있어요. 와글와글하니 잠깐 잡아도 한 주머니 잡거든요. 강가에는 갈대 중에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삼각으로 된 새파란 게 있어요. 그걸을 뽀지르면[부러뜨리면] 안에 스펀지같이 하얀 게 들었는데 그놈을 뜯어먹고, 또 맛이 라는 조개가 있어요. 기다란 게 엄청 많아요. 또 재첩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재첩 같은 자잘한 게 있습니다만 그때는 엄지손가락만 한 거를 잡았거든요. 심지어 요[마을] 앞에까지 물이 닿으면 잉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애기소 위로 소가 여러 개 있었는데 폭포 치는 데 보면 지금은 아주 귀한데 장어 새끼가 돌을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때 부국제강 혹은 만호제강이라는 공장이 이 동네에 있었는데 청산가리가 쇠 강도를 올리기 위해 청산가리를 쓰는데, 누가 거기서 청산가리 덩어리를 가져와서 서너 개를 (소에) 던져 넣어서 장어를 잡는 걸 봤습니다. 그걸 먹

³ 화명운동장(혹은 구민운동장)으로 화명동 1718-10에 있다.

으니 독해서 팔뚝만한 장어 누런 게 다섯 여섯 마리가 맨땅을 기어 올라와요. 계곡에는 은어도 많았고 가을에는 참게를 잡았습니다. 요새 텔레비에서 보니까 지리산 쪽에서도 잡기도 하고 양식도 나오고 하던데. 밤에 횃불을 켜서 잡는데 그게 손보다 커요. 큰 놈은 발가락에 털이 많이 나가 있으니께네 물에서 더 커 보이죠. 뱀 같은 걸 주면 뼈만 남기고 다 먹어요. 그런 걸 잡아서 자루에 넣어 집어 오면 모친이 그걸 매[공들여] 씻어서 칼집을 내 가지고 호박 넣고 계탕을 해먹고, 남는 거는 게장이라 해가 단지 안에 넣어갔고 간장을 팔팔 끓이 부어가[끓여 부어서] 1년 있다가 먹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고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하굿둑을 막고 나니까 은어고 뭐고 많이 줄었어요.⁴ 그래서 대천천네트워크나 낙동강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하굿둑 개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천 계곡에 애기소라는 데가 유명하던데요.

올라가면 ‘애기소(沼)’가 있었고 고[그] 밑에 ‘배소’라는 데가 있었고, ‘지둥디’라는 데가 있었고, ‘제까치소’라는 소가 있었습니다. 제까치소는 짓가락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릅니다. 애기소는 명주실 한 바구니를 풀어도 바닥에 안 닿는다고 할 정도로 깊었고 아기가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폭포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중 제일 높은 데를 ‘용까이’⁵라고 하는데 거기서 뛰어내려도 발이 땅에 안 닿았습니다. 애기소나 그 밑에 소에서 놀다가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때는 겨울에 더 추웠는지 구포 정미소까지 구루마[달구지]가 나락을 싣고 낙동강 얼음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천천도 지금보다 폭이 더 넓었는데 겨울에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놀거든. 그러다 봄 다되어서 얼음이 갈라지면 물에 빠지고. 그러면 그때는 장작이 귀하니까 소똥 마른 걸 모아서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말리고 했습니다.

대천천이나 낙동강에 홍수가 많이 났을 텐데요.

그 당시에 낙동강 상류에 댐이 없어서 큰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이리 내려왔어요. 이걸 어른들은 ‘시우(時雨)내린다’라고 하시더라고. 물이 철길까지 차오르면 보릿짚 밀짚 위에 사람이 타



애기소 | 복구

고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소도 떠내려 오고 수박도 떠내려 오고. 때로는 애들이 이미 익사해 가지고 강가에 떠내려 왔습니다. 여자 애 시신이 떠내려 와서 마을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묻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짚단 위에 올라타서 떠내려 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배도 떠내려 가는 판국이라 물에 들어가서 구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산 같은 데서 농사지은 사과가 떠내려 오면 그걸 먹고 탈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논이나 연밭에 가물치·메기·잉어들이 들어와서 잡고. 메기 같은 거 큰 잉어들이 거기 고이가[고여서] 있고 그래가 잡고.

사라호 태풍 같은 게 매년 두 번 정도 지나가요. 그러면 어떤 집은 추석 제사도 제대로 못 지냅니다. ‘9·14 폭우’⁶ 때는 집이 내려앉고 인명피해도 나고. 그때 윤○○ 씨 집이 물에 잠겨서 그댕 딸들이 죽고 아들은 다쳐서 제가 업고 철길을 따라 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홍수가 들어서 이 마을 지도가 바뀔 지경이었습니다. 양달마을 저기 아파트 있는 곳에 하천 두 갈래 사이로 섬이 있고 개인 물레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9·14 폭우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하천이 한 갈래가 되어버렸지요. 홍수가 나면 구청에서 복구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독을 보강하기도 하는데 큰 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대저 독이 무너진다고 비상이 걸리고 그랬습니

⁴ 낙동강 하굿둑은 1983년 착공하여 1987년 준공되었다.

⁵ 애기소는 1~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중 4층을 일본어 ‘윤카이[四階]’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⁶ 1969년 9월 14일의 폭우로 대천천이 범람하고 토사가 일대를 덮어버린 사건을 말한다.



9-14 폭우로 무너진 축대를 수리하는 모습①과 구호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주민들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다. 옛날에 저 밑에 ‘시마’라는 섬이 있었는데,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섬을 이룬 거거든요. 여기서 그걸 ‘보복새’라 하는데요. 다대포 앞 큰 섬도 그런 겁니다. 물이 담으면[홍수가 나면] 하천 부지가 쓸려나가기도 하고. 낙동강 가에 선창 쪽에 향어회 팔던 기생집은 물에 잠기고 다시 꾸미고 하는 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안동댐 생기고 나서는 그렇게 큰물은 없습니다. 하천부지도 이제 생태공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릴 때 마을에서 놀았던 추억을 말씀해주십시오.

가을에는 산답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입니다. 또 그때 병아리나 강아지를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고 남의 밭에서 수박이나 옥수수도 따먹고 했는데 그때는 인심이 좋았지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수박서리 같은 걸 가끔 했습니다. 또 여름에는 마을에 아이스케키 장사가 와서 고철을 팔아서 사 먹기도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팔아서 군에 간 아들 휴가비를 준다고 하던데 그걸 ‘달비’⁷라 하던데 이걸로 엿을 바꿔 먹기도 했습니다. 돼지털을 모아 가도 엿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⁷ 가발 형태의 장신구인 ‘다리’를 뜻하는 사투리다.



겨울철의 수양버들 나무①와 여름철 잎이 무성했던 수양버들 나무② 모습. 수양버들은 용동천 정비 과정에서 사라졌다.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가을에 들에 나가서 메뚜기를 잡습니다. 한 댕병 잡아서 볶아놔다가 찹쌀가루 묻혀서 튀겨 먹었습니다. 봄에는 찢레순 올라오면 꺾어먹고, 소나무는 솔방울을 솔강정을 해서 먹고 소나무 순도 먹고. 또 들에 가면 필기[뽕기] 뽑아 먹고. 산하고 들에 먹을 게 꼭 찻지요. 또 촌에는 ‘오요강새이’⁸라는 게 있는데 그걸 뜯어먹고. 버들피리 만들어서 불고. 지금은 대천천 변에 버드나무가 없는데 그때는 참 많았습니다.

또 산에 가면 전부 다 뜯어 먹을 거 아닙니까. 찢레, 소나무 송구[송기]도 뜯어먹고, 솔강정이라 해가지고 소나무 송화 가루 날리는 걸 꺾어 먹지요. 그땐 먹을 게 없었으니. 그때 흔히 얘기하는 ‘십리사탕’이라는 게 있었어. 하얀 사탕이 있었는데 한 시간을 입에 넣어도 다 안 녹고 이빨로 꺾어도 안 깨져요. 그래서 십리사탕이라고 불렀고. 사이다가 귀한 시절이니 소다랑 사카린을 섞어서 사이다 만들어 먹고. 요샌 젊은 친구들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이묵는다카는데[끓여 먹는다고 하는데] 그땐 없는 집에는 국수도 귀했습니다. 국수를 해먹었는데 요새 국수는 하얗잖아요. 그땐 들판에 밀을 심어서 그걸 쪼아서 국수를 뽑으면 색이 시커멓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자연식품이고 맛있는 거지요. 그걸 멸치 국물에 호박 썰어 넣고 먹고. 또 고추장

⁸ ‘강아지풀’의 방언이다.

은 귀해서 전부 된장으로 하는데 매주 띄운다고 머슴방에 달아놓고. 또 밤에 자다가 물소리가 주루룩 나서 보면 어머니가 콩나물 키우신다고, 구들막에 콩나물 통을 놔두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런 소리가 난 겁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잔바리[자잘한 것]가 안 난다데.

어릴 때 소를 먹이러 다니셨다고 하셨는데요?

마을이 농촌이라 그때는 누구나 소를 먹였습니다. 산답논까지 개간해도 양식이 모자라던 시절이고 그땐 쌀값이 헐어서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자녀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수입이 필요했거든요.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키우고 또 집집마다 돼지도 키우고 했습니다. 낙동강 독의 들에다 소를 풀어놓으면 소가 남의 곡식도 뜯어먹으니 산으로 가서 소를 먹였습니다. 산에다 소를 풀어놓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놀다가 저녁에 소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도 소를 먹었는데 새벽에 소를 먹다가 말뚝 줄을 길게 해서 꽂아 놓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그때는 소도독도 많았습니다. 소막 문에는 쇧대가 잠겨 있으니 소도독들이 태풍 오는 날이 되면 담벼락을 밀고 소를 흠쳐 갔습니다. 동네에 머슴 했던 사람이 소를 흠쳐서 사람들이 소를 찾으러 가니 칼을 들고 위협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소 먹이는 것 외에 산에서는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요?

나무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새벽 4시에 동래 범어사까지 나무를 해오면 2~3시 되거든요. 짜리로 된 바지계를 지고 산에 올라가 '깎비[술가리]'를 굽어 오던지,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치를 '깎동구리'라고 하는데 땅을 파고 그걸 깨서 가져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보리쌀 삶은 걸 송구리[소쿠리]에 담아서 걸어놔는데 그걸 대충 말아먹고 구포장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심지어 김해 사람들이 겨울에 나무를 하러 지계를 지고 낙동강 빙판을 건너서 범어사까지 왔습니다.⁹ 그땠 평지보다 산나무가 많아야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때는 산림계 사람들이 소나무 한 가지만 섞여도 하루 종일 해운 나뭇짐을 다 뺏들었습니다. 당시엔 산에 나무도 없이 전체가 벌거숭이였습니다.

⁹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안막 3구 마을』, 2021, 111쪽에 대동면 사람들이 강을 건너 화명동에서 땀감을 채취했다는 구술이 있다.



대천마을에서 금정산성 가는 길(1970년대) | 북구·낙동문화원, 『釜山北歐郷土誌』, 2014.



상학산 상계봉(2019년). 상계봉은 금정산맥 산정의 하나로 큰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다. | 북구



상학산의 서쪽 줄기 함박봉 모습. 함박봉은 함박꽃과 닮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 북구·낙동문화원, 『釜山北歐郷土誌』, 2014.

저쪽에 보이는 저 산은 명칭을 ‘미군부대’라 카거든요. 지금 롯데 카이저 있는 고 뒷산.¹⁰ 왜 미군부대라 하느냐 하면 6·25 때 미군들이 거기 와서 주둔을 해가 있었거든요. 산꼭대기까지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미군들이 떠나면서 안가지고 간 거 다 있었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칩 캐러 가보면 거기에 미군들이 까먹고 버린 캔이 집채같이 쌓였는데. 그때는 고철 값도 안 비싸고 하니까 우리는 칩만 캐고 내려오고 그랬지요. 나중에 한국군 포(砲) 부대가 땅을 파니까 몇 백 드럼 휘발유가 나와서 한국군들이 그때 그거를 자기들 쓰자고 했다고 하네요.

구포중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가정 형편은 어떠셨나요?

저는 가난하지도 않았고 잘 살지도 않았고. 주변에는 가난해서 중학교 진학을 못한 친구들도 많았지요. 저는 외동아들이 되다 보니 어머니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때 산성 사람들이 몰래 누룩을 빚어서 살았는데 이걸 구포시장에 몰래 팔면 밀주를 담는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세무소[세무서]에서 단속하러 오니까 산에다 굴을 파서 누룩을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누룩을 좀 하시고 돼지도 키우고 하셔서 생계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을 양쪽 산에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그 채석장 돌로 영주동에 축대를 했습니다. 축대를 하는 ‘잉고’라는 돌이 있었고 작은 돌은 ‘간자’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석공들이 아침에 망치하고 돌로 깎 수 있는 장비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미군들이 쓰던 추력[트럭]에다 드럼깡[드럼통]으로 적재함을 만들어서 산판(山坂)을 올라 다니며 거기서 나온 돌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게 중학교 1, 2학년 시절이었는데 아침에 구포까지 학교를 가야 하니 그 트럭 뒤에 매달리면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썼어요. 참 위험했지요. 지금은 채석장이 (산성) 터널 입구 근처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걸어 다니고 차에 매달리고 해서 구포 가는 차비를 아껴서 오뎡 하나 사먹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생각나는 마을사람들의 문화생활이나 놀이 등이 있으신가요?

일 년에 한 번 정도 농사 끝나고 가설극장이라는 게 오거든요. 나락 훑고 난 빈터에 천막 쳐

놓고 가설극장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영사기를 돌려서 영화를 상영하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왔죠. 남의 집 며느리들은 조금씩 쌀을 퍼내가지고 몰래 그걸 보러 간다고. 서커스 같은 것도 한 번씩 왔는데 나도 어릴 때 보러 갔어요. 애들은 가라 했는데. 또 그때 시절에는 논에서 겨울 되면 ‘호무리’ 한다고, 지금 야구처럼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마을 앞에 있는 큰길이나 철길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 앞에 양산 가는 길에 큰 다리가 있죠?¹¹ 제가 어릴 적에는 마을 앞으로 서울로 가는 트럭들이 지나다녔는데 그땐 다리가 나무다리라서 못 지나다니고 차가 다리 밑으로 대천천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많다 보니 건너가다보면 바위가 빠져서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트럭에 실린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지프차들이 밑에 아로망[철망]을 깔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모래에 빠지면 소를 묶어서 끌어서 꺼내주고 초콜릿이나 사과를 얻어먹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기차 철길이 지금보다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 또 철길 주변에 보(淤)가 있어서 물이 차있었는데 철길에 있다가 기차가 오면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차 사고도 참 많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도로가 비포장이고 철길이 마을에 안쪽에 있어서 지름길이 되어서 그리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기차가 지금 같은 디젤 기관차가 아니고 석탄을 때는 열차였는데, 그 열차로 인해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사람이 기차 사고가 나면 참 무참하게 시체가 여러 동가리가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도 많이 치이고. 치여서 땅에 묻어놓은 소를 파내서 먹으려다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¹⁰ 함박봉을 가리킨다. 이곳에 6·25전쟁 이후 군부대가 있었다가 철수하였다(『부산북구향토지』 158~159쪽).

¹¹ 구포-양산간 도로가 대천천을 지나는 화명교(화명2호교)를 말한다.



경부선 철도 | 복구

03

마을의 다양한 풍습

이 마을에도 피란민 분들이 계셨나요?

6·25 때 피란 오신 분들도 생을 마감해서 마을 주위에 많이 묻힌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마을자치회 사무실 주변이 거의 솔밭이었는데 많이 묻혀 있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밤이 되면 그 유골들이 묻혀 있는 곳에 토째비[도깨비]불이 번쩍번쩍한다고 어르신들에게 들었습니다. 토째비에 홀려서 두루마기가 뺨투성이가 되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기철[장마철]이 되면 토째비가 나온다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제 윗대에 어른 중에는 선비가 구포 쪽에 갔다 오시다가 토째비에 홀려서 두루마기가 뺨[진흙] 칠갑 되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변에 무덤이 있었군요.

벽산아파트 쪽에 옛날에 화장장이 있었어. 내가 어릴 때 혼자 사는 ‘무이리 장사’라는 영감님이 있었는데 우리가 개구리를 잡아다 주면 돈을 얼마씩 주고 이랬거든요. 그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동네 분들이 거기에다가 화장하는 걸 봤어요. 연고 없는 사람들을 화장하는 걸 봤어요. 시체를 매장할 때는 목관이나 석관을 가지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봉분 내려앉지 말라고 석관을 쓰지.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 아니면 잔치가 열리면 돼지고기를 삶는데 그걸 나눠주는 사람을 ‘고방[창고]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돼지 창자라도 얻어먹으려고 옵니다. 고기 얻어먹고 삼베 손수건 같은 데다가 고기나 떡을 싸가지고 집에 갖고 오고, 그걸 ‘단자’라고 해서 풍습이었어요. 잔치가 열리면 구포의 거지패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¹²

마을 안에서 연애를 하기도 했나요?

저희들이 클 때는 어른들이 여학생들과 못 놀게 해서 크리스마스 되고 이라면 타작 하고 남은 짚단 몇 개를 빼서 불을 피우고 먹을 것 조금 탁주 조금 받아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들어오고, 집에 아래채가 따로 있어도 어른이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왔는지 둘러보고 여자친구가 와 있으면 혼내고 해서 그리 놀지를 못했습니다. [웃음] 화명 금곡 쪽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자애들 불러서 그렇게 노는 거죠.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을 텐데요.

그때는 밥을 하면 쌀로 조금 넣어가지고 영감님에게 주고 애들은 보리밥 먹는 거죠. 고기도 구우면 어른들한테 가고, 어른들 반찬을 넘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외아들이 되다보니까 아부지하고 밥상 같이 받아먹고 이랬는데, 웬만한 집에 딸들은 국민학교도 근근이 졸업시키고 거의 다 집안일 시켰죠. 그때는 아들을 선호하는 시대였다 아닙니까.

¹² 혹은 잔치나 장례 등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행사를 ‘해치’라고 일컫기도 했다. 공윤경, 『1960년대 농촌 여가문화의 특성과 의미 - 대천일기를 사례로』, 『한국민족문화』 6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309쪽.

내가 어릴 때는 군에 간다 하면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딸들은 설거지나 하고 발이나 매고 거의 공부를 못 했지요. 그러다가 결혼할 시기가 되면 누가 중매를 해서 남자가 선보러 여자 집을 갑니다. 그때는 남자가 남자 집 가족들하고 여자 집을 오더라고. 여자가 남자 집을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남자가 남자 집 가족들하고 여자 집을 오더라고. 그때는 혼사도 부모들끼리 정하고 본인들끼리는 보지도 않고 혼사를 했거든요. 결혼식 하는데 화장품을 누가 훔쳐가서 난리나기도 하고. 또 여자가 시집가려고 날을 받아놨다가 남편 될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평생을 혼자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결혼식도 신붓집에서 하죠. 잔치라는 거는 마당에 남자들 우인(友人)이 모여드는데 여자들 우인은 못 봤어요. 남자들 우인이 잔치 차려놓으면 암탉수탉을 놓아두고 잔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간혹 함잡이[함진에비] 와가지고 함 사가라 하고. 어려운 집에는 날 받아도 돼지를 잡지는 못하고 고기를 쪼메[조금] 사가지고 형식적으로 쓰고. 그때도 지금 비슷하게 주례가 있었어요. 서가지고 축문 비슷하니 읽더라고. 축문 읽고 신랑과 신부가 맞절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심하게 다뤘는데, 아기들 업는 띠 같은 걸로 신랑을 묶어놓고 두드려 패는 거죠. 지나가는 미군이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묻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 전해지는 특이한 풍습이 있나요?

그때는 집집마다 뱀이 있었어요. 뱀이 집에서 나오면 그 집이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뱀이 나오면 들어가라고 물 떠놓고 들어가라고 빌고 이랬는데. 또 저 앞에 우리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대나무 꽃이 피니까 대나무 숲이 다 죽더라고. 대나무 죽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던데. 봄에 모를 심어놔는데 우리 집에 뱀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하나 나와서 우리 어른이 엇으로 바꿔 먹었어요. 며칠 있다 꿈을 꾸니까 큰 계곡에 물 고인데 거기에 뱀이가[뱀이] 나오더라 “니가 나를 잡아먹었으니까 내가 니를 잡아먹어야[잡아먹어야] 안 되겠나”하는 겁니다. 그러다 중풍이 와버렸어요. 집에 어른이. 한의원에 다녀도 안 나오니까 무당한테 물으니 꿈이랑 똑같이 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굿 한다고 북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오셨는데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뱀이가 ‘진래’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이 뱀이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 뱀이 나오면 집안에 우환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또 낙동강 물이 담을라 하면[범람을 하려면] 집안의 쥐가 딱 이동합니다.

신기한 일이네요. 다른 풍습도 말씀해주십시오.

몇 십 년 전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집 처마 밑에 명태 대가리를 한두 개 걸어놔거든요.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오면 명태국을 끓여 주기도 하고. 내가 한번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귀앓이를 하고 고름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 모친이 명태 대가리를 두 개 삶아가지고 요강 단지에 이 물을 부어가 수건으로 주둥이에 동그랗게 따매이[뽀리]를 만들어가지고 귓구멍만 하게 구멍을 남겨서 이걸 베고 김을 딱 씹고 나면 한 시간이 있으면 안 아파요. 그 다음날 딱지가 떨어집니다. 또 옛날에 집에 몰래 아편대를 걸어놓거든요. 토사곽란(吐瀉癘亂)이라도 만나면 그 대를 삶아먹으면 낫거든요. 아편 대가 없는 집에는 담뱃대에 고인 진을 먹어서 낫게 했습니다. 또 그 시절에는 누가 뼈가 부러지면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토막을 끈을 묶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똥에 심어 넣어놓으면 대통 안에 새파란 물이 고입니다. 이걸 먹고 골절을 낫게 했어요. 또 아기 변 본 것을 구워서 탁주에 타서 걸러 마셨습니다.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 조약이 참 용한 기라.

마을 당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내고 계십니까?

옛날에 저 위로에 올라가면 한전 쪽하고 이쪽하고 큰 계곡이 두 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기와집으로 된 고모당 당집이 있었는데 금정산이 험뻗어 있던 시절에도 그 자리만 소나무만 있었어요. 거기만 벌채를 못 하게 하니까. 지금은 개발하면서 당집을 대천천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거기 금정산 고당 할매를 모시는데 사람들이 막 빌고 울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해마다 당제를 지내주고 했습니다. 무당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 매년 마을에서 당을 모시는 사람을 한두 사람 정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초상집도 함부로 못 가고 개고기나 회도 못 먹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보통 회장하고 총무가 그 일을 맡습니다. 당제는 정월 보름에 열고 그날 당집 청소하고 마을 기금으로 무당을 사가지고 크게 제사를 지냅니다. 음식은 마을 부녀회¹³에서 준비합니다. 당제를 거르면 마을에 사고가 있다고 해서 한 해도 안 거르고 치릅니다.

¹³ 목화부녀회를 말한다.

새마을운동과 주거의 변화

음달 쪽에 마을회관이 있던데요.

대통령 하사금을 받아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¹⁴ 내가 단위 농협에 이사를 하던 시절에 마을회관 1층에 임대해서 농협 비료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 계약하려고 보니까 대통령 하사금으로 지었다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에도 없을뿐더러 무허가 건물이 돼있더라고. 뒤에 있는 교회¹⁵ 땅도 한두 평¹⁶ 점령해 있고. 그래서 마을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주변에 땅 소유권을 정리를 해서 준공을 했어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회관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방송을 하지요. 그때는 전화도 동네에 한 두 집 있을 정도라 마을회관에 마을 전화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마을에 전화를 하면 10분 기다리다 전화 하라카고 방송을 해서 전화 받을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전화 받을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받고. 마을회관에 이발소가 있어서 거기 이발사분이 마을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마을에 새마을운동을 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새마을운동 때 취락구조 개선한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주택을 슬라브(slab) 이층집으로 거의 지었는데, 그 정부에서 지원을 거저 해준 게 아니고 오십만 원씩 장기분할상환을 해줬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충분하질 않아서, 집을 새로 짓는 비용의 1/10도 안 되었죠. 집 짓는다고 빚을 저서 오히려 가산을 탕진하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받아서 돈을 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돈 내는 걸 잊어먹는 바람에 독촉장을 받고 연체료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층집을 보로꾸[블럭, block]로 다 지었거든요. 그렇게 도로 옆에 지은 집들은 버스가 지나가면 집이 엄청 흔들립니다. 지금은 세멘[시멘트]를 갖고 공임을 해서 지어서 튼튼한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진

¹⁴ 현재의 마을회관은 1974년에 건립하였다.

¹⁵ 지금의 화명평화교회이다.

¹⁶ 1평은 3.3㎡이다.



대천마을회관 모습(2022년). 마을회관 오른쪽에 「대천마을연혁비」가 서 있다.

정도 하고 개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집이 몇 채 없어요. 음달 쪽에 두어 채 있습니다.

마을에 기와 공장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기와 공장은 지금 주차장 하는 데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장을 윤희수 어른이라고 그분이 운영을 하셨거든요. 올해 아흔 다섯이신데 일기도 오랫동안 쓰시고 그랬지요.¹⁷ 우리 선배 되는 사람이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태권도 배웠다고 공장에 있는 기와장을 부수다가 그 주인한테 혼나는 것도 봤습니다.

옛날에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벌레가 많았지요. 집에 빈대라고 납작한 게 벽에 붙어 내려옵니다. 이걸 죽이다 보면 벽이 피가 터져서 벌개요. 그때는 머리카락에 이도 많았고요. 겨울에 화롯불에 쪼아서 죽이고 또 참빗

¹⁷ 「대천일기」를 말한다.



1965년에 지어진 화명기와벽돌공장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으로 훑으면 허영게. 요새는 없지요. 또 외양간에 소에 ‘가문지’라는 게 붙어서 피를 빨아 먹는 데 이걸 잡아다 땅에 놓고 밟아서 터뜨리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 돕는다고 논에 일을 하러 가면 거머리가 엄청 붙어 있는 걸 보거든요.

마을에 전기는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건 제가 열 살 정도 되었을 때. 한 60년 전 정도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 절전을 해가지고 (밤) 11시면 정전이 되거든요. 한전에서 낮에 전구를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전(盜電)을 많이 했는데 전선을 빼서 계량기에 걸리지 않게 전기를 갖다 쓰는 겁니다. 한전에서 잡으러 오기도 했지요. 그리고 남의 집 전기를 갖다 쓰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는 전선줄 도둑들도 참 많아서 11시에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전선을 끊어가고 했지요.

그때는 건전지 들어가는 후라시[플래시]가 참 귀했어요. 군에서 쓰는 ‘기역[기] 자 후라시[플래시]가 있는 집은 부잣집이라 했거든요. 그걸 들고 밤에 동네 형들 따라가 초가집 처마 밑에 보면 참새가 집을 지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새도 마이[많이] 잡아서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붕에 뱀이 겨울잠을 자고 있을 때도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05 마을의 개발

지금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 젊어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경남여객이라고 버스에 양산지점 주임으로 있었습니다. 경남여객이 서부경남에서는 제일 컸는데 조방앞¹⁸에 종점이 있었고 포항지점, 울산지점 있었는데 저는 양산지점에 주임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숙식 제공을 다해주고 잠도 거서 자고 했습니다. 밤 한 열두 시에서 한 시까지 수익금만 받고 다음날 정비공들이 차를 고치러 수시로 나가보고 아침 차 출발로 하게 시키고 해야 되니까 엄청 바빴지요. 잠도 못 잘 지경이라 결국 한 2년 있다 부동산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일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버스 주임할 때 우연한 기회에 법원 경매 구경을 하다가 그게 재미가 있어서 우선 자동차 매매 중개 일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동산을 시작한 거지요. 한 32년 전부터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이 도시화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이 된 게,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땅을 계약금을 걸어놓고 사가지고 분할인가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목욕탕을 건축을 해서 팔기도 하면서 개발 붐이 일어났죠. 지금 대우 푸르지오 있는 데 보건소에서 올라오면 바로 오른 편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868평¹⁹ 정도 되는 100년이 넘는 나무가 제법 자란 산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사무실에 나갈라고 나오니까 나무를 막 베고 있더라고. 그때 문정수 국회의원 초선 시절일겁니다.²⁰ 왜 나무를 베느냐 물어보니 누가 뭐 청와대 배경이 있어서 이 산을 민다고 해서 내가 구청으로 뛰갔어요[뛰어갔

¹⁸ 조선방직주식회사. 현재의 동구 범일동 부산시민회관 주변에 위치하였으며 그 일대를 관용적으로 ‘조방앞’이라고 칭한다.

¹⁹ 약 2,869㎡이다.

²⁰ 1985년 당시 12대 신한민주당 북구 국회의원으로 초선이었다.



화명부동산 입구에서 구술자(2022년)



장원아파트와 음달마을 전경(2022년)

어요]. 거기서 향의를 하니까 명지까지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돈다발도 보내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또 어떤 양반은 소고기를 사서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장성만 씨²¹ 쪽 조직 사람들이 개발에 많이 개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36번 버스 종점 옆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동네 개발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저기 장원아파트가 마을 첫 아파트로 들어서게 됐죠. 원래는 윤희수 씨 받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저²² 있는 데는 자연 농지였는데 주공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장원아파트는 마을에 처음 생긴 엘리베이터 있는 고층 아파트라 동네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러 올라오고 그랬죠. 그리고 보건소 옆에 세진아파트하고 우신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마을이 개발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도 생겼을 텐데요.

옛날에 없는 사람은 남의 땅 소작을 하니 땅 주인하고 반반을 갈라먹습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집도 남의 땅에다 지어서 사니 주인집에 잘 보여야 되니까 눈치 보이고 주인집이 자기 논 일을 막 부러먹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겨우 산답논을 개간해서 먹고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 바뀐 게 뭐냐면, 부자들은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빌려서 개간해서 잘 살다가 지금은 다시 국가 땅이 되어버리고, 산답논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내 땅에 내 농사를 짓던 거라 주거지로 풀리고 나니 지금은 땅 한 평에 2~3천만 원씩 해서 부자가 되어버렸지요.

²¹ 당시 민주정의당 북구 국회의원이었다.

²² 화명1동 롯데캐슬 카이저이다.

쓰레기 매립장 얘기를 들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이란 게 독 너머가 전답일 때 생겼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경마장이 안 오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지주들이 보상을 받고 협의를 해준 거지요. 거기서 신발공장 폐기물이 들어왔습니다. 밤에 몰래 묻고 그랬어요. 그 매립장이 지금 신도시 아파트 자리인데, 아파트 개발을 할라고[하려고] 보니까 땅속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담배꽂초에도 불이 붙고 했거든요. 그래 아파트 지을 때 업자가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얘기도 들은 거 같은데요.

그 소각장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철길 옆에 있습니다.

마을 안에 갈등이 있는 경우는 없나요?

이 옆에 평화의집이 있고 양로원 있는데 평화의집은 옛날에 고아원이었거든요. 양로원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산성 위에 사람들은 예전에는 누룩을 팔아서 살았는데 지금은 오리·염소를 잡아서 관광객들을 상대하니 대천천이 오염되어서 엉망이었는데 내가 하천살리기 운동본부 할 때 36억을 들여 산성 하수관을 끌어서 다대포까지 연결시켜 물이 다시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천천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막 건설 허가를 받아놓고 불법으로 층고를 높이고 불법영업을 해서 제가 고발을 하고 진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정산에 개척단이라고 해서 폭력배나 윤락녀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 있었는데 속옷 바람으로 도망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기도원 신도들하고도 마찰이 좀 있습니다.

토박이분들과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들어서니 거의 80~90%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오가다 보면 전부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지요. 대천천네트워크 같은 데를 가봐도 토박이는 한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마을 행사가 있어도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마을에서 이제 이어오던 전통 같은 게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쉽죠. 제가 사비를 들여서 마을 풍물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명맥이 잘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택(安宅)²³을 하면 무당굿을 하는 거나 같다고 해서 살(煞)을 떨어주고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마을학교에서 중년층을 대상으로 전수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보름 달집 행사도 구청에서 한다고 한 3년 전부터 마을에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을이 개발되면서 옛날 마을의 인심이 사라진 게 많이 아쉽습니다. 또 대천천 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개 변(便)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강으로 하수가 흘러들어 가는 걸 보면 기가 찹니다. 합천댐이나 원동천 물을 상수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엔 환경이 문제인데, 맑은 대천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우리 마을 환경을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지켰으면 합니다.

²³ 지신밟기를 말한다.

“

저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고,
내가 뼈를 여기에 묻을 생각으로
대천마을에서 살려고 합니다

”

02

김옥자



김옥자

- 1963년 경남 사천 출생
- 1997년 대천마을로 이주
- 아파트 부녀회로 마을 활동 시작
- 임대주택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대천천네트워크 사무간사 역임
- 현재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 중



구술자와 과거 대천천네트워크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 사무실

김옥자는 1963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했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지만, 언니들의 지원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졸업 후 부산에 정착하게 된다.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친언니를 간호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간호조무사로 진로를 정하였다. 직장 일을 하던 도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출산 직전까지 일하다가 출산 후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었다.

전세 들어 살았던 서면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친구를 따라 1997년 화명동 대천마을로 이주하였다. 이사 온 직후 만난 아파트 부녀회장의 권유로 부녀회 일을 시작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천마을을 위한 활동에 전념을 다하게 되었다. 이후 김옥자는 2001년에서 2010년에 걸쳐 약 10년 간 통장을 역임하였다. 이때 뜻밖의 공직자 선거법 참고인 조사를 받는 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기도 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

대천마을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자 이를 저지하고 그 부지에 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때 총무를 맡았다. 임대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여타 단체들과 함께 대천천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김옥자 역시 대천천네트워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계기로 인해 대천천네트워크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대천마을을 위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지만, 활동 과정에서 사람들과 오해와 갈등을 겪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다.

김옥자는 대천천네트워크 활동은 그만두었지만 다른 단체에서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대천마을을 사랑하고 있다. 그는 대천마을의 자랑거리로 아름다운 환경과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꼽았는데, 대천마을은 여타 다른 곳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를 키우기에 좋다고 하였다. 김옥자는 대천마을이 계속해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나아가 대천마을을 여생을 살아갈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소개 및 대천마을 입주 이전의 삶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59살이고요. 아들, 딸 두 아이의 엄마, 화명동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김옥자입니다. 그린 21B아파트 통장과 대천천네트워크 사무간사로 10년씩 활동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위원으로 있고 새마을부녀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천리 초·중 졸업생이고 고등학교는 아들은 화명고, 딸은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장거리 통학으로 힘들게 다녔습니다. 가끔 스쿨버스 놓치면 남편이 산성마을 너머 통학시켜 놓고 출근했어요. 정말 3년간 고생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직장 생활은 서면의 한 종합병원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작은 의원으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제가 고1 때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언니가 발목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제가 첫 1교시를 수업을 못 할 정도로 언니가 입원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병원에 제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수간호사 선생님이 언니 케어(care)를 잘한다고, 이다음에 간호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책도 많이 주셨고 간호학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셨지요. 그렇지만 고3 때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서 간호조무사를 하면 딱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 학원에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간호조무사로 병원 일을 했죠. 운 좋게 국가고시 첫 시험에 붙어서 26살 때까지 일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결혼하고 임신한 걸 확인한 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해 8개월까지 참았어요. 그러다 원장님께 그만두어야겠다고 하니 원장님이 순산하려면 활동해야 한다면서 근무 조건을 배려해 주시고 출산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 당일까지 근무하고 새벽에 배가 아파서 택시 타고 가는데 하마터면 우리 아이 이름이

‘택순이’가 될 뻔했어요.

산후조리하고 다시 출근했는데 아이는 원장 사모님이 봐주시고 저는 병원 근무했어요. 5개월쯤 아이가 낫가림이 심해서 직장생활이 힘들어졌고 시댁에서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5명이라 손주 하나를 돌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시어머님 말씀이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현명하셨죠. 그때가 26살이니 한 5~6년 정도 일했어요. 그리 길게는 하지 못했죠.

대천마을로의 이주와 생활

대천마을로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전포동에 있는 시댁 가까이에 살다가 서면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나와서 8년 정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택이 경매 처분된다고 옆집 할아버지가 알려 주셨어요. 열린 이사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화명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미분양 세대가 있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파트도 안 보고 친구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친구 따라왔는데 친구는 금곡동으로 이사 가고 나는 화명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사 와서 한 3일째 되는 날에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제가 분리수거 하는 모습을 부녀회장이 봤나 보더라고요. 그때 눈독을 들였는지 제가 일을 잘한다고 부녀회장이 저를 부녀회원으로 영입했어요. 그때가 1997년도였죠. 부녀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또 저에게 같이 봉사활동을 하자고 해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우리 아들과 딸하고 화명동의 쓰레기란 쓰레기를 엄청나게 주웠어요. 애들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죠. 그러고 있는데 2001년도쯤에 우리 아파트에 통장이 없으면서 저보고 “통장을 좀 해라”하더라고요. 그때 통장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동

장남하고 구의원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요. 지금 이 나이에 통장 활동을 해야 했는데, 그때 저는 30대의 어린 나이에 통장을 했어요. 통장을 하기로 하고 회의에 가면 나이가 어려 “엄마 대신 왔나?”, “시어머니 대신 왔나?” 그렇게 할 정도로 다 어른들만 계셨어요. 그때 한 언니가 하는 말이 “통장은 할 거 별거 없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된다”고 했죠. 제가 통장을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에 그만뒀죠. 한 10년 했어요.

처음에 이주해서 들어왔을 때 대천마을은 어땠나요?

대천마을은 윤 씨, 정 씨가 거의 집성촌처럼 이뤄져 있는데, 그때 당시 마을회장이신 윤희은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아파트 부녀회 동 대표 회의에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나도 지원과 협조를 잘해주셨어요. 외지 사람들이 마을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화명2동은 작은 도시마을 느낌이지요. 기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림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화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납니다. 마을 어르신도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많이 챙겨 주셨어요. 항상 감사했죠. 이런 기회에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어디에서 구매하셨나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금곡동 재래시장을 이용했는데 얼마 후 사상 홈플러스가 생기면서 셔틀버스 타고 다녔고 가장 불편한 것은 아이들이 아플 때였어요. 구포에 있는 소아과가 2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병원이 너무 멀어 불편했지요. 과거 경험으로 동네 아이들 예방접종이나 변비가 심해 우는 아이 관장시키는 거, 어르신들 영양제 주사를 놔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병원이 제일 가까운 데가 대동병원이었어요. 북구 여기는 종합이나 준종합병원이 없었어요. 남편 차로 아픈 이웃집 아이 응급실 출동도 많이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구포시장으로 주로 가셨나요?

우리는 그때 다 금곡동으로 갔었어요. 지금은 화명동에도 마트가 생겨서 다 해결할 수 있죠. 저는 성격이 막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살 거 있으면 메모 딱 하고 거기서 해결하고 와요. 구포시장도 이용하지만 지금은 하나로마트, 롯데마트로 가죠. 요즘은 운전하니까 양산

농산물센터 쪽으로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명2동 여기 상권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 집 앞 상가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이 이용을 해줘야 하는데 요즘 다 시내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우리 집 앞에서 이용하자고. 어쨌든 밥을 한 끼 먹어도 우리 집 앞에서 먹어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유지하면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03

마을활동과 대천천네트워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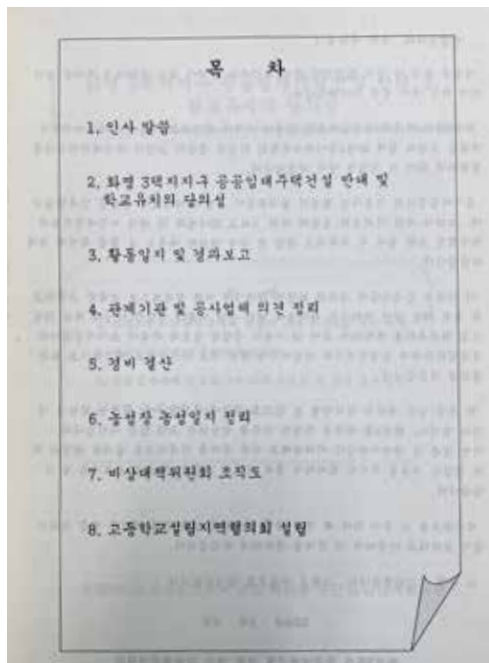
기억에 남는 대천마을 활동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큰일을 떠올려 보면 임대주택 반대 집회와 고등학교 설립 운동, 고속철도 사갱공사가 생각나네요. 농성장을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당번 정하고 수백 명이 모여 전세버스로 기관에 방문하고 피켓 들고 화명동 일대를 행진했어요. 또 기금 마련을 위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정월대보름 행사¹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몰라요.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이젠 젊은 날의 추억이 되었고 ‘상처가 스승이다’라는 교훈도 얻었고...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만나고 싶고 보고 싶네요. 찜통 같은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행사 준비했던 각 아파트 부녀회 언니들이 참 수고가 많았어요.

대천천네트워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주로 회계 업무를 비롯해서 아파트와 주택의 노인정 방문, 홍보 안내문 발송일을 했어요. 또 정월대보름축제, 대천천 문화환경축제, 대천천 생태탐방, 대천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마을장터에서 아나바다 운동을 했지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

¹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 달집태우기는 마을 자체에서 개최하였으나 화명생태공원의 달집 행사로 합병되었다



대천천네트워크 활동 백서 자료. 김옥자는 임대주택 건설 반대 및 고등학교 설립운동의 대천위원으로 참여했다.

다.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힘든 줄을 모르고 즐겁게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쫓아다녔습니다.

대천천네트워크로 전환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화명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화명포럼과 대천천을 중심으로 단체가 결합되면서 지역의 문제점과 대천천을 지키고 보존하는 환경단체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의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였나요?

사갱공사에서 나오는 토사 운반 트럭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및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많이 위험했어요. 그리고 주민들 또한 불편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지요. 그래서 주민대표가 기관마다 방문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은 말로 다 설명 못하



대천천네트워크(2022년)

조. 그 결과물로서 대천천네트워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우리 지역의 현황이라고 생각하고 눈만 뜨면 농성장으로 집합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마을일이니까 어르신들도 몸을 아끼지 않고 죽기살기로 싸웠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수박화채로 땀을 식히면서 고군분투 했습니다.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고생한 분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된 이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대천천네트워크에서는 대천천을 중심으로 환경을 정화·관리·보존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 는 대천천 문화환경축제를 개최하고, 그 외에 정월대보름 행사나 하천 답사 등 수많은 행사를 합니다. 저는 그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남녀가 따로 없이 한마음으로 준비 합니다. 두부김치나 막걸리 등의 음식 장만은 여자들이 주로 맡는 부분이고요. 어느 해 정월대 보름 행사때 춥고 비오는 날, 떡국을 두 가마니를 끓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감기 몸살로 고 생한 언니들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대천천네트워크가 주최한 정월대보름 행사 모습(2013년) | (사)대천천네트워크

04

마을의 자랑거리와 현안

대천마을이 유독 마을공동체 운동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주거환경의 덕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빌딩이나 큰 건물 쇼핑센터는 없지만 대천천을 중심으로 운동하기 좋고 공기도 좋지요. 초중고등학교 가깝고요. 교통이 불편한 만큼 아이 키우기에는 안전한 마을이지요. 생각이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이사오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대천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거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화명초등학교가 있고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대천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 즉 금명여자고등학교, 화명수목원, 대천천네트워크 건물이 있고요. 또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학교 그리고 현재 마을기록관을 준비중인 주민행정복지센터 등 자랑거리가 많은 마을입니다.

애기소는 어때요?

폭포가 있고 수심이 깊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름에 애기소에서 하루종일 놀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자리를 잡아야 마음대로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휴식 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입니다.

대천마을의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원아파트가 재개발 되는 것을 보면서 기존 마을 모습이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반대편 대우아파트가 완공되는 것을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변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세월의 변화, 시대에 맞추어 대천마을도 변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동원아파트가 완공되면 확 달라진 화명2동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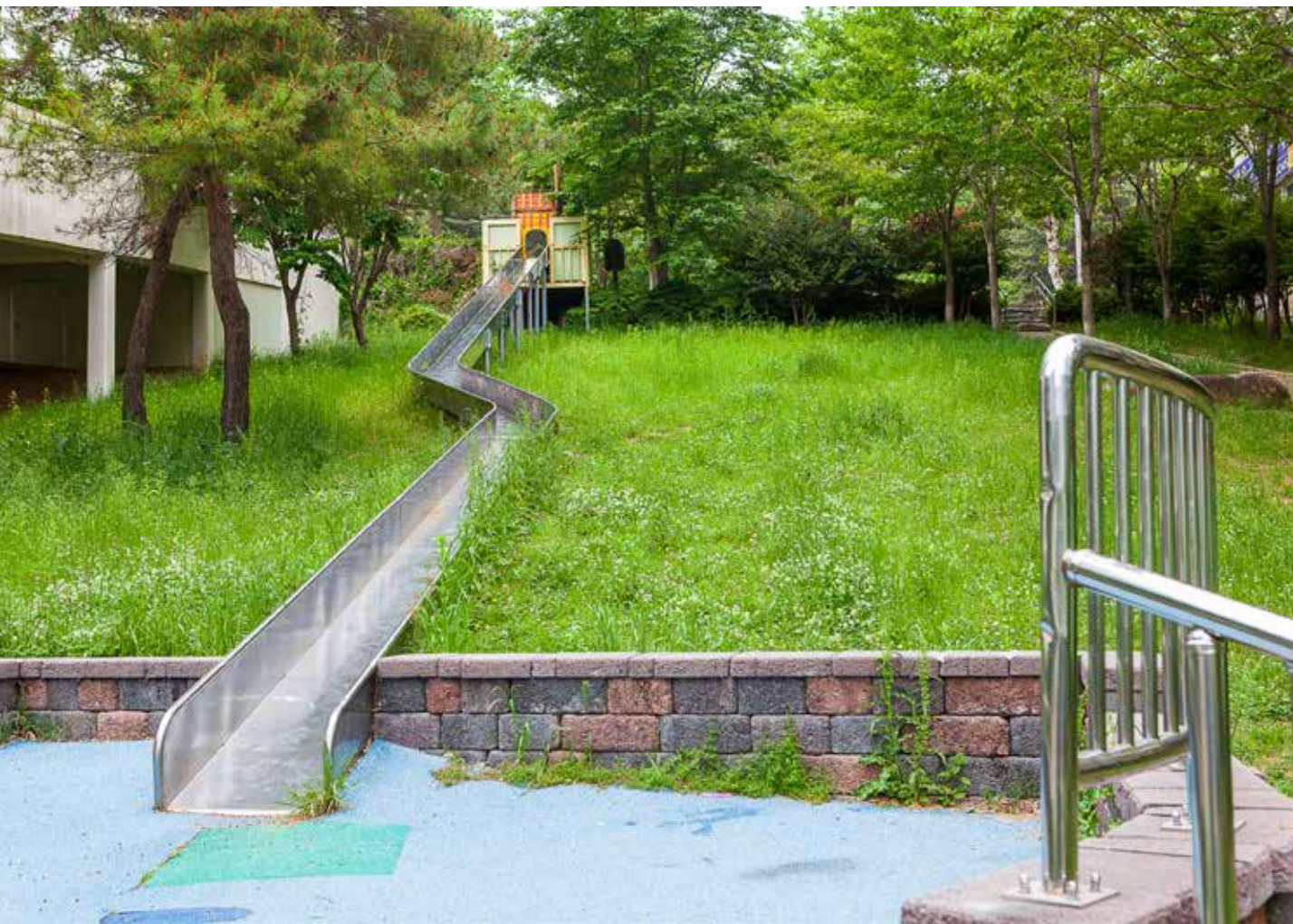
대천천네트워크 활동을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청춘을 바치다시피, 미친듯이 10년을 봉사했던 대천천네트워크를 그만두니 시원섭섭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단체에서 “함께 일하자”, “같이 일하자”, “도와달라”는 메시지에 대천천네트워크에서 일 할때 도와준 언니, 친구, 동생들이 있는 단체에 합류했어요. 제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여기서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어느 단체에 소홀함 없이 시간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이제 내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 노후를 책임질 일, 고령화 시대에 일하는 여성으로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월급받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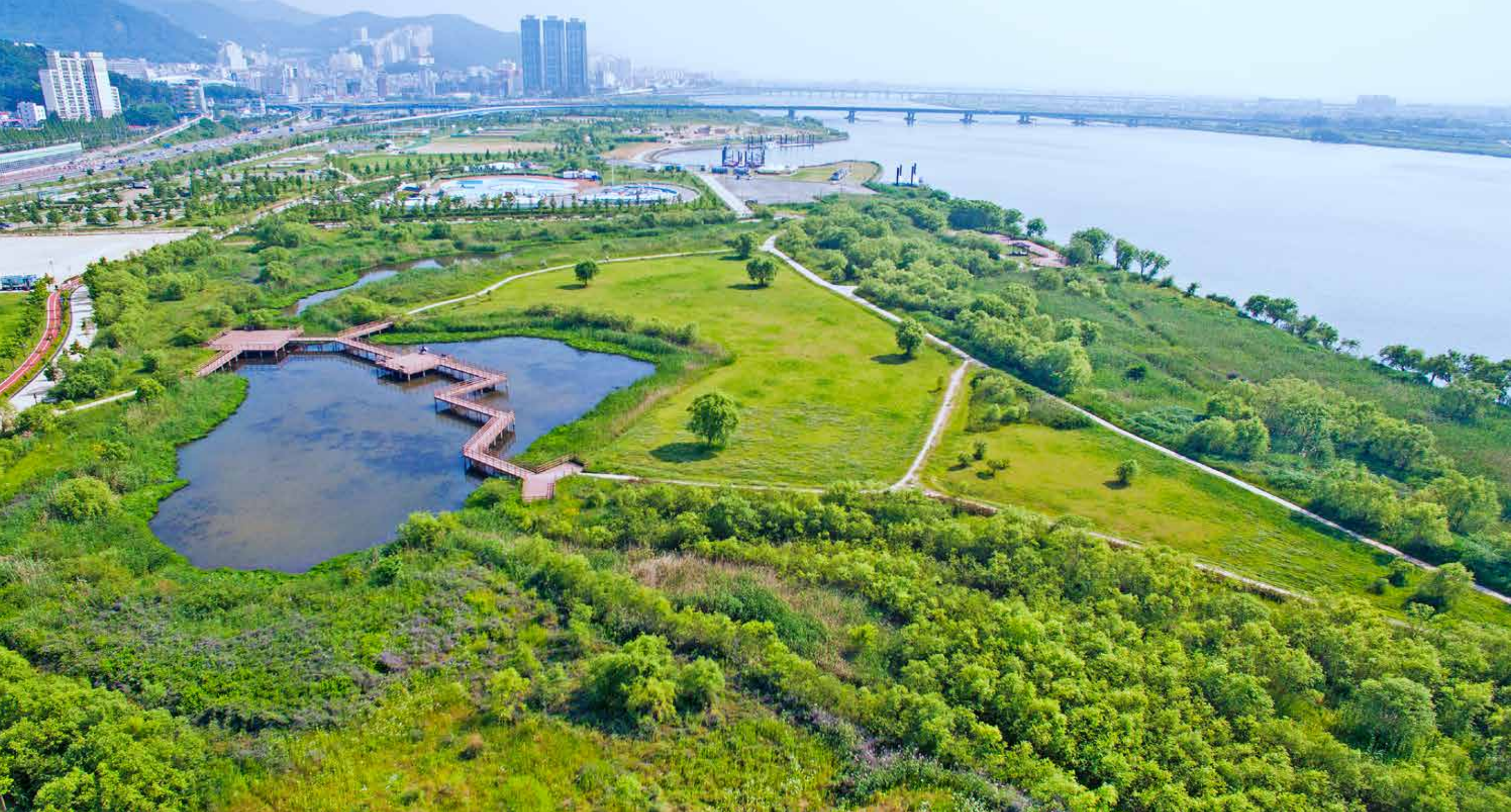
가족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른과 함께 지내면서도 남편과 아들과 딸이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어서 마을 일과 집안일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마을 일에 열심히 참여했던 게 살면서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마을 주변 샘지공원(2022년)



금정산 데크 모습(2022년)



전국에서 최초로 개장된 생태공원인 화명생태공원 전경 | 북구



대천천을 중심에 두고 형성된 대천마을의 모습(2022년)

05

마을의 미래, 나의 미래

대천마을에서 25년을 사셨는데 향후에도 계속 사실 생각입니까?

네. 저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고 뼈를 여기에 묻을 생각으로 대천마을에 살려고 합니다. 시아버님도 여기서 돌아가셨고 딸과 아들이 초중고대학교를 여기서 졸업했고요. 딸은 결혼을 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신랑하고 둘이서 건강하게 삶이 정리가 될 때까지 살지 않을까 싶네요. 봉사도 하면서요.

대천마을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10년 후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10년 후엔 마을 주택이 있을지 없을지, 마을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전할 것 같아요. 조용한 도심 속의 시골마을처럼... 마을은 그대로 있는데 마을 사람들 모습은 변할 수도 있겠어요.

대천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아이들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청정지역인 대천마을에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추억을 만들면서 마을지킴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대천마을로 해가 딱 안으로 들어가고
하천이 흐르면서 살기는 그래 좋지요.
모든 게 다 조건이 좋아요

”

03

정홍길



정홍길

- 1941년 대천마을 출생
- 4H, 지역개발계, 통장 등 활동
- 창원 정씨 문중 회장 역임
- 현 대천마을 노인회 회장



구술자 정홍길과 함께 구술에 참여한 마을회장 양영간(오른쪽, 2022년)

정홍길은 1941년 7월 대천마을에서 태어난 마을 토박이로, 현재 대천마을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천마을에 두 번째로 들어온 창원 정씨의 후손으로, 양달마을에서 출생한 그는 사업으로 잠시 나가 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마을에서 쪽 살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6·25전쟁을 겪은 그는 당시 금정산에 살던 공비(共匪)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은 마을이나 학교의 분위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기도 하였는데, 학교에 군부대가 주둔해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야외 개울가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그에게 있어 대천천은 추억이 많이 깃든 장소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야말로 놀이터를 대신하였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소먹이, 땀감 줍기 등 대천천을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농사일을 거들었다. 또 대천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홍수와 복구 작업을 기억하고 있다.

대천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 주민들은 호롱불로 생활하였다.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송당걸'이라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수도 역할을 대신하였다. 새마을운동사업과 함께 대천마을의 초가지붕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도로 길 역시 포장도로로 넓게 확장되었다. 한편, 마을 위쪽에 위치하고 있던 채석장의 돌은 김해 대동 운하 공사에 쓰이기도 하였다.

정홍길은 정씨 문중 일을 비롯하여 통장, 4H, 청년회, 새마을금고 등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서 활동하였다. 또한 화명포럼, 대천천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아파트 세대의 유입으로 새로운 이주민들과 토박이들 간의 융합이 어려워졌다. 토박이들의 수적 열세는 점차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과 토박이들 간의 유리화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토박이들은 현재 마을 노인회와 노인정만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 정홍길은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대천마을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지만 자연환경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을 중앙에는 하천이 흐르고 그곳을 중심으로 공원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

01

자기소개 및 출생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41년 7월 10일생으로 81세입니다. 고향은 대천마을이고 지금은 마을 노인회 회장입니다.

대천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어요.

대천마을에는 우리 창원 정씨가 8대조부터 있어왔어요. 한 200년 되었습니다. 원래는 재실이 있었는데 지금 이름은 없고, 작년에 주공에서 3지구 개발할 때 철거되어서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재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태어난 곳을 지대로[제대로] 얘기하면 대천 양달마을¹입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갔을 때 빼고 마을에서 죽 살았습니다. 창원 정씨가 그전에는 제법 많이 살았어요. 한 열 몇 집 살았었는데 지금은 다 나가고 없어요. 마을 어르신 중에 현재 살아 계신 분은 없어요. 나보다 항렬 높은 사람도 없고 지금은 다 객지에 있습니다.

02

6·25전쟁의 흔적과 성장기의 기억

초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6·25전쟁이 나셨다고요?

제가 3학년 때 6·25가 났는데, 6·25 때 공비들이 여기 금정산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공비들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밤에 어른들 찾아와서 잡아가니까네[잡아가니까는], 부엌에 숨고 막 이랬죠.

¹ 대천마을은 대천천을 사이에 두고 양달마을과 응달마을로 나누어진다.

사건도 있었어요. 동네에 공비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 밑에 있던 곡물 창고를 불 질러 빼리고[질러버리고]... 공비들이 금정산에 출몰하면서 양산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밤늦으면 온 마을에 다 포진해서 곡물을 훔치고 그랬습니다. 공비 잡으려고 수도 사단의 백골 부대에서 내려와서 (공비를) 잡았어요. 그때 학교에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야외 개울가에 나가거나 여기저기 땡기면서[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화명초등학교와 관련된 다른 기억은 없으십니까?

화명초등학교 건물 신설할 때, 책걸상이 없어서 바닥에서 공부하기도 했어요. 또 개와[기와]도 좀 나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겨울이면 냇가가 얼어서, 썰매를 만들어서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놀기 좋았어요. 또 눈에도 물이 얼기 때문에 거기서도 탔지요.



화명초등학교 옛 모습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화명공립국민학교 1회 졸업식 모습(1949년). 1996년 화명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경부선 철도에 선 마을주민①과 부업으로 키웠던 돼지②. 오른쪽 사진의 주인공은 구술자 윤인자의 시어머니이다.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대천천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 | 복구

구포하고 가까워서 교류가 많았겠어요?

저는 구포중학교를 통학해서 다녔어요. 비포장 길은 먼지도 나고 비가 오면 질고 하니까 철길로 많이 댕겼어요[다녔어요]. 기차가 내려오면 피하고 또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녔습니다.

여기서 구포로 나가는 건 도시에 나가는 것과 같았어요. 거의 10리 길을 걸어갔는데 구포는 도시였고 여기는 농촌이었지요. 우리는 구포시장에 항상 의지해서 살았어요. 구포시장은 오일장이라서 장날이 되면 갔습니다. 구포시장이 중심 장(場)이라 김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부산에서도 와서 다 사 갔어요. 저 멀리 대구, 울산, 경북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열차에 싣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우리는 쌀을 구루마[수레]에 싣고 가서 팔고 그걸로 고무신도 사고 고기도 사서 다시 구루마에 싣고 왔어요. 나무도 해가서 팔고 보리쌀을 사 오고요. 뭐든 가지고 10리 길을 걸어가서 팔고 그 돈으로 음식이나 고기를 사 왔어요.

예전에 대천마을에는 소랑 돼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소는 주로 농사짓기 위해 키웠고 돼지는 부업이지요. 많이는 아니고 한두 마리씩 키웠습니다. 돼지를 자전거에 태워서 구포로 팔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전거로 다 장사했습니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도우셨어요?

마을의 하천부지에서 대부분 채소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옛날에 큰 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기 운동장²이 있는 데가 전부 하천부지였거든요. 거기에서 채소를 많이 지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농사짓는 거 도와주고 산에 나무도 하곤 했습니다. 소가 일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소가 놀 때는 소를 먹이러 다녔어요. 겨울에는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온돌방이기 때문에 겨울에 나무를 자발적으로 해가[해서] 나무를 땀어요.

나무할 때 몰래 소나무 가지를 치뿌리고[치고] 큰 줄기를 가지고 와서 집에 재어놓고 땔감으로 썼거든요. 그때는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하니까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그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나무를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원래 김해 사람들이 나무하러 많이 왔었거든요.

대천마을에 물난리가 크게 났었다고 들었어요.

1969년도 9·14 폭우입니다. 당시에 철로 된 다리가 양자·음지³에 서너 개 정도 놓여 있었어요. 학교 다리 그런 건 없었고... 그때 철로 된 다리⁴가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서 없어지고 그랬어요. 1959년도 사라호 태풍⁵은 너무 심했습니다. 개울가 변에 물이 다 넘쳐서 난리가 났었지요. 홍수가 나고 낮은 곳에 있는 집은 다 잠기고 그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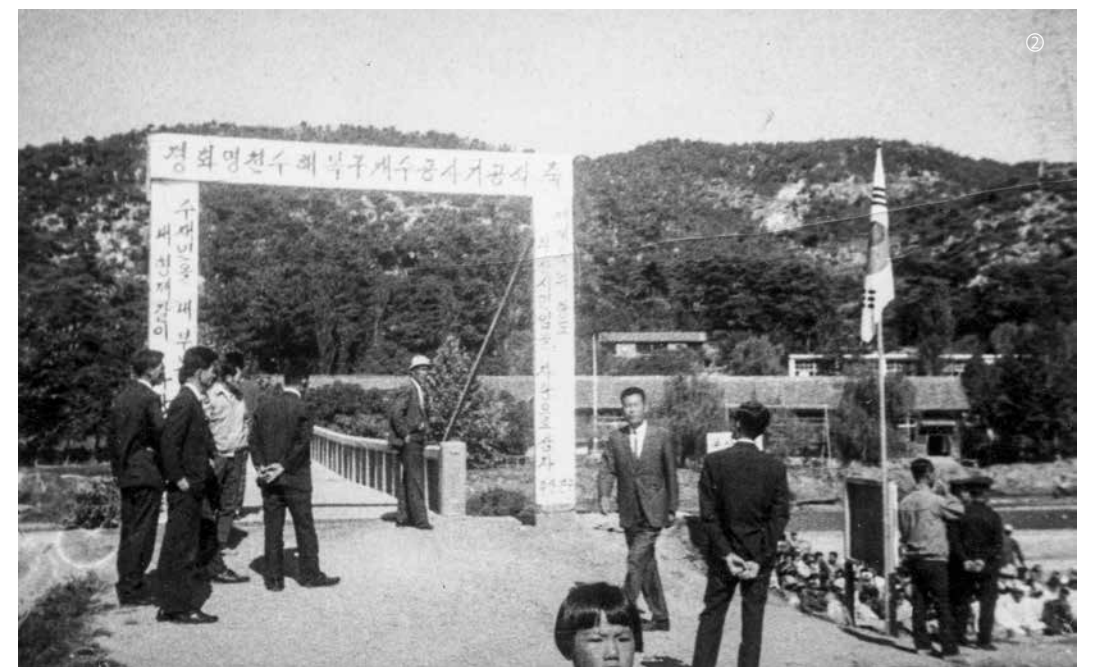
우리 집은 바로 하천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집에 물이 들어오는 건 다반사였어요. 1년에 한 몇 번은 물이 지나가야 했지요. 많을 때는 방에까지 보통 물이 들어왔는데, 사라호 때는 집 처마 밑에 까지 물이 다 들어왔단니까요. 그래서 사다리 끌고 뒤에 있던 담을 타서 급하게 피란가고 그랬어요. 여기 후미 쪽에 살 때는 좀 어려웠지요. 곡식이고 뭐고 싹 다 물에 켜 버리고[빠져버리고] 남은 건 집 빠가지[빠대]만 남았어요. 그래서 복구하는 데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지요. 곡식이고 뭐고 싹 물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² 화명동 1718-10에 위치한 화명운동장(혹은 구민운동장)을 의미한다.

³ 각각 양달마을, 음달마을을 뜻한다.

⁴ 대천교를 뜻한다.

⁵ 1959년 9월 12일에 괌에서 발생한 태풍이다. 한국의 경우 최대 명절인 추석날에 한반도를 강타하였는데, 특히 경상도에 큰 피해를 남겼다.



큰 비가 온 뒤 양달마을 앞 대천천①과 수해복구개수공사 기공식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복구는 우리가 자체로 했어요. 그때 정부 지원으로 연탄 50장인가 받고 다른 건 없었어요. 대부분 이웃이 도와줬는데 여기는(대천마을) 올라고[오려고] 해도 비가 오모[오면] 도로가 거의 파괴가 많이 되뿌려서[되어버려서] 차도 못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통 관계가 첫째로 어려우니까 오고 가고 하는 일에도 힘이 많이 들었죠.

어릴 때는 어떤 여가생활을 했나요?

우리는 강으로 놀러 많이 갔어요. 게도 잡으러 가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요. 강가에 있는 하천 부지에서 농사일 도우면서 땀 흘리면 강에 가서 목욕도 했지요. 그 당시에는 재첩을 잡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용당마을 앞이었는데, 재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채로 끌면 그냥 다 올라왔어요. 4월이 되면 재첩을 많이 잡아서 그걸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리어카 끌고 가서 잡아 오기도 했어요. 여름 재첩이 깨끗하고 알도 굵고 맛도 참 맛있었거든요. 물이 깨끗하면 재첩이 많이 나왔어요. 낙동강도 그때는 물이 참 좋아서 당시에 은어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물을 딱 치면 은어가 막 올라왔어요. 대천천 여기도 전신에[전부] 고기고 그랬지요. 깨끗하니까 바로 삶아서 고추장에 딱 찍어 먹는 거지요. 어릴 때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강가에서 시간 보내고 놀았어요. 강에서도 놀고 마을 개울가에서도 놀고요.

그 외에 다른 놀이는 없었나요?

어릴 때는 전부 어려우니까 먹는 게 귀했지요. 여자 친구들, 남자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서로 쌀을 조금씩 빼돌려서 떡을 해 묵었어요[해 먹었어요]. 라이터 불을 켜서 뽕튀기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마을에 노는 장소가 있었는데 매일 저녁에 거기에 다 모이가[모여서] 놀았지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여서도[여기서도] 영화를 볼라면[보려면] 구포에 나가서 보거나 미 공보원 카는[이라는] 영화차가 와서 학교 운동장에서 영화를 틀어줬는데, 그게 유일하게 영화를 보는 거였지요. 미 공보원에서 필름을 싣고 와가 돌리는 기지요[와서 돌리는 거지요]. 순회해서 하는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많이 했어요. 지금 저기 화명초등학교 있지예[있지요]? 거기에 영화기, 촬영기(영사기)를 설치해 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지요.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행사도 많이 했어요. 그 때는 놀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 놀거나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구슬치기하고 그랬어요.

대천마을에 전기나 수도는 언제 들어왔나요?

우리는 호롱불로 살았어요. 공부할 때도 호롱불 켜고 했지요. 그 당시에 몇 년도더라? 너무 오래돼서 전기가 몇 년도에 들어온 지[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는 그 당시에 개울물이나 우물물 묵다가[먹다가], 1971년도에 우리 마을에 ‘송당길’ 카는 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간이상수도였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먹었고 그다음 1973년도에 부산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받아서 연장해서 먹었지요. 이걸로 먹다가 1998~9년도 8월경쯤에 폐쇄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주민들이 많이 놀러 가고, 계곡으로 관광도 많이 와서 물이 추저워졌어요[지저분해졌어요]. 오염이 많이 된 거죠. 산성 동네에서는 오수가 막 내려오고 그래서 부산시 사업소에서 불합격 통보가 오기도 했습니다. 또 피브이씨(PVC) 관이라고, 이 관이 오래되니까 자꾸 파손이 나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치려니까 허가가 안 나고 힘도 들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교체하라고 통보가 오고 하니까 8~9월쯤에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전부 상수도를 씁니다.

새마을운동 시절에 대천마을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윤주익 씨가 새마을운동 당시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하사금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객지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찬조금을 받았고 대신 여기 살은[사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부역을 해가[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산성도로도 사업으로 만들었고, 초가집은 기와나 슬레이트 집으로 다 바뀌었죠. 좁은 마을길은 넓혀서 리어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넘의[남의] 담을 으개가면서[부수어가면서] 길을 내서 만들었지요.

반발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잘 살기 운동 캐갖고[이라고 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새마을 사업했으니까요. 내 땅도 양보하고 그랬어요. 도로도 길을 넓혀 주고 슬레이트가 들어와서 초가집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아주 활성화가 되었지요.



산성터널 입구 모습(2018년). 구술자에 따르면 이 인근에 채석장이 있었다고 한다.

04

경제활동과 마을활동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나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하천부지에 채소 농사를 지었고 겨울 되면 나무를 해야만 또 겨울 생활을 하니까 나무를 때고요. 1963년도에 군대 갔다가 28살에 좀 늦게 장가를 갔어요. 그 때 농촌 생활을 하다가 1970년도 초에 나도 장사한다고 좀 나갔다 오기도 했죠. 2010년 정도에 마을에서 슈퍼마켓을 했어요.

내가 하천 시대보다 낮은 곳에 살다가 높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밑에 사니까 홍수가 나면 집에 물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물귀신이 되겠다 싶어서, 겁이 나서 내가 1988년도에 지대가 높은 땅을 사서 도로가 쪽에 집을 지었어요. 여기서 30여 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가서 장사를 한 번 했는데, 왜 나갔나카면[나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여기 3지구 주택 개발 양달 지역에 그린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 땅이 다 달아나고[없어지고] 해서 농사지을 땅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보상받아서 집을 새로 짓고 다른 데로 나갈 사람은 나가고 했지요. 나는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집 세주는 걸 한 5~6년 했어요.

대천마을과 관련된 활동은 어떤 걸 하셨나요?

내가 (창원) 정씨 문중회장을 한동안 맡아서 했어요. 그때 내가 중가가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고 몇 분 안 살아계셨고요. 대천마을에는 정 씨가 열 집 넘게 살았어요. 윤씨가 월등히 제일 많고 그다음 정씨 문중이었었는데, 다 사이 좋게 지냈어요.

이 외에도 내가 마을 일을 이리저리 한 거는[한 거는] 많죠.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젊을 때부터 마을 일은 전부 다 했죠. 4H부터 청년회, 또 새마을금고도 댕겼고요[다녔고요]. 그리고[그리고] 나서 청년회 회장 일을 제가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쪽 마을에 봉사, 감사, 돈에 대한 관리를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그러다가] 최규하 권한대행 할 적에 하사금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산성마을에 도로를 만들 때 봉사활동을 했어요.

마을에 채석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채석장이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동네만 해도 한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었어요. 돌 깨는 사람이 있어서 차에 싣고, 트럭이 실어 가고 담고 쌓고 막 이랬지요. 제방 쌓는다고 돌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김해 운하 댐 공사⁶한다고 여기 돌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산에서 돌 깨서 실어 나르고, 길이 없어서 대천천 도랑 위로 트럭이 막 다니고 그런 게 생각납니다.

그때 저희 삼촌이 채석장을 사 가지고, 주로 우리 문중 산에서 채석장을 많이 했지요. 마을에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일했는데, 돌 깨는 사람도 있었고 돌 올려서 차에 싣는 사람도 있고요. 이 동네에는 석공이 별로 없어서 외지에서 많이 왔었어요. 나는 석공일은 문하고[못하고] 돌 싣는 감독을 좀 했지요.

⁶ 1967년 3월 31일 준공한 대동 운하를 말한다.

쓰레기 소각장은 권익(權翼) 씨가 구청장⁷ 할 적인데, 소각장 할라고[하려고] 화명동에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라고[그리고] 나서 화장장도 이전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금곡하고 양산 경계에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때 추진위원을 맡아 하라캐서[하라해서] 구청에 댕겼지요[다녔지요]. 그때 “그런 것은 못하겠다”, “낙동강을 이용 할 거다”, “도로로 이용 안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돼서 결국은 결사반대했죠.



1990년대 중년 시절의 구술자 모습 | 정홍길 제공

청년회 활동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주세요.

마을개발계(지역개발계)라고 내가 화명2동 개발요원할 때인데, 요즘은 자치위원이라고 하지요. 우리 마을 개발할 적에, 창립할 때는 저보다 위인 윤희수 어른들 세대 분이 먼저 하셨고 그 뒤에 해방 지나고 우리가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한 거예요]. 당시에는 청년회랑 개발계가 따로 있었는데, 청년회도 윤희수 씨 어른들(부모님들)께서 살아 계실 때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청년회 회장을 잠깐 동안 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개발계라는 게 마을을 개발하는 거였고 청년회도 두루 다 같이 하는, 협조 하에 하는 거였죠. 우리 마을에 새마을운동 당시 제일 첫 지도자가 돌아가신 윤주익 씨거든요. 윤희수 씨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 양반이 전라도 광주 가서 하사금을 타 와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고 마을에 여유 있는 사람들, 시내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쪼매씩[조금씩] 찬조를 받고요. 이 마을에 살던 현지 사람들은 노동일을 해서 집을 건립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주로 노인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나요?

그렇죠. 다른 건 이제 다 났고 또 나이가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사퇴해야죠. 경로당은 저기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2006년도에 구청에서 지어줬어요. 원래는 남녀같이 쓰게 되어 있었는데,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남자 회원들은 주로 여기서만(경로당) 지내요. 회의할 때는 마을회관에서 모일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문을 잠가놔뽀렸죠[잠가놔 버렸죠]. 개

⁷ 1995년,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북구청장에 당선되었다.



2000년대 중반 대천경로당 모습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2007.

방하되, 책임제로 했거든요. (노인)회장들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니 회장들이 열라카겠어요[열려고 하겠어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있어야 하니 불편해서 아예 안 열고 있지요.

노인회에서는 행사나 교육이 있으면 하고, 간단한 놀이나 체육 같은 거 합니다. 그 이외에는 그냥 모여서 담소 나누고 시간 보냅니다. 근데 (지금은) 밥도 사 묵지도[사 먹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지요. 애로점이 뭐냐면 나가[나이가] 많아서 자기도 음식 해 먹기 싫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젊은 사람은 젊으니까 안 들어올라 카고요[하고요]. 누군가가 하긴 해야 하는데 거기 에렵습니다[그것이 어렵습니다]. 다 나[나이] 많은 사람뿐이지요.

화명포럼 활동도 하셨어요?

화명포럼에 참여했지요. 포럼에 왜 드갔나 카면[들어갔나 하면], 고속철, 터널 사갱공사 때문에 일 한다고 들어갔지, 포럼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이후에 대천천네트워크로 바뀌면서, 기존 사람도 참여하고 새로 들어온 아파트 사람도 다 같이 참여했지요. 근데 지금 거기는 기존 사람들이 다 빠졌고[빠졌고] 활동을 안 해요. 오히려 아파트 사람들이 활동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 사람들도 같이 융합하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와서 분열됐어요. 거기(대천천네트워크) 행사하면 거기 행사 따로 하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하지요. 토박이들은 토박이대로 그냥 안 좋아해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세대의 유입과 토박이의 유리

대천마을로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옛날에는 한 식구 같이 살다가, 많은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인심이 많이 야박해졌어요. 그때는 대천마을에 한 130~150세대가 살았어요. 다 친구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조그만 단지만 해도 몇백 세대고 1,000세대고 캐사이[하니까], 사람들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한 동네에 같은 형제처럼 모여서 살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그런지 토박이하고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랑 융합이 잘 안 돼요. 모임도 잘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요. 뭔가 벽이 생기면서 따로 떨어지려고[떨어져버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는 융합이 잘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기존 마을 사람들은 거의 안주하고 있는 기라요[거라요]. 그래서 연결이 잘 안되고 또 무엇보다 기존 부락의 토박이들이 잘 없지요. 사람이 없어서 아무래도 열세에 놓이니까 힘들죠. 아파트 사람들이 인원도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그쪽으로부터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토박이들이 하는 마을 활동은 없나요?

줄어들고 있죠. 요새는 재개발카고[재개발이라고 하고], 재건축해사면서[이라고 하면서] 개발 붐이 일어나니까 기존 동네 사람들이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 사람들이(이주민들) 인원이 많아지니까 모든 주권을, 활동을 무조건 다 뺏기 뺏겨[다 뺏겨 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새로 온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사 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재개발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토박이들이)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경로당도 아파트 쪽에 다 있으니까 그쪽 회원 되뿌면[되어버리면] 마을에서는 다 빠져나가 버리지요. 이제 몇 사람 없어요.

이전에 비해 토박이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그렇죠. 나는 토박이들이 계속 마을에 살면서 마을을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수가 적으니 위축이 되지요. 결혼해서 다 나가고 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독립해서 나가고 부모들만 남아 있

고... 토박이들이 수적으로 열세고 아파트 주민들 인원이 많으니까 위세를 가집니다. 그 사람들이 뭐든 다 만들어서, 모든 간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니까 우리 토박이들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럴 기운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옛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나이가 다 많으니 협조가 안 되죠. 한마디로 관심도 없고 협조도 안 되니 참여도 안 시키는 거죠.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대천마을의 살기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살기 좋은 거라면 옛날이 좋았지요. 대천천이 있고, 대천천을 가운데 두고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원래 마을은 낙후되어 있고 도로변 쪽만 발전되고 있어요. 교통 관계라든지 땅 시세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마을)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네[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다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안으로는 안 들어올라카지요[안 들어오려고 하지요]. 만약 대천마을이 다른 험한 동네 같았으면 개발 제한을 풀어서 개발을 하면 됐을 텐데... 여기는 대천천만 좀 닦았다면[정비되었다면] 살기가 좋을 텐데요. 대신에 낙동강 주변에 농사짓던, 그 농약오염이 심했던 곳이 모두 공원화되면서 자전거 도로도 생기고 걷기 좋은 공원이 만들어졌지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화명동에, 그러니까 대천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화명동에 많이 올라카지요[오려고 하지요].

반대로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천마을로 해가 딱 안으로 들어가고 하천이 흐르면서 살기는 그래[너무] 좋지요. 모든 게 다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생활하는 데는 교통 관계가 나쁘죠. 들어오는 버스 노선도 얼마 없고 지하철도 멀어요. 그래도 요새 젊은 세대는 대부분이 자가용 세대니까 좀 괜찮지만 나이 든 사람은 걷는 시간이 많아져서 좀 불편하지요.



대전천변 산책로(2022년)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가장 큰 강점이
아이를 기르는 역할과 더불어서
부모를 기른다는 거예요

”

04

이귀원



이귀원

- 1961년 통영 출생
- 1968년 부산으로 이주하여 모라동 거주
- 1999년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참여
- 2002년 12월 대천마을로 이주
- 쿵쿵어린이집, 징검다리농는아이들, 대천마을학교, 마을밥상협동조합 대표 역임



구술자 이귀원 모습(2022년)

이귀원은 1961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형의 학업을 위해 모친과 함께 부산 사상구로 이주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다.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여, 언더서클 활동을 하며 야학을 통해 노동자들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강사생활을 하던 중, 공동육아협동조합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대천마을에 이주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중학교 후배 소유의 화명동 4층 건물의 1·2층 부지를 얻어 1층에는 ‘쿵쿵어린이집’을, 2층에는 ‘징검다리농는아이들’을 운영하였다. 화명동은 주로 중산층이 밀집했던 지역이었기에 이전과 달리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또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컸기에,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그는 이 ‘대천마을학교’의 ‘교장’(대표)으로 활동했다.

그는 대천마을 내에 경제공동체 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목적 하에 마을밥상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조합은 현재 ‘네이버 밴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대천마을 주민들을 연계하여 유지되고 있다.

이귀원은 화명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명포럼에 유일하게 외부인으로 참여하였다. 2003년 아파트 건설 반대 투쟁과 2004년 고속철도 사궤공사 반대 투쟁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2004년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될 당시 운영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화명2동은 다른 마을과 달리 기존 토박이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따라서 대천마을의 옛날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으나 계속되는 아파트 개발로 인해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에 이귀원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현재 이귀원은 대부분의 실무에서 은퇴하여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소개 및 대천마을 입주 이전의 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61년에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고요. 여덟 살 때 부산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대천마을에 들어온 것은 2002년 겨울이었고요. 가족은 아내와 딸 하나 아들 하나 요렇게 두 애를 기르고 있고요. 직업은 없어요. 백수입니다.

부산에는 언제 들어오셨나요?

저는 아버님이 교편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교사 사택에서 살았는데. 여덟 살 때 저보다 다섯 살 위의 형이 한 분이 계신데, 그 형이 당시 부산중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형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부산으로 이주를 해 들어오게 된 거지요. 아버지는 멀리 발령을 받아서 교사 사택에 혼자 사시고요.

초등학교는 김해 생립초등학교에 아버지가 교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마칠 무렵 겨울방학 다 되어갈 무렵에 사상에 있는 모라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모라에 여덟 살에 가서 마흔두 살 될 때까지 쭉 살았습니다. 중학교는 구포중학교를 제가 2회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북구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북구와 사상구 전체 통틀어서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면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갔고 졸업하고 바로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신 것은 어떤 역사적인 소명의식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소명의식은 없었고요. 어릴 때 형이 부산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버지께서 입학 선물로 사전을 사주셨어요, 형한테. 세계인물사전하고 한국인물사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4학년, 5학년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놀 놀고 그랬어요. 늘 그 책을 보고 그 책에 있는 글 가지고도 막 정리를 하고. 그렇게 늘 그 책을 가지고 끼고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와 이 집에 사학자가 났네”, 그러곤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이 재미 있는 것만 공부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 때부터 사학과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별달리 그런 어릴 때의 생각을 뒤바꿀 만한 일들이 없어서 그냥 쭉 그렇게 사학과를 가게 된 거죠.

대학생활은 어떠셨나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사학과 수업은 참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클이죠. 처음에는 공개서클이었습시다만, 그때 5·17 계엄이 일어나가[일어나서] 광주항쟁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하서클, 언더서클 하면서 야학을 했는데 그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죠. 야학해서 노동자들 만나고 서클에서 하는 사회과학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그때는 교수님이 내 성별을 모를 정도로, 출석을 부르는데 “애가 남자야 여자야?” 그렇게 묻곤 하셨나? 수업을 통 안 들어가고 해서 한 학기에 권총을 다섯 자루 정도씩 차고¹ 그렇게 하다가, 3학년 올라가면서 대학원, 연구자로서의 삶을 지향하면서부터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대학원 내에서는 박사과정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료까지는 했는데 논문은 못 썼어요.

그러면 그 뒤에 진로를 어떤 식으로 정하시게 되셨습니까?

진로를 안 정했어요. 대학 석사하고 나서 강의 다녔죠. 그러다가 39살, 내 첫째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공동육아협동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또 첫 번째 조합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 연구는 뒷전이고 마을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재밌게 지내다가 20년째 마을의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지냈죠.

¹ 1980~90년대에는 F학점을 받는 것을 ‘권총을 찼다’고 표현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과 참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되었나요?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1999년도 덕천2동에 있었어요. 낙동고등학교 옆에. 거기서 쿵쿵어린이집을 설립한 거죠. 그러다가 2003년 봄에 화명동으로 터전을 이전했죠. 나는 당시 99년도 초 2월쯤인가 그때 공동육아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난 계속 본가(모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금곡동에 사시는 한 분이 보육교사셨는데 그분이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두셨는데 자기 아이가 네 살쯤 되니까 공동육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당시에 부산 한살림²의 조합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살림 조합원 명단을 보고 그 가운데 북구와 사상구에 사는 젊은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그때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사상구도 마찬가지로 북구도 그렇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하면 마당이 넓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마당 넓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북구하고 사상구 전 지역을 살살이 뒤졌죠. 혹시라도 좀 그래도 괜찮은 집이 있을까, 하고 하다가 정말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그나마 약간의 마당이 있는 집을 어렵사리 하나 어쨌든 구했는데 그게 마침 덕천2동이었던 거고. 조합원 중에는 사상구 모라에 사는 집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패법동에 사는 집도 있었고. 북구도 구포, 만덕, 덕천 뭐 금곡, 화명 온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초기에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의 터전이 거기 있었다는 거고 조합원들의 거주지는 제각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2003년에 터전을 화명동으로 옮겨요. 터전을 옮기면서는 뽕뽕이 흩어져 있는 가구들이 이제 다 터전이 있는 화명동으로 이사를 해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도 2002년 겨울에 오게 된 것이지. 그래서 겨울에 저는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선뜻 응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부산 한살림의 조합원이기도 했고 김종철 교수님이 발행하는 『녹색평

²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덕천2동 시절 공동육아협동조합 활동 모습 |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쿵쿵어린이집 활동 모습(2022년)

론』을 구독했었고 또 생태주의에 상당히 좀 경도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집을 보 내긴 해야 돼요. 애가 두 돌 지났을 때 모라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늘 마음이 좀 잔했 어요. 내가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 등원차량을 안 태우고 내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데 애는 나 랑 잘 안 떨어지려고 하지, 그러면 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애가 친구들과 좀 놀면 그때 슬 나오거나 그러고 싶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가 하루 종일 실내공간에서만 생활을 하 잤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 게다가 애가 집에 들어오면 가방 안에 학습지, 애가 그 때 당시 두 돌 갓 지났는데 수학이나 영어 학습지가 들어 있단 말이지. 원장은 자기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애 기를 하는데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공동육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를 않는 거죠. 얼마든지 부모가 아이들의 보육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나들이를 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리 트였어요. 자연 속에서 기를 수 있다는 것, 실내 공간에만 갇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이에 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공동육아는 일체의 조기 교육을, 심 지어 한글도 안 가르친단 말이지. 일체의 인지교육이 없는 그런 면이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태주의적인 가치관하고 맞는 바가 컸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죠.

03 대천마을로의 이주와 정착

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 인해 대천마을로 오시게 된 거네요.

2002년도에 중학교 후배이기도 했고 부산대학교 영문과 82학번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노동 야학을 했어요.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정보를 들은 거죠. 가가[개가] 80평³ 정도 되는, 제법

³ 약 265㎡ 정도이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대천마을로 옮긴 후 처음 정착했던 4층 건물 |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대천천환경문화센터(2013년) | 부산역사문화대전

넓은데 낡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한테 공동육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집을 빌려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개가 그 낡은 집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 다가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이거지. 4층짜리 건물을 지을 테니까 1·2층은 우리가 쓰고 자기들 은 4층에서 살기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층은 쿵쿵어린이집에서 쓰고 2층은 징검다리 놓는아이들 방과후학교가 쓰게 되었어. 올(all) 전세로 총 8년 계약해 들어가서 10여 년 이상 거 기에 살았지. 살다가 갑자기 여기 재개발이 추진이 되니까 더 이상은 세를 얻을 수가 없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저기로 이사해 들어간 거죠. 본래 있던 곳은 이쪽⁴ 양달마 을이고, 지금 있는 곳은 저쪽 음달마을입니다.

⁴ 구술이 이루어지는 대천마을학교가 있는 쪽이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까?

사실은 덕천동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쿵쿵어린이집이 덕천동에 있었는데, 아이가 크면 나가기 때문에 새로 조합원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애가 커서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런데 덕천동에 있을 때는 새로 조합원이 참 안 들어와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이 가장 주된 조합활동이었어요. 심지어 조합원들의 차량에 보면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 북구 쿵쿵어린이집 전화번호 공동육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합원 차량에 딱 부착을 하고, 그렇게 온갖 노력들을 했는데 참 안 됐어요. 그런데 대천마을로 옮기니까 마치 화명동 사람들이 쿵쿵어린이집과 징검다리농는(아이들) 방과후학교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가입을 해와서 나중에는 뭐 다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그래서 막 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볼 수 있었어요. 공동육아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약간은 중산층 육아, 적어도 정규직 맞벌이 정도의 가구들한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육아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명동이 약간 중산층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가진 젊은 세대고 직장인 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04

방과후학교와 마을밥상협동조합

방과후학교와 대천마을학교를 설립한 경위를 알려주십시오.

방과후학교는 징검다리농는아이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6학년까지였어요. 그런데 방과후학교는 언제 졸업을 시킬 거냐를 놓고 논쟁을 한 4년간 한 끝에 결국은 4학년까지만 다니고 졸업해나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하는 문제도 있고, 애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배움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니까요. 징검다리농는아이들을 졸업한 애들, 그 밖에 마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마을학교를 만



징검다리농는아이들(1~4학년) 이 대상인 방과후학교 활동 모습(2022년)



대천마을 주민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천마을학교 활동 모습(2022년)

들어보자 했지요. 대체로 어린이들은 낮이나 오후 시간 등 방과후 시간에 이용하고, 어른들은 밤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형 수업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게 제각각 다르니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줄 강사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마을에 계신 분을 물색해서 대천마을학교를 만들었죠.

재원은 조합원들이 마련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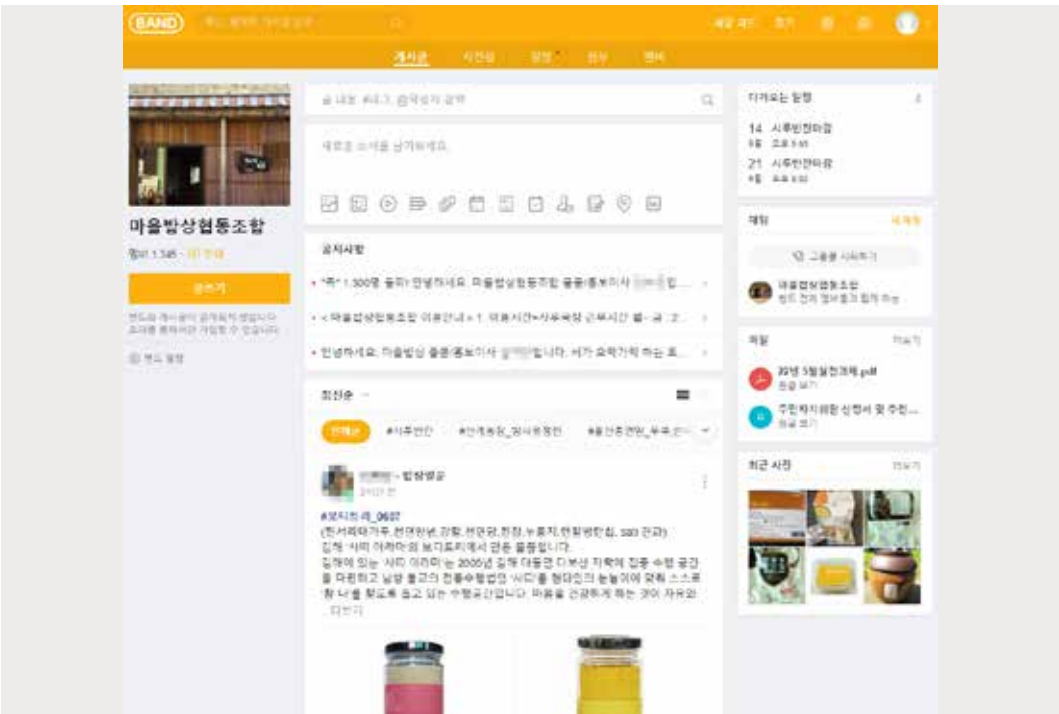
맞아요.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마을밥상협동조합은 조합이기 때문에 출자금이라는 게 있거든. 출자금으로 어린이집도 만들었고 마을밥상협동조합도 만들었죠. 대천마을학교는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만들었고. 마을에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조합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어준 거예요.

마을밥상협동조합은 어떤 계기로 만드셨나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대천마을학교에서 밥을 팔았어요. 매일 팔았던 것이 아니고 한 달에 2번 정도 팔았나? 그렇게 해서 밥을 팔았지. 처음에는 금요일 날 ‘금요밥상’이라고 해서 열었어요.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마을에 그런 좋은 밥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제기된 거죠. 믿을 수 없는 식재료를 쓰는,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밥집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거기에는 그런 안전한 외식에 대한 수요도 있었던 데다가 한편으로는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마을학교도 있고 맨발동무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사실 재정적으로는 늘 조금씩 쪼들리잖아. 그러니까 밥집을 해서 돈을 벌면 마을에 있는 교육문화단체들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데다가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그 두 가지 욕구가 맞아떨어져서 마을에 유기농 밥집을 만들자고 하는 요구가 제기되었던 거고. 그런데 그때 마침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돼서⁵ 그때 막 협동조합의 붐이 확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 생각으로는 마을에 비어있다고 생각한 게 경제공동체였어요. 본래 공동체 운동은 경제공동체가 중심이잖아요. 두레와 같



마을밥상협동조합 내부①와 외부② 모습(2022년)



마을밥상협동조합 네이버 밴드

⁵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되었다.

은 경제공동체가. 그래서 경제공동체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마을밥상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이사장이 되어서 6년 간 했죠. 그런데 1년 반 정도하고 망했어요. 적자가 너무 심해서 출자금을 다 갉아먹고 심지어는 문을 닫으면 빚만 조합원들에게 떠안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단 밥집 문을 닫고 업종을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말하자면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뭐 밴드 회원 수가 1,200여 명 될 거예요.

밥상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주로 경남 지역에 귀농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짓고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의 농산물과 더불어서 우리 마을에서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반찬이라든가 여러 가공품,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가공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물품들을 밴드에 올리는 거죠. 거기에 올리면 주문들이 댓글로 달리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어요. 판매 사업을 해서 처음 2년 동안은 이사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이제 상근자를 뒀서 월급을 줄 만큼은 되어서 이후부터는 출자금을 회복해서 그 이상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잘 운영이 돼요. 운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경제 사업이란 것은 결코 큰돈을 벌 수 는 없고. 아무리 잘 되어도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기업을 꾸리는 거는 고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현상유지만 쪽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벌려면 외부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엄청난 경쟁에 부딪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고. 마을에서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5

화명포럼과 화명2동발전위원회

화명포럼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화명포럼의 사무실이 화명초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명포럼에 관여하면 다 화명초등학교 출신이고 화명초등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거의 내가 유일하게 가서 앉아 있고. 그런데 화명동이 아파트 숲으로 바뀌었잖아요. 거의 뭐 농촌이다시피 했던 화명동이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였는데 그러면서 토박이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해 가지고 화명동이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화명동에 새로운 이주민들을 맞이해서 손잡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화명포럼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잡은 가장 중요한 게 대천천이었어요. 대천천과 관련된 심포지엄도 열고 대천천 환경축제도 만들었죠. 이렇게 한 사람이 양정현⁶이라는 사람이예요. 부산대 경영학부 출신이고 지금 대천천네트워크의 공동대표입니다.

화명포럼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화명포럼이 만들어진 그 해 2003년에 첫 번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금명여자고등학교가 있는 자리에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그때가 95년도일 거예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 자투리땅에다가 추가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알קות지 그게. 우리는 참여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저안쪽 마을에 있는 귀퉁이 땅이었고 거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건 도시그린아파트와 요 밑에[이 밑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안이었어요. 게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반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임대주택이 아니었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님비⁷적인

⁶ 대천마을 5번째 구술자이다.

⁷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뜻한다.

성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하기 조금 어려운 데다가, 문제는 그때 당시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기 때문에 더 좀 탐탁지 않았죠. 당시 그 싸움에서 싸움꾼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강호열, 지금 대천천네트워크 상근대표예요. 강호열 선생은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잘하지.

양정현 선생님과 강호열 선생님이 의기투합하신 계기는 언제,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렇게 부산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화명2동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학교가 세워질 때까지는 싸움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지요. 싸움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 조직을 유지할 필요는 있었지요.

2003년에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 이사를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명포럼이 만들어졌어요. 화명포럼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지나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화명2동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2003년에 일어난 세 가지 일이에요. 화명포럼은 젊은 토박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거의 양정현의 원맨쇼에 가까웠어요. 다른 회원들은 그냥 화명초등학교의 동문이니까 그냥 와 있는 거지. 여기에 주민조직으로 화명2동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니까 양정현하고 강호열은 나이가 같아요. 둘이 나이가 같고 둘 다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성향도 비슷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치자, 이렇게 된 거지.

06

대천천네트워크의 결성과 활동

그렇게 해서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되었군요.

처음에는 합치기보다는 새로운 뭔가 큰 단체를 하나 만들자는 거였는데 결국 그게 합치자는 걸로 된 거지. 그때 생각은 대천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그야말로 네트워크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화명포럼은 토박이 조직이고 화명2동발전협의회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주민 조직이잖아. 원래 화명포럼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뒀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손열⁸ 어르신이든가 그 밖에 좀 나이 많으신, 마을 토박이 어르신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대천천네트워크가 토박이와 이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조직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 외에도 각 아파트 대표자협의회, 각 아파트 부녀회, 청년회 등등으로 해서 새마을 관련 단체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천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대천천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단체들이 일단 참여는 했습니다. 이름을 올렸죠.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그때 갑자기 전혀 뜻밖에 소식이 날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KTX 금정산 터널이었죠. 사실 지을 스님이 천성산에서 KTX 터널 반대 투쟁을 할 때도, 그 이전에 KTX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조차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을과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본래 경부선은 어찌되었든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거긴 한데, KTX 노선은 울산을 통과해서 부산 시내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을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생각했었죠. 근데 뜻밖에도 금정산 터널을 뚫는데 중간 중간에 새끼 터널을 뚫게 되는데, 그 새끼 터널을 사갱(斜坑)이라 하거든요. 비스듬한 갱도라 해서 사갱이라고 합니다. 그 사갱이 금정산 KTX 터널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개가 뚫리게 되는데, 뜻밖에 우리 대천마을 위쪽에, 지금의 화명수목원 맞은편에 그 사갱 터널을 뚫겠다고 발표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아마 대천천네트워크 결성 당일인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본래는 사갱공사반대투쟁을 예측하고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된 것은 아니었는데, 때마침 화명2동의 거의 모든 단체들을 망라한 단체로서 결성이 되었던 말이죠. 그래서 사갱 터널이 뚫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대천천네트워크 조직이 그대로 사갱공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죠.

모든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까?

대천천네트워크는 그러한 단체들의 연합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

⁸ 대천마을 첫 번째 구술자이다.

름을 올려놔는데 그게 자기들 단체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에 일시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종류들의 조직들이 공식적으로 탈퇴한 건 아닌데 자연히 참여를 안 하게 되고 점차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 단체들의 연합체라는 성격은 사라져 버리고 개별, 개인들의 결사체로 변해갔죠. 그 이후에 대천천네트워크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법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성격이 정해졌습니다. 사갱공사 반대투쟁 때 주민들이 사갱공사 현장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사흘이 멀다 하고 대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서 반대규탄집회를 열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금정산 터널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SK건설 등 우리나라 우수한 건설업체들하고 대천천네트워크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었죠.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갱공사는 금정산 터널이 안 뚫리면 몰라도 금정산 터널이 뚫리는 상황에서는 사갱공사를 저지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제 서로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합의안을 작성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화명2동에 택지 개발을 했잖아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일단 공공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우체국, 그다음에 파출소 뭐 이런 등등의 공공기관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만 택지개발이 허가가 나죠. 그래서 화명2동 동사무소가 있고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대천천환경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본래 파출소 예정부지였죠. 313평⁹ 정도의 땅인 파출소 부지였는데 북구경찰서에서는 여기다가 파출소를 세울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져 왔던 땅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민간에 불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하필 공교롭게 2004년의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막 한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민간에 불하를 한다카네, 그러니까 일단 그 주민서명을 통해서 민간에 불하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그리고 건설사 컨소시엄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이 313평 공공용 부지가 있는데 이 땅을 당신들이 도시개발 공사로

부터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지상 3층 규모의 마을회관을 지어서 기부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이 관철된 거죠.

그렇게 지어진 게 이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건물이군요. 건물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짓기는 지었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소유를 할 거냐는 거죠. 누가 소유를 해서 누가 운영을 할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화명2동이니까 화명2동 동사무소에서 소유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 주민자치단체가 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구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동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동도 너무 크니까 동보다도 더 작은 단위가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이게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가장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인격을 갖는 건 구청이란 얘기예요. 동이라는 화명2동이라 하는 것은 법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건물,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이걸 기증을 받을 수도 없고, 구청이 기증을 받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이걸 어떤 형태로든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다가 기부를 하는 건 썩 내키지가 않는 거죠. 기껏 우리가 싸웠는데 구청에 갖다 줘? 그런가하면 구청도 받기 싫은 거예요. 이 건물을 받아놓으면 자기들이 유지·관리해야 되고 또 운영해야 되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구청도 받기가 싫고, 대천천네트워크 입장에서 구청에 주긴 또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기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대천천네트워크가 환경법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천천네트워크를 환경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 땅과 건물을 건설사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대천천네트워크는 주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본래 저 산성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금명, 대천리초등학교가 있어요, 마을 끝에. 대천리초등학교 끝나는 지점에 산성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옆에 약간의 땅,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대천천네트워크의 사무실로 썼었어요.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대천천네트워크 사무실이 3층에 옮겨왔죠. 사갱공사 반대투쟁을 통해서 대천천네트워크가 확고하게 마을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심적인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싸움을 본때 있게 진행했고 그 결과로 건물이라고 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그러면서 주민들로부터도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위상

⁹ 약 1,035m² 정도이다.



대천천환경문화센터로 옮겨가기 전의 대천천네트워크 사무실 모습(2022년)

을 확인받을 수 있기도 했어요. 또 관으로부터도 화명2동과 관련된, 대천천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천천네트워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관의 주요한 협의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죠. 처음에는 그야말로 무지렁이 조직이었죠. 화명포럼이 처음에는 대천천을 테마로 잡으면서 환경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양정현이라고 하는 개인플레이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것이었는데, 사갱공사 반대투쟁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대천천네트워크가 환경주민단체로서의 성격,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해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07

대천천네트워크의 성격과 주변 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회하고 대천천네트워크의 기능이 차이가 있나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대천천네트워크가 대신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본래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천천네트워크가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지역유지랄까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친목단체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죠.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그렇죠. 본래는 관변단체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교, 친목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을의 주요한 일들을 관여하지 못했죠. 그래서 대천천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부산시청이라든가 북구청이라든가 화명2동사무소와 주요한 마을의 사안에 대해서 협의 단체로서 역할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사교친목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공존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공존이 조금 수월했던 까닭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대천천네트워크의 상임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몇 분이 사실 대천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극히 없었죠.

대천천네트워크는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전반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까?

주민자치와 환경, 이런 식으로. 주민환경단체의, 주민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대천천네트워크는 갖고 있죠. 환경과 관련해서는 먼저 대천천 물을 맑게 하는 활동을 했죠. 대천천의 오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산성마을에 음식점들이 오폐수들을 대천천으로 많이 흘려보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산성마을의 오폐수들이 대천천으로 들어가진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생활 하수관을 내서 했죠. 그러면서 대천천 물이 대단히 맑아졌죠.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허가받지 않은 음식점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런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계속해가지고 그런 음식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 했고. 대천천이 하천폭이 너무 좁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시로 여러 가지로 대천천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로 대천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고 물론 주민들 대상의 환경활동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해마다



정비된 대천천의 모습(2022년)

대천천 환경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천천네트워크와 주변 여러 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천천네트워크가 이전에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고 맨발동무도서관도 저쪽 북구보건소 있는 그쪽에 있었고 대천마을학교는 바로 밑에 있었죠. 제각각 떨어져서 있다가 이 하나의 건물에 같이 입주해서 지내다 보니까 훨씬 가까워졌죠. 대천마을 연대회의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월 1회 있었습니다. 화명동과 대천마을이 관련된 일들은 연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했습니다. 거기는 여기 있는 세 단체만이 아니고 부산참빛학교, 북적북적¹⁰, 공동육아협동조합 등등의 화명 대천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단체들이 모여서 마을 일들을 의논합니다.



대천천환경문화축제 모습 | (사)대천천네트워크

¹⁰ '작은책방 북적북적'으로 지역 기반의 독립서점이자 독서모임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17-4에 위치한다.

대천마을에 처음 온 이후로 마을의 어떤 면이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거는 화명2동에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섰다는 거죠. 화명1·3동 그리고 금곡동은 거의 100퍼센트 아파트 마을이라 할 수 있겠지만 화명2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화명2동은 택지



대천천을 양쪽으로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그 너머로 아파트가 들어섰던 대천마을 전경(2013년). | 부산역사문화대전
그러나 2022년 현재는 단독주택 자리에도 점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단오제 행사 모습(2022년) |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조성을 할 때 본동, 본래 토박이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요걸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외곽지역에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그러니까 대천마을 본동, 즉 옛날 마을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말이지요. 어쨌든 대천천이 흐르고 그 대천천 양쪽으로는 단독주택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외곽으로 아파트들이 포위하듯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명2동은 다른 지역 동들하고는 달리 정말 마을 같다는 느낌이 드는 정겨운 동네였죠. 세대수를 따지면 화명2동은 70퍼센트 정도가 아파트 주민이고 한 30퍼센트 정도가 단독주택 거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양달 음달, 음달쪽에는 대우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

고 양달쪽도 동원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 단독주택이 거의 남지 않게 됐죠.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의논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땅들을, 낡은 집들을 사서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했다면 아파트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약간의 회한 같은 게 있죠.

대천마을에 새롭게 입주한 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대천천네트워크도 있고 맨발동무도서관도 있고 마을학교도 있고 부산참빛학교도 있고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같은 것도 있고 북적북적 협동조합 등등 마을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벌이게 되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체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기 개별 단체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스스로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는 마을에 여러 단체와 어울려서 해마다 봄에 단오 잔치를 열거든요. 또 대천천네트워크는 가을에 대천천환경문화축제를 여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러한 행사나 환경미화 활동 등 여러 가지 마을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대천마을의 여러 단체가 후속세대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여러 단체를 끌어나가는 일꾼(리더)들과 이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동조자 그룹이 있어야 하죠. 마을 단체 내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는 일꾼,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참여자는 동조자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 마을에서 이런 부류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구는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일부는 부산참빛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맨발동무도서관 등 여러 단체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마을이 가진 그나마 가장 큰 강점은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과 부산참빛학교라고 하는 두 개의 교육기관과 이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부모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대안교육을 위해서 부모들도 많은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주민 자치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일꾼으로도 참여하게 됩니

다. 꼭 일꾼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동조자로서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참빛학교가 언제까지 그런 역할을 해줄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본래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도시주민 공동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¹¹ 성미산의 경우를 보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주민 활동가들의 사관학교 같은 역할들을 해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가장 큰 강점이 아이를 기르는 건데, 아이를 기르는 역할과 더불어서 부모를 기른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아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성장하는 게 다른 어떠한 보육 기관도 할 수 없는, 공동육아협동조합만의 장점이지요. 이를 통해 주민 활동가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력을 가질 때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추진력을 가질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물론 개별 단체들, 예를 들어 대천천네트워크에서도 신규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을 한 명의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내고 있고, 맨발동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이 진행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힘든 게 있죠.

후속세대 중에서 마을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요즘같이 세계화되어있는 시대에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을에 계속 남아서 살기를 바랄 수 있겠나요?.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일부는 마을에서 미래를 그려보고, 마을에서 자기 일터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마을공동체 재생산과 유지 이런 면에서도 사실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그러니까 청년이죠. 청년의 삶에 뭔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이런 선택지도 보유할 수 있는, 자기들이 자랐던, 그리고 자기 부모 세대들 기반이 닦인 마을에서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하다 이거지. 그게 큰 가능성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이렇게 큰일을 할 수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이 자기 삶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¹¹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의 육아 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뜻한다.

“

여기가 그냥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 동네’라는 의식,
정주의식(定住意識)을 심어주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죠

”

05

양정현



양정현

- 1963년 와석마을 출생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3~2007년 화명포럼 사무처장
- 2007년 이후 대천천네트워크의 사무국장, 공동대표
- 2005~2009년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기획위원 역임



구술자 양정현 모습(2022년)

양정현은 와석마을 출신의 토박이로, 1963년 중화 양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우체부였던 할아버지 댁에서 응석을 부리며 자라, 영특하면서도 호승심(好勝心)이 강한 소년으로 성장하였다. 학급 반장과 골목대장 노릇을 하였으며 남을 통솔하는 재능이 있었다. 어릴 때는 다른 마을 아이들처럼 소를 먹이러 다니기도 하였으나, 공부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의견에 의해 집안 농사에서 손을 놓았다.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렵 사회과학 서적을 접하면서 종교 생활을 접었다. 어린 시절을 아름다운 대천마을에서 자랐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어머니가 야채 장사를 하여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

양정현은 대학시절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운동에 투신하였지만, 그로 인해 졸업 후 취업이 힘들었다. 주변의 도움에 힘입어 조립 컴퓨터 업체에 이어 울산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IMF 무렵에 회사를 정리하고 고향인 화명동으로 '귀향'하였다. 이때부터 대천마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화명포럼을 조직하였다. 화명포럼은 대천마을 토박이인 화명초등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대천천과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고 그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화명포럼이 결성된 직후 임대아파트 반대운동이 일어나 학교 건립 추진운동으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되고, 양정현은 이를 주도한 강호열과 의기투합하였다. 그리고 이후 2004년, 마을의 여러 지역 단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화명포럼 구성원의 일부는 대천천네트워크로 흡수되지 못하였고, 양정현은 이를 아쉬워하고 있다. 대천천네트워크는 대천마을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의 목소리를 절충하여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토박이와 이주민이 구별되기 보다는 이주민도 정주의식을 가지고 마을의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양정현은 화명동에 젊은 세대가 계속 이주하여 마을의 다음 세대를 이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대천마을은 아파트 단지 일변도의 개발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문화적인, 그리고 다양성을 가진 개발이 이루어져 하며, 그것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민과 결합하여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마을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출신은 와석마을입니다. 화명동에 4개의 마을이 있었거든요. 대천마을, 와석마을, 수정마을, 용당마을. 하나의 동에 부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있었는데 대천마을과 와석마을은 가까워서 다 같이 생활했었죠.

어릴 때 가정 환경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불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잘 살지도 않았고 마을에서 중간 정도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우체부를 하셨고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체부 손자죠. ‘양체부 손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을에서는 중(中)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는 중하(中下)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제가 집안의 장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초등학교 생활이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좀 아주 별났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만 5년을 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너무 잘 키워서...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선생님이 뭐라 하면 할머니한테 와서 일러주고 그렇게 했죠. 할머니가 저를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남한테 지는 걸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187cm 이래 되는 우리 반 애가 있었는데 그 애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코피를 내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싸움 1등이었죠.

교우관계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줄곧 반장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혹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봤습니까? 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지배력이 강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었고, 성깔도 있었고, 머리도 있었고, 뭐 좀 그렇게 컸습니다.

당시 학생들 간에도 차이가 있었나요?

우리 동네에도 조금 잘 사는 사람 조금 못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화명동에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물론 저희같이 대대로 살아왔던 애들하고 당시 화명동에 새로 이주해왔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대로 살던 사람들은 조상들이 가꾸어온 터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니까 농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화명동에 새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제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컸습니다. 막 어울리고 싸우기도 하고 뚜들겨[두드리] 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 당시 고아원 애들은 자기들끼리 집단력이 강했죠. 그 애들은 다 같이 학교를 오고, 숙식을 같이하니깐 단결력이 좋았죠. 저하고 어떤 고아원의 싸움 제일 잘하는 애 하고, 대충 서열이라 것 뭐 하지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애 하고 부딪치면 나머지 애들이 개떼같이 나한테 달려들곤[달려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화명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교회에는 고아원¹ 애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과 나름대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교회 내에서 다 같이 잘 어울렸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쪽 자라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옆집이니깐 교회를 한 번씩 가고 그랬고 또 초등학교 동기 여자 친구 아버지가 화명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교회 사택에 놀러 가고 거기서 성경책도 보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축망받는 학

¹ 양달마을에 있는 평화의집을 말한다.

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인생 첫 꿈이 목사였습니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1918~2018)² 같은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내가 이 나라에 기여를 하겠다, 그게 제 첫 꿈이었어요. 제가 어른으로 크는 데에는 기독교 사상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죠.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넘어 오면서 다른 책들을 읽고, 변증법을 알고 유물론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를 버리게 되었죠.

어릴 때 농사일을 도우기도 했었나요?

저는 불행히도 많이 못 도왔죠. 제 남동생이 집안일을 많이 했었죠. 제 동생이 셋인데 여동생 둘이 있고 그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여섯 살 차이가 나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집안일을 막내 남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밖에 안 된 저희 막내 남동생이 집안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소먹이고 여물 주고 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그 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중학교 진학하고는 동생이 다 했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집안일이 소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갔다 와서 들로 나가 소먹이고 저녁 되면 소 몰고 집에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계도 없고 해서 새마을호 기차를 보고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차가 시계였던 셈이지요. 초등학교 1~3학년 때는 오전 수업만 하고 일찍 들어오잖아요. 학교 마치고 나서 집에 오면 새마을호 기차가 짹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면 1시 15분이 된 것이고 새마을호 기차가 내려가면 1시 45분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기차를 보고 소를 먹이러 가죠. 그 당시만 해도 소가 집안을 큰 재산이니까 소먹이는 일이 매우 큰일이었죠.

기차로 소 먹일 시간을 알다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 화명동이 큰 국도가 있다면 옆으로 독이 있었습다. 화명동 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곡동 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로 대천천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독 안에는 다 농지죠. 그 독이 반달 모양으로 동그랗게 있었어요. 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농지를 감싸고 있던 그 독에 소를 먹이러 다녔죠. 큰 밭줄 한 20m, 30m 되는 장빠



1933년에 세워진 목조다리①와 그 너머에 보이는 경부선 철길②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긴 밭줄]라 하는 길로 독에다 소를 묶어두고 풀을 먹이는 겁니다. 오전에는 그 장빠에다가 소를 묶어 놓고 그 장빠 반경 내에서만 풀을 뜯어 먹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갔다 온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그러니까 1시 45분 새마을호가 내려가면 소 풀 먹이러, 소를 장빠에서 풀어주러 갑니다. 그 장빠 말뚝[말뚝]에 잡혀 있던 거를 풀어주어 소를 그냥 그 독에다가 방목하는 거죠. 그러면 소가 배불리 먹고 나면은 저희들이 한 5시 15분이나 5시 45분 새마을호 지나가는 것 보고, 해 질만 하면 소를 데꼬[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죠. 물론 겨울에는 저희가 여물을 썰어서 소를 먹여요. 겨울에는 소죽 끓이고 여물 먹이는 일이 큰일이었죠. 친구들과 놀다가도 시간 되면 소죽 끓이러 가는 일이 너무 힘들었죠. 여하튼 겨울에는 소죽 끓이기, 풀이 자라는 봄부터는 소먹이는 일이 저희 초등학교 때는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농사일도 했었나요?

제 아버지가 밖에 농사지으실 때는 저희도 가끔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논농사 외에 밭농사가 많았습니다, 지금 화명생태공원 그 자리가 다 고수부지 자린데, 그 자리에 개밭[갯밭]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퇴적층이라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퇴적층에 채소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그 채소를 가지고, 사실은 그 채소를 팔아 저희가 학교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² 미국의 남침례회 목사이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유명하였다. 1952년, 1973년, 1984년 한국을 방문하여 대규모 전도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1992년과 1994년에는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농사일을 거두고 있는 학생들 모습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채소 팔아 다 대었죠. 자식 네 명이 매일 가방 들고 나가니 돈이 꽤 나갈 텐데, 그 돈을 엄마가 그 개밭에서 채소 농사를 지은 걸 다라이[대야]에 싣고 부산 자유시장, 진시장에 가서 채소 팔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근교농업이죠. 그래서 채소 농사할 때는 저희 남매들도 밭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가을배추하고 또 시기마다 채소 농사를 많이, 밭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돕고 소먹이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6학년 때까지는 주로 그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좀 커서 중학교 때부터는 불행히도 공부를 좀 한다는 죄로, 아버지가 “니는[너는] 공부만 쫓 해라”해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은 잘 모르죠. 다른 우리 친구들보다 일을 많이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당시에 마을에서 놀았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수업 후 먹 감으러 가고 체육 시간에는 친구들과 가서 놀기도 하고 하던 그 대천천이 먼저 떠오르네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철사 줄, 이런 거로 막 은어를 잡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비가 오면 와석마을에서 학교 오다가 학교는 늦게 가더라도 너무[남의] 눈에 들어가 붕어를 주물러서 잡곤 했어요. 저희들은 붕어 이런 손바닥만 한 것을 맨손으로 주



금정산 방향에서 바라 본 대천마을(화명2동)과 북구 전경. 앞으로는 낙동강이, 뒤로는 금정산이 받치고 있는 대천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를 자랑한다. | 북구

물러서 잡습니다. 물론 미꾸라지 이런 거는 뜰채로 잡곤 했죠. 그런 추억들이 많네요. (마을) 전체가 저희들 놀이터였으니까. 예를 들어 포도밭에 포도 따먹었던 거, 일명 서리라 그러죠. 콩서리, 포도 서리, 화명동 와석 뒤에 가면 과수원도 있어요. 과수원에 감 따 먹고 도망가다 자빠진 그런 추억이 생깁니다. 되돌아보면 오만가지, 전부 다가 저희 장난감이었고 그렇게 놀았죠.

당시 저는 너무 좋은 자연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화명동은 앞으로는 낙동강이요, 뒤로는 금정산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명당자리입니다. 이 좋은 자연환경 덕분에 제가 어릴 때 꿈을 크게 키울 수 있었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울 수 있었고 좋은 정서를 지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친구들과 많이 놀았던 장소가 화명초등학교 앞에 독이 생각나네요. 대천천 독이죠. 거기서 책받침, 비료 포대로 미끄럼 타고 꼭 내려가 물가까지 거침없이 미끄럼 탔던 그랬던 추억... 다른 친구들 지나가면 확 넘어지게 자빠령³ 시키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³ 일부러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부산대 경영 쪽으로 진학을 하셨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자형이 고려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형님의 영향으로 『전환시대의 논리』와 『8억인의 대화』 등의 책⁴을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그리고 송건호⁵ 선생님의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 몇 권의 시각 교정용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어냈죠. 제가 학교 공부도 좀 하고 위와 같은 책도 읽고 하니 애가 좀 건방졌다 생각됩니다. 제 대학 목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고3 때 좀 노는 애들과 어울리다 보니 사고도 치고 하면서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목표한 대학에는 못 가고 부산대학교, 그나마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학과 그렇게 경영학과에 갔죠.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동아리를 찾는데 이념씨클에도 고개를 내밀고, 놀자 씨클에도 얼굴 내밀었다가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소위 언더씨클 생활을 했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지기 싫다 하면서 나름 사회과학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학과 공부는 아예 안 하고 놀러 다녔죠. 여하튼 2학년 때는 사회과학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같이 언더씨클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2학년 때 시국사건에 연루되면서 저도 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내에서 집회하고 이런 것에 저도 열심히 참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집에서 장손이고 이러니까 삼촌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동중학교 선생이었고 한 분은 저축은행에서 감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니, 두 숙부님이 저를 그냥 안 두고 휴학시키고, 그 당시 병무청에 백(back)을 써서 저를 반강제로 입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87년에 복학을 했죠. 저도 복학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었죠. 학내에 들어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노동 현장 쪽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처음에는 노동 현장 쪽으로 가서 공부했는데 제 성격상이나 체질상 학생운동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노동 쪽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머리로 식힐 겸 해인사 약수암에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해 1월 즈음인가 박종철 열사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다음 날 바로 하산했었죠. 그 때 제가 마음을 다잡고 학내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학교에 복학했죠. 복학하여 87년을 겪었고 그다음 해에 부모님 바람대로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런 활동이 취업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까?

저는 취업 못했습니다.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집 뒤에 있는 금정산에 계속 올라 다니곤 했죠. 그 당시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우리 과가 그 당시 다 취직이 다 잘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증권이 2,000포인트 올라가고 난리 났었거든. 우리 과에서 많은 친구가 증권회사로 갔고 그 당시에 진짜 취업이 잘 됐던 해인데, 취업 못 한 친구들 몇 명 중에 제가 있죠. 저는 안 받아주더라고, 거기서... 아마 운동 경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다른 우리 친구들처럼 감방을 갔다 왔다가 전과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고 했던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

그게 또 그 당시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큰 기대도 스스로 안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게 작대기를 들고 저를 찾아왔죠. “찐쌀 팔고 보리쌀 팔아가 대학 보내 뉘더니 이놈의 새끼야! 취직도 안 하고 집에 빈둥거리고 백수 생활 할 끼가?”하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죠. 그러다가 당시 초등학교 친구 2명이 만든 컴퓨터 회사에서 컴퓨터와 프로그램 파는 일을 내가 맡아 했었지. 한 1년 하다가 또 다른 친구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거기서 6년 반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됐죠, 건설업을. 한 4년 영위하다가 IMF 겪으면서 망했죠. 망하면서 제가 화명동에 이사 왔어요. 그때부터 화명동에서 생활하게 됐죠.

⁴ 둘 다 리영희 선생(1929~2010)의 저술이다. 사회비평가이자 사회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그는 1970~80년대 운동권 대학생과 진보세력 사이에서 '사상의 은사'라고 불렸다.

⁵ 1927년에 태어나 2001년에 작고하였다. 호는 청암(靑巖)이다. 언론인 겸 저술가로 1955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였으며 1960~70년대 민주화 투쟁에 이바지하였다. 1974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하였다가 1975년 백지광고사건으로 사임하였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고 이후 월간 『말』, 『한겨레신문』을 발간하였다. 『민족지성의 탐구』(창비, 1975) 등의 저서를 남겼다.

화명포럼의 결성과 활동

화명포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화명동 내려와서 우리 집사람이 덕천동에 롯데리아 맞은편 2층에 조그마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저는 좀 쉬었죠. 쉬면서 제가 (마을) 출신이고 화명동 지역 내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자 해서 화명포럼을 시작했죠. 포럼 만들 때 화명 출신들의 인재 중에서 최고 괜찮은 사람들을 섭외했죠. 화명 출신 중에서 좌우 정치 성향을 떠나서 포럼이 지향하는 대천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으자, 그래서 화명포럼은 먼저 지역 출신 토박이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대천천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결합했습니다. 처음에는 토박이 위주로 해서 한 스무 몇 명을 입회비 20만 원씩 받고 월 회비 2만 원 딱 책정해서 조금 결속력 있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더 사람을 모으자, 모으면 그 당시 화명동에 유입 인구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대천천 활동하면서 잘 되면 회원들 더 모집되고 외연이 넓혀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화명포럼입니다.

호응이 어땠나요?

첫 번째 포럼 주제가 ‘대천천 어떻게 살릴 것인가?’였는데, 2003년도에 약 200명 정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개최한 포럼치곤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출발해서 화명포럼이 끈끈한 결속력 속에 지역에 많은 일들을 했죠. 토박이들에겐 대천천은 제게 그러듯이 우리 회원들도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옛날의 대천천으로 복원하자는 운동이다 보니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했죠? 토박이 중에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괜찮은 인물들이고 같은 고향 출신이다 보니 결속력도 좋고 해서 펼치는 사업마다 잘 되었죠.

화명포럼에서 펼친 사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성원들이 비록 정치 성향은 틀리더라도 대천천이나 환경문제는, 내가 태어나서 놀던 그 대천천으로 복원시키자는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론적인 길로는 포럼 개최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당시 뭘



화명포럼이 개최한 '대천천 살리기' 심포지움①과 에코벨트 대탐사 행사② 모습 | 양정현 소장 자료

그러면서 뭘 대천천 축제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하고, 대천천 환경 사생대회 등 좀 다양한 행사를 개최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약 3년 정도 타이트하게 잘 운영했었죠.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이귀원 선생님도 포럼에 들어오고 강호열 대표도 포럼에 들어왔습니다.

대천천네트워크의 결성과 활동

대천천네트워크의 결성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화명포럼으로는 대천천과 지역공동체 운동을 다 담아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의 '대천천네트워크'라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각 관변단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강호열의 학교건립추진위원회 등에 돌렸죠. 그 당시 화명포럼 윤희일 대표님이 각 단체를 일일이 다 찾아가 설명하고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학교건립추진위원회는 임대아파트 반대 투쟁이 방향성을 바꾼 것이고 그 결과 금명여고가 들어섰지요. 처음에 임대아파트 반대를 하니까 저는 그걸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관 주도로 임대아파트 건설이 되는 게 교통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타당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호열을 만나가지고 대천천네트워크 제안서를 보낸 거지요. 네트워크 결성을 처음 할 때는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저희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좌우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다 보니 이쪽저쪽 사람들이 모두 다 입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천천을 매개로 한 지역 환경운동, 또 대천천 유역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의 지역 공동체운동, 이러한 운동은 '지역운동'이라는 한 부문운동으로서 그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한 비판과 싸워나갔죠. 그리고 제 역할도 충분히 하려고 노력했었죠.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네트워크가 그 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나가 대상을 받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화명포럼이 대천천네트워크로 흡수된건가요?

아쉽게도 화명포럼의 많은 회원을 대천천네트워크로 다 결합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대천천네트워크가 크면서 화명포럼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우선 대천천네트워크 결성 제안서를 돌리고 4개월인가 5개월 뒤에 금정산 사갱공사가 터져버렸어요. 금정산 사갱공사가 뭐냐면 경부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장대 터널 중간에 공사용 터널을 만들어 공기를 단축시키고, 터널을 파면서 나오는 암반(巖盤)을 싣고 나오는 용도의 비스듬한 터널을 사갱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갱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암반이 나오는 거죠. 덤프트럭 몇만, 몇십만 대 분의 암반이 마을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덤프트럭 수십만 대가 지나다니면서 겪게 될 마을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를 해라고 마을 주민들이 들



대천천 복원 운동 결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대천천(2010년).
대천천네트워크는 2022년 현재에도 대천천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 북구

고일어난 거죠. 그 사갱공사 일이 대천천네트워크를 막 출범시키자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천천네트워크가 그 사갱공사 반대 투쟁에 몰두하다 보니 화명포럼 사업을 놓친 거예요.

사갱공사 반대 투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 모든 주민들이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천천네트워크 이 건물을 얻어낸 거예요. 이 건물이 사갱공사 반대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천천네트워크를 통해서 낮은 차원의 환경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 이런 말들이 말 그대로 저의 목표였죠. ‘제 고향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왔네요.

대천천네트워크 결성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지금의 강호열 대표가 그 당시에 사무국장을 하고 저는 강 대표 조금 쉬는 기간에 잠깐 사무처장을 했어요. 처음에 실무는 강 대표가 많이 했었죠. 초창기에 대외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했었고 나머지는 강호열 대표가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가 되다 보니까 항상 소통하고 의논하고 했었던 일들이고, 의기투합해서 처음에 참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 나갔습니다. 강 대표가 초창기 투쟁 사업을 많이 이끌었고 저는 강 대표에게 힘을 보태주고 강 대표 놓친 거 챙겨 주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사갱공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강 대표가 투쟁위원장 하면서 이끌고 나갔죠. 저는 그에 대한 이론적 토대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소한 것을 챙기면서 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곤 했습니다.

다양한 부류가 모이다 보면 내부적으로 서로 이해 절충이 힘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관점이 강 대표나 저는 운동적 관점에서 일을 풀어나가는 입장이고 대천천네트워크의 운영위원 또는 입주자 대표분들은 그와 같은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조금 민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강 대표나 저는 티끌 하나라도 그런 이해관계에 걸릴 게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었죠. 사실이 대천천네트워크 건물에 마을학교나 마을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대천천네트워크 일부 운영위원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왜 우리 건물에 다른 애들이 들어옵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강 대표나 내가 그분들을 설득했습니다. “마을은 무지개다, 저기서 여기까지 다 마을이다. 니[너]만 마을이 아니고 저들도 마을이다” 이러면서 풀어나갔습니다. 지금은 다 잘 지내고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죠.

대천천네트워크가 지향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네트워크가 지향했던 것 중의 하나가 포용성이죠. 마을운동 또는 지역운동은 그 어떤 계급운동이 아닌 이상 포용성이 없으면 운동이랄 수 없습니다. 내 시각으로만 보고 타인의 시

각을 배제해버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동육아협동조합, 쿵쿵어린이집 조합원 중에는 운동권 멤버들이 꽤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저하고 지역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역운동 바라보니 자기들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헐뜯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한다면 대천천네트워크가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현재 대천천네트워크가 지역 활동의 모범적 케이스로 자리 잡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천천네트워크가 모범적인 지역 활동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을 일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역 일들을 풀어나갔죠. 우리는 마을 공동체라든지, 좀 낮은 단계지만 주민들과 같이 일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천천을 살리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데에는 좌가 없고 우가 없다고 생각하고 좌우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자생 단체와 쿵쿵어린이집의 마을도서관 등의 단체와 회원들이 잘 못 어울렸죠. 처음에는 생활 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들끼리 마찰 아닌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학교나 도서관이나 네트워크 일반 주부 회원들이 다 잘 어울리며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함께 더불어 같이하는 운동적 관점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박이와 이주민 그리고 정주의식

대천마을에 이주 인구가 많아지면서 토박이와 이주민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거나 토박이들이 오히려 소외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는 대천천네트워크나 화명포럼을 하면서 여기가 그냥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 동네’라는 의식, 그러니까 정주의식(定住意識)을 심어주려는 많은 노력을 했죠. 대천천 문화 환경 축제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타 지역에서 화명동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 주려고 기획된 사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명동에는 저희 토박이보다 이주해 오신 분들이 엄청 많죠. 이제 토박이들은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토박이들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엄청 작아요. 이제 화명동이 15만이 넘었는데, 거기서 토박이 비율은 손마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 토박이나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저희 토박이들이 지역운동을 앞장서 하는 이귀원 선생님이나 강호열 대표나 다른 활동가들을 도와주고, 토박이로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박이를 내세우기보다 현재 여기 화명동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 주민으로서 역할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주의식이 중요한 포인트인 듯합니다.

정주의식을 주민들이 가지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목표했던 그거예요. 비록 내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이제는 여기서 발붙이고 살겠다는 ‘우리 동네’가 된 것이죠. 내 동네라는 인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고, 그러면은 동네 작은 일이라도 관심이 가고 예전과는 동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대천천을 걸어도 내 동네인데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고, 꾸중물[구정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리하면서[그렇게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죠. 인생 별거 없습니다.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뭐 그렇게 오순도순 더불어 사는 거죠. 물론 큰 지향점들이야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잘하면 정치적 어떤 그런 것들까지 결합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몫이겠죠. 제가 가장 잘 쓰는 표현 중에 ‘아름다운 대천천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 대천천 사람들 정말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박이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토박이의 역할이란 게, 토박이만의 권력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화명포럼의 회원들이 정당 지지를 따진다면 20퍼센트 정도는 저하고 같은 당이고, 나머지 회원 80퍼센트가 대부분 반대쪽이거든요. 저희의 정치적 분포가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박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강빨 잡자[주도권을 잡자] 흔히 말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토박이로 먼저 지역에 봉사하고 먼저 나서면 같이할 사람들 몰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화명포럼을 시작했어요. 출발 지향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화명포럼이 없어지면서 토박이 구조나 개념을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만약에 지금도 토박이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 토박이로서 우리가 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봉사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로 봉사하는 토박이로서 잘하는 바를 가지고 지역에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방진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이 마을에 깨어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도시화와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겹도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천천네트워크가 현재 지역 사업의 근거지가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대천천네트워크의 사업을 통해서 활동가들을 양성시키고, 회원들을 더 많이 조직화해나가면서, 조직을 키우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대천천네트워크가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대천천네트워크의 과제 중 하나가 젊은 층을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초창기 멤버들이 많아요. 지금 새로운 회원들이 좀 유입은 되는데 대체로 5~60대 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을에는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서만이 조직을 꾸리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untact)로 하지만 축제를 한 판 벌인다던지, 대천천 문화 환경

축제나 단오 축제를 등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관심 있는 분들을 영입하여 조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지역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결합하고, 결합된 사람이 다시 조직화되고, 이렇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큰 것이 조직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좀 번성하지만 저희는 마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걸 보여주기 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사업하고 활동한 것을 알리고 하고, 아기가기하게 부스를 꾸며 체험활동도 하면서 재미나게 판을 짜서 축제를 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의 부스를 마련하여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추는 무대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또 그 아들의 엄마 아빠들도 와가 본다 아입니까[와서 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오면 부모님들도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을 알리고 홍보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혹시 그분들이 저희와 결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다음에 저희가 대천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와 같이 대천천 청소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권할 수 있는 거죠. 조직화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부분을 조금 더 넓혀 가면서, 점점 키워 가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도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세대교체와 관련하여 마을을 떠나는 젊은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화명·금곡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생산시설이 거의 없어요. 여기 화명과 금곡은 베드타운(bed town)이잖아요. 이 지역만 봤을 때는 어렵지만 베드타운이라는 한계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결합시켜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조금 작은 평형의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은 평형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사는 거죠. 화명과 금곡 요[이] 주변에 2~30평⁶ 이하의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젊은 세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활동하면, 젊은 사람들과 결합할 수 있겠지요. 부부간에 작으면 18평⁷ 혹은 크면 20여 평⁸ 아파트에 사는 젊은 세대들과 결합이 되면,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가 잘만 하면 그분들과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천천네트워크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40대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결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50대에서 60대 넘어가니까요. 저도 올해 쉰아홉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직 사업할 때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대천마을의 재개발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발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명동 전 마을들을 재개발하는 것은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⁶ 약 60~100㎡ 가량이다.

⁷ 약 60㎡ 가량이다.

⁸ 약 67㎡ 가량이다.

는 개발이 됐으면 하는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을에 대해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에 뭐 조그마한, 예를 들면 일본 가면 그런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소로길 해서 작은 가게가 쪽 있는 그런 거리로, 이를테면 일본 규슈[九州]의 유후인[湯布院] 거리처럼 말이죠. 아니면 여기에 한옥을 좀 조성한다거나, 안 그러면 여기에 뭐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을 모셔서 예술촌을 만든다거나, 도예촌을 만들다 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거죠. 행정에서 그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면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행정이 그걸 못 하니까, 여기 주민들은 아파트 재개발 욕구밖에 없는 거죠. 자그마한 기와집 몇 군데에서는 도자기를 굽고, 어떤 집에는 빵을 굽고, 어떤 집은 종이 인형 놀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 예쁜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그림은 있었는데, 실제로는 못하니까 매우 안타깝죠. 이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나도 좋은 집에 살아보고, 돈도 벌어보자는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죠.

앞으로의 대천마을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저는 현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개발할 것은 멋지고 아름답게 개발하고.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키며, 개발도 아파트만 짓는 한 방향으로의 개발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전을 공존시키면서 어떻게 지역의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할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재개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득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재개발하려면 결국은 일정 정도 재정 투입이 있어야지, 그냥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좀 이끌어주고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명동, 금곡동은 지금 아파트로 모를 심어놨잖아요. 아파트를 모라고 표현하면 화명, 금곡 전 지역에 모만 짝 심어놓은 거죠. 다른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한[한] 거예요. 화명, 금곡을 이렇게 아파트 모판을 만들어 놓은 게. 또 대천천은 언제 났습니까[어찌 되었습니까]? 하천 양안을 전부 콘크리트로 다 발라 버렸죠. 물론 지금은 복원시켰습니다만, 대천천을 콘크리트로 도배한 곳이 부산시 도시개발



아파트촌이 되어가는 대천마을(2022년)

공사거든요. 또 화명지구 신도시 택지 개발하면서 법적으로 만들어야 도심공원을 어디에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공원 만들어야 하니까, 저기 카이저 아파트 뒤에, 금란 유치원 뒤에 화명근린공원이라고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산에 운동기구 몇 개, 벤치 몇 개 놓고 공원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이 화명지구 신도시 택지지구 안에 있어야 될 공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건 흔히 말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는 거죠. 여하튼 개발은 하되 자본주의 시장에만 맡겨도 안 되고, 위치럼 공공 부분이 개발을 맡아먹어도 더욱 안 되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민과 결합하여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디까지나 기초의원들은
생활 정치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니까요

”

06

윤인자



윤인자

- 1957년생
- 부산 당감동 출생,
5세 때 대천마늘로 이주
- 통장, 북구연합회 회장 역임
- 2014년 부산 북구 라 선거구
기초위원으로 당선되어
구의원으로 활동



윤인자는 당감동에서 태어나 다섯 살이 됐을 무렵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대천마늘로 이주해 왔다. 이후 대천마을에서 자랐고 마을 토박이인 배우자를 만나 약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지역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화명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사택에 살았던 교사의 부인들과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다. 어린 시절 여자아이들은 주로 마을 안에서 고무줄넘기·사방놀이 등을 하며 놀았다. 윤인자는 추천제를 통해 추천이 되었던 '1호' 학년으로 해화여자중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등굣길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 홍수가 나 휴교를 했던 것 등을 추억하였다.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어린 시절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말썽을 부리면 아버지께서 “학교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실 때였다. 하지만 딸에게 많은 학비를 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 집에서 가까운 실업계 학교인 구포여상을 진학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북구청 근처에 있는 회사 신진의 경리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직장 생활을 하던 무렵 중 그사이에 대천마을 출신인 동갑내기 남편과 연애로 결혼하였다. 결혼한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치원, 학원 등을 경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30대에 대학교를 입학하여 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윤인자는 학창 시절부터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4H나 RCY 활동을 하였다. 결혼 후 자녀의 반대표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학부모 대표, 육성회장을 맡았고, 지역사회에서도 통장 일을 하다가 북구연합회 회장까지 선출되었다. 토박이들의 머느리들로 구성되는 목화부녀회(대천마을 부녀회)의 총무를 1995년부터 계속 맡아오고 있다. 목화부녀회는 어버이날 어르신들의 모임, 경로당 모임, 기타 각종 마을 행사의 준비, 특히 음식 준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목화부녀회 총무는 행사의 사회나 진행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아 윤인자가 도맡고 있는 것이다. 정당 활동도 열심히 하였으며 전임 기초의원(구의원)에게 지명을 받아 2014년 북구 라 선거구 기초위원에 출마하였다. 북구 라 선거구는 화명2동과 금곡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윤인자는 화명2동 출신인데 금곡동의 인구가 훨씬 많아 당선을 받는 데 약조조건이었으나 당선에 성공하였다. 윤인자는 기초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표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또한 '기초의원은 생활 정치'이므로 평소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천마을 사람들이 환경문제, 특히 대천천을 보존하기 위해 개개인이 관심의 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파트 세대와 토박이들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축제,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01

자기소개와 성장기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예. 저는 이 대천마을에서 50여 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배우자를 만나서 이 마을에서 봉사도 하고 또 지역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항상 참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57년 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예순다섯이 됩니다.

마을로 들어오시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 한 다섯 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직업군인으로 20여 년간 근무하셨던 분인데 군 생활을 마치고 대천마을에 큰 백부께서 계셔서 이쪽으로 함께 오셔서 여기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에 살게 된 거지요. 저는 파평 윤씨 소정공파 35세 손입니다.

02

어린 시절의 추억

화명초등학교를 다니신 걸로 아는데 초등학교 때 추억이 있으신지요?

말씨가 좀 달랐는지 아이들이 서울내기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학교 뒤에 교사 사택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기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 댁에 놀러도 가고 선생님과 같이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고기 잡았던 기억도 있어요. 저희는 선생님의 사모님하고도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공동우물에서 음식재료를 다듬고 빨래를 할 때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 뒤 위치했던 교사사택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찬물샘에서의 윤인자 가족 모습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2013.

마을에 들어오셔서 부친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을에서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가게가 몇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¹가 있는 그 앞 건물, 그쪽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팔았습니다. 가게는 집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버스가 시간 정해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큰길로 나와야 차를 탈 수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많이 마주치게 되었지요. 파출소도 거기 있었고요.

어릴 때 여자애들은 이 동네에서 보통 어떤 걸 하면서 놀았습니까?

까만색 짧은 반바지 입고 고무줄넘기를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사방(치기) 놀이 같은 거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살구 놀이[공깃돌 놀이] 등도 기억이 나네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포중학교로 많이 진학했는데 여학생은 어떻게습니까?

우리가 추천제 1호 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범내골에 있는 혜화여중을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 추천이 되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릴 때 그 버스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안내양이 막 배로 사람을 밀어 넣고 개문발차(開門發車)했다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매달려서 갈 정도로 아침 등굣길이 상당히 힘들었죠.

당시 화명동에서 버스 안 갈아타고 갈 수 있었습니까?

비포장도로로 양산 시외버스나 15번 버스를 타고 덕천로터리에서 갈아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한 해는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범내골 학교까지 들어가니까 운동장에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가 치마를 잡고 가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갔는데 교실에 책걸상이 전부 다 뒹뒹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전화도 원만하지 않고 이래서 저희는 학교까지 갔었는데 다시 돌아가라 해서 힘든 그런 기억이 있었죠.

어릴 때 대천천 범람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수해 입은 이런 기억은 납니다. 저희도 집이 침수 한번 됐어요. 집이 조금 저지대로 도로보다

조금 낮았는데 하여튼 물이 찼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어려서 그랬는지 저희는 크게 놀랐고, 부모님께서도 힘들어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연세로 미루어봤을 때 당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학생들보다 중고등학교 이상 진학하는 비율이 낮았을 거 같은데요?

예. 저희는 학교를 계속 갔지만 그때는 친구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후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명의 자녀를 공부시켜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말을 좀 잘 안 들으면 아버지께서 학교 가지 말라는 말, 그게 저는 제일 겁났다고요. “학교 가지 마라” 그래서 다시 말 잘 듣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부친께서 군인 출신이셨는데 성장하시면서 그런 영향을 받으신 건 없습니까?

아버지가 군에 계실 때 6·25도 겪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6·25 당시 특무상사니까 임시로 부산진구 경찰서장도 했다고 들었고요. 하여튼 사는 거는 군인 가족으로서 그냥 잘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뭐 친척들도 당감동에 집이 매우 큰 게 있었고 아버지가 거느리고 계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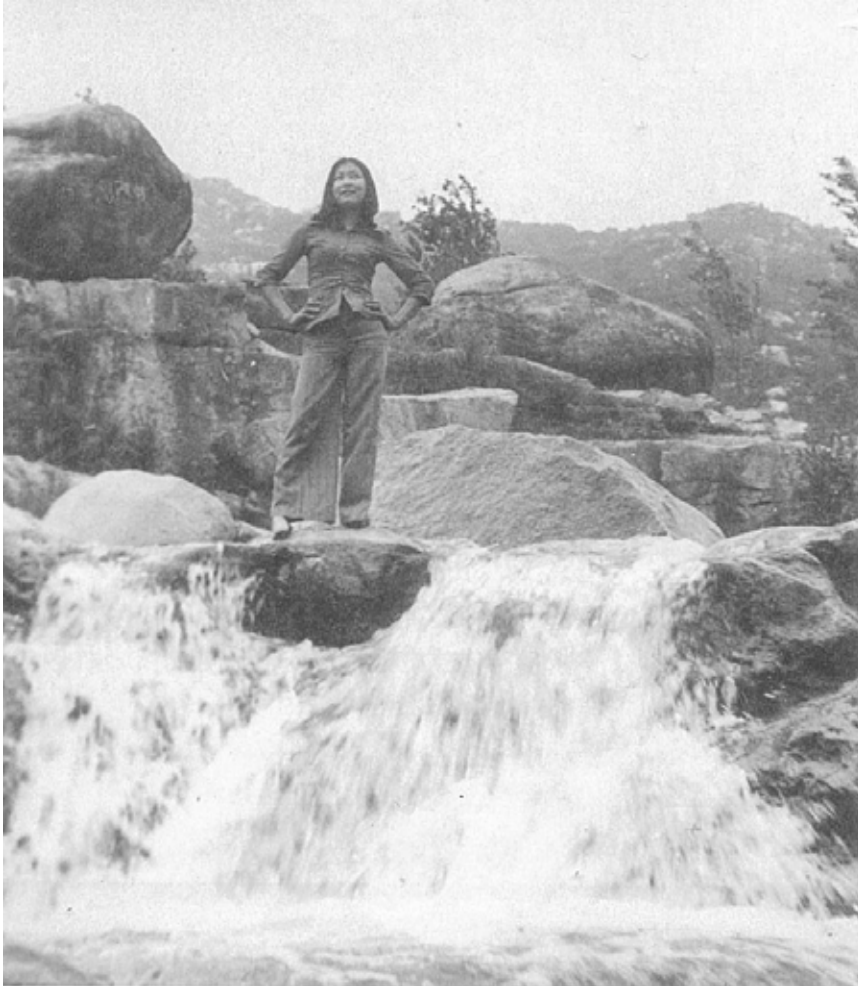
어릴 때 가치관 형성되고 할 때 부친께서 군 출신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신 건 없습니까?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만약에 그다음 날 일을 해야 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하여간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너무너무 규율을 잘 지켜야 하고. [웃음] 군인 생활처럼 우리한테 항상 교육하셨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진학하셨나요?

형제가 네 명이니까 학비 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조건 먼 학교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포여상으로 갔어요. 차비가 적게 드는 가까운 학교에 다녔어요.

¹ 현재의 부산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이다.



고등학교 시절 애기소에서 구술자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2013.

어릴 때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나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죠. 마을 일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먼저 나서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부모님께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4H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활동했는데 지금은 자세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4H 외에 RCY 같은 활동도 했습니다.

불교 믿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RCY 활동을 하셨네요?

어릴 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금정산 정수암 모습(2022년)

근처에 어느 절에 많이 갔습니까?

저 산성에 정수암이라고 있습니다.² 부모님 따라서 가는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그 절에 가곤 합니다.

마을에 당집 같은 게 있던데요?

예. 지금도 당산제를 지내는데 정월 보름날 되면 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드는 도움을 드려서 제례 모실 때 참여하고 하죠. 제 지낸 뒤 마을 회식할 때도 저희가 하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만 지내시고 간단하게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2년 전에도 그런 거 아니면은 매년 보름날 되면 저희가 참여하고 같이 마을사람들과 음식을 나눠먹고, 마을발전과 보존을 위한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간소하게 제사만 지내죠.

² 금정구 금성동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근처에 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이후에는 진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구청 쪽에 있었던 신진공업사에서 경리 일을 했었어요. 집에서 버스로 통근하고 하숙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복지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하셨고요. 마을 분하고 결혼하신 걸로 아는데 중매였습니까?

연애로 [웃음] 결혼했습니다. 동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는데 그쪽에서 편지를 써서 저도 답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군에 3년 갔다 오는 것까지도 기다렸고 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동갑이면 초등학교도 동창이셨겠네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전혀 몰랐었죠. 고등학교 때 책에 편지를 끼워 보내서 처음 그 사람을 알았죠.

당시 마을에서 연애결혼이 흔한 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가정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그런지] 몰라도 한길로 가면 끝까지 한길로 갔으니까 일편단심으로 그랬겠죠. [웃음]

남편분하고도 마을 안에서도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랬던가요? 어디서 주로?

화명교라고, 저기 인도네시아 센터로 넘어가는 다리 있죠? 그 다리 위에서 [웃음] 만나고 그렇게 했죠.

거기서 데이트하시면 마을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교제하시는 걸 아시지 않았나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양쪽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군에 갔을 때도 3년을 기다렸지요.



화명교와 그 뒤쪽에 자리잡은 인도네시아 문화센터(2022년)



구술자 윤인자의 시어머니 모습 | 맨날동무도서관

그러면은 결혼하신 남편 분은 직장생활 하셨습니까?

당시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무원을 했습니다. 직장이 계속 전근했지만 살기는 화명동에서 살고. (저는) 결혼하고는 직장은 안 다니고 유치원이나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04

목화부녀회 활동

목화부녀회에는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나요?

부녀회는 1995년 7월 12일부터 목화회를 조직했죠. 제가 활동할 때는 이미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³ 사무실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셔서 제가 총무를 맡고 여기 사진에 제일 모퉁이에 계시는 분이 회장하고 그래서 부녀회를 시작하게 됐죠.

총무를 오랫동안 역임하고 계시는데 안 바뀌는 거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하면은마을의 연혁도 얘기해야 하고 사업을 어떤 거 하겠다는 이런 걸 어르신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니까 딸이면서 며느리인 제가 가장 수월 하니까 연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부녀회 이름을 ‘목화’로 한 것은 어느 분의 의견입니까?

윗대 선조들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목화를 심어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했다하여 그 정신을 살려 윤희수 어르신이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천마을부녀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그렇게 제안하셔서 ‘목화부녀회’로 정했습니다. 윤희수 어르신도 우리 목화

³ 마을회관 2층으로 구술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이다.



목화부녀회 역대 회장과 활동 사진(2021년)

회가 하는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물질 심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십니다.

자료를 보니 처음에 부인회가 있다가 ‘생활개선구락부’가 되었다가 목화회로 계승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랬다더라고요. 처음 1940년대에 ‘대천부락부인회’로 이기숙 씨가 하였고 그다음 1970년대에 김자선 씨가 하시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한참 동안 부녀회가 없었는데 1995년도에 목화부녀회가 창립총회를 가지게 된 거죠.

부녀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쭙 봐도 될까요?

저희는 외부 활동보다는, 대천마을에 어르신들 조직이 몇 개 있거든요. 마을에는 경로당 모임도 있고, 상수도위원회, 마을회 등 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의 행사 때나 경로당에 어버이날이나 또 다른 기타 행사가 있을 때 부녀회가 적극적으로 음식 준비라든지, (행사) 진행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은 또 수시로 격려금도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십니다. 또 마을에서 어르신들께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일정 부분 각출하고 어르신들이 기부금을 보태시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부녀회 자체 내에서 자기들을 위한 행사도 있습니까?

그런 행사보다는 마을의 행사 때 마을 주민으로서 같이 참여했지요. 어르신들 행사하면은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을에 소속된 부녀회죠. 개별적으로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부부 모임을 해서 친목 도모를 합니다. 그렇게 부부 동반 외출하면 형님 동생 간에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남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장이 되는 셈이죠.

마을부녀회와 아파트 부녀회 간의 지역네트워크 같은 조직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화명2동 아파트별, 지역별 부녀회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서로 교류했는데 요즘은 그런 교류가 점차 없어지고 아파트 단위 네트워크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목화회는 꼭 자격이 본토 출신의 며느리들이 되어야 했으니까. 그런 부녀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약간 선을 두었던 거 같습니다.

토박이 집안의 며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신다면 토박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활동이 조금씩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 들어갈 나이쯤 되면 그런 면이 안 없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또 지역에 개발이 되고 해서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밖에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됐잖아요. 그런데도 솔직히 장기적으로 이런 조직을 이어간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 내부만으로는 힘들 거 같아요.

외부에서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새로 유입된 분 중에 부녀회 성격의 다른 단체를 만든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따로 그런 건 없었고요.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긴 하지만 이런 모임은 본토의 부녀자 모임으로서 자존심으로서 지키고 있을 필요가 있죠. 저는 대천천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했는데, 간혹

외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외부 여성단체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더라고요.

대천천네트워크가 처음 형성이 될 무렵에 같이 일하자고 요청이 왔습니까?

예. 제가 통장도 하고 있었고 마을의 일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할 때니까요. 저는 대천천네트워크 공동대표까지 역임하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마을 토박이 중에는 파평 윤씨라든지 창원 정씨, 안동 권씨 등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목화회 소속된 회원님들도 그 집안 며느리들이 많으신가요?

예예. 아무래도 윤씨가 많죠. 윤씨, 정씨 예 뭐 그렇습니다. 맞아요.

선생님께서 같은 파평 윤씨이기는 하지만 금호재 있는 대천마을 문중은 아니신 거죠?

소정공파 35대로, 집안은 같은데 우리 집 선조가 이 마을 문중보다 큰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중 제사 같은 거 지내실 때 따님들끼리도 윤씨 집안 여자 모임 같은 걸 합니까?

며느리들하고 같이 관광을 보내주시고 그러긴 하는데 의원 당선 때 파평 윤씨 문중 신문에 나왔을 때 보니까 저는 딸이니까 조그맣게 나오고 며느리는 크게 나왔더라고요. [웃음] 출가의 인이라 그렇죠. [웃음] 결혼하고는 (남편) 주씨들 집안 행사에 열심히 다니죠. [웃음]

남편도 문중이나 본가 이런 데서 제사를 지내시나요?

예. 서방님도 문중에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총무 부인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김해 주촌면 문중에서 한 10년째 계속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⁴ 그것도 옆에 내조를 안 해주면 힘들거든요. 집에서 좀 도와줘야 신랑도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지요.

목화부녀회가 분들은 원래 고향은 되게 다양하시겠네요?

예 다양하죠. 김해 사람도 있고 양산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⁴ 김해시 주촌면의 신안 주씨(新安朱氏)이다.

여기서 60년 넘게 사셨고 그러면 마을이 농촌이었던 시절부터 개발이 되어 온 역사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맨 처음 시집오니깐 시택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학교만 다니고 직장 다니고 농사일을 모르고 사실 전혀 밥도 할 줄 몰랐는데 모내기 할 때 밥과 찬을 머리에 이고 가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는 거를 못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택에 논밭이 어느 쪽에 주로 있었습니까?

지금 철길이 강 저쪽으로 나갔잖아요. 철길이 지금 화명고등학교 쪽 즈음에서 인도네시아 센터 아시죠? 거의 다 논이었어요. 철길 안에도 논이 있었고 밖에도 논이 있었는데,⁵ 철길 안쪽은 개인 농지였고 철길 밖에는 하천부지였죠. 인도네시아 센터 근처가 전부 다 우리 논이었거든요. 그 옆에 어린이집 있는 거기가 전부 우리 논이었어요. 1,000평⁶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다 들어섰죠.

아파트들이 처음 들어서던 시절 기억이 나실 건데요.

도시그린아파트하고 숲속그린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인제 막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금새 아파트촌이 되었어요. 원래도 대천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었거든요. 통틀어서 화명이라 해도 대천마을하고 밑에 화명1동 쪽은 또 와석(마을)이라 하고 마을 이름이 각자 틀렸거든요. 그랬는데 화명1동이 되고 화명3동이 되고 (화명동이) 3개의 동으로 갈라졌잖아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어느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지고, 그러면서 대천천네트워크에서 기존 주민

⁵ 백포원과 모리원을 말한다.

⁶ 약 3,376㎡이다.

들과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마을 일을 자연스럽게 의논하고 했는데, 이제는 본토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게 되었죠. 저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긴 했어요. 통장으로도 활동했고 그래서 마을 활동을 같이했죠.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개발되는 분위기에 목소리가 다양한가요?

저는 사회는 바뀌어야 하고 지역은 자꾸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대천마을이 금정산 푸르른 산줄기와 낙동강이 있어 배산임수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경관이 멋지게 보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야만 하니, 다양한 목소리는 있겠지만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새로 생긴 단체들도 많은데 그런 단체와는 주로 대천천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했습니까?

그렇죠. (대천천)네트워크를 매개로 해서 사갱공사 그런 거 할 때도 그 모임을 통해서 반대운동 했습니다. 물론 저는 예전부터 협조하고 같이 어울렸죠.

토박이분들 같은 경우는 점점 참여도가 낮아지시는 것 같은데 같이 활동하자고 끌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지역 분들이 외부인에 대한 텃세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람하고 같이, 이쪽 사람이든 저쪽 사람이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하고 지역은 자꾸 발전되어 나가야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부분은 버리고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표가 나와서 마을의 화합과 참여도를 높여 함께하는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화부녀회도 언젠가 개방이 되겠지요?

맞아요. [웃음]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외부로 이사 가면서 부녀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향후 함께하는 시간을 넓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겁니다.

어떤 계기로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반장을 하게 되었는데 반장 어머니 모임에서 회장으로 뽑게 된 거고, 운동회나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죠.

통장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통장은 한 10여 년 했죠. 10여 년 하다가 북구연합회 화명2동 대표로 나가서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죠. 통장연합회 회장 임기가 2년인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기초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죠? 그게 화명2구역주택재개발입니다. 거기 총무이사를 내가 8년인가 했거든요. 총무이사 하다가 전에 의원 하시던 분이 저를 추천해서 기초의원에 출마하게 됐죠. 그래서 통장과 연합회장 그리고 총무이사를 중단하고 출마했어요. 겸업은 못 하거든요.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여쭙긴 그렇지만 뽕 수도 없는 부분이라, 기초의원 하셨던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북구 라 선거구입니다. 화명2동하고 금곡동입니다. 화명2동이 그때만 해도 인구가 2만도 채 안 됐고요. 금곡동은 4만 5천이 넘었거든요. 어지간하면 군(郡)급 됩니다. 합쳐서 6만 정도 넘거든요. 화명2동이 2만도 안 되고 금곡이 2배 넘으니까 금곡 출신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자들은 처음에 비례대표를 주는데 저는 바로 지역구를 뛰었거든요, 경험도 없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정당 활동을 하신 겁니까?

예예. 그전부터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탐장 맡고 노력했고, 그러다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직업이 없었던 게 아니고 화명 2구역 재개발 총무이사를 하고 있었던 때여서,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부부간에 의논해서 결정했죠. ‘그래, 지역 봉사하는 김에 나도 더 나아

가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재개발 총무이사와 통장을 그만두고 출마를 했죠.

기초의원 활동을 하시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냥 명찰 달았다고 최선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기초의원들은 생활 정치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니까요. 그야말로 밤낮없이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지역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철에 주민분들이 편찬도 주시고 가족들 품행도 평가 대상이 되는 등 기초의원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지역의 현안 사항 같은 걸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이나 구청 발언을 통해서 성사시킬 때도 있었죠. 또 구청에 간부들에게 뭔가 우리 지역에 꼭 뭐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전달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하나 목표를 두면 관철을 꼭 시켜야 했고 내 책임과 의무는 철저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당을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던 결과, 후반부에는 북구 의회 부의장 되었어요. 그것도 의원들 13명이 투표하거든요. 한 2년 동안 한 결과 부의장이 되었고 몸을 아끼지 않고 뛰었습니다.

기초의원 하실 때 기억에 남는 활동 같은 거 있을까요?

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면 신축 아파트⁷ 옆 용두천(용동천) 정비사업을 재개발 측에서 진행하라는 것을 관(북구청)에서 하도록 구정 질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철시킨 것이 있습니다. 매년 거둬지는 재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도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어서 가장 자부심을 갖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난리 나는 곳이 용두천과 화명 대천천, 화명 생태공원 아닙니까?

생태공원 쪽에서도 계속 수해가 났네요.

그렇게 사업을 해봐도 수시로 토사가 다 쓸어가고, 나무 같은 것도 쓸려가곤 합니다. 지금 여

⁷ 대우 푸르지오 헤리센트를 말한다.



화명신도시3차비스타동원아파트 모습(2022년)

러 곳에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대천천 수질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토사 내려오는 거 말고는 그 외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동원아파트⁸ 들어서고 있는 쪽을 보면, 거기 병원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병원 물품 세탁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대천천에 유입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천천네트 워크에서도 감시와 감독을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항상 대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지요. 그렇게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⁸ 화명신도시3차비스타동원을 말한다. 화명초등학교 동쪽에 위치한다.

마을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단위로 살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나 관계에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각자의 닫힌 생활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 직은 아파트 주민과 남아있는 일반주택 주민들과의 소통이 너무 폐쇄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대천마을이 좋은 점은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폐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대천마을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게 있을 까요?

지금 많은 분이 이제 대천천이 범람하는 데 대해서 시설 개선 등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환경이 멋지고 깨끗한 하천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은 보기 힘들고 잘 없 거든요. 그래서 보존을 잘해야 하는 것을 우리 주민 모두가 애써야 할 거 같아요. 물론 요즘은 하수가 차집관로(遮集管路)⁹로 다 빠져나가지만, 혹여라도 대천천 옆으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물고기들이 뛰어놀 수 있고 황새와 가마우지 새가 노니는 그런 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 간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이나 토박이분들의 유대관계는 마을 축제나 여러 가지 함께하는 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⁹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하수관을 말한다.

넷가에 마을을 이룬 곳,
대천마을

발행	부산광역시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T. 051-888-5057)	
발행일	2022년 5월	
디자인·제작	엔크리에이티브(주) 도서출판 예린원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454-14	
ISBN	979-11-85308-46-3 979-11-85308-12-8 (세트)	
원문공개	부산시(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	
원고집필	정영현	부산대학교
	박경연	부산대학교
원고교정	이창섭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사진 협조	개인	양정현, 정홍길
	기관 및 단체	국가기록원, 맨발동무도서관,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북구청, (사)대천천네트워크, 화명기록관